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0월 26일(음력 9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 549 호

간화선 대중화 닻 올린다

조계종, 지도자 양성교육기관 설립 추진위 구성
청소년·대학생 위한 프로그램 개발팀도 발족

조계종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조계종은 간화선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 불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전방위적인 간화선 대중화에 나선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와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진명)은 10월 18~19일 대구 동화사 비로암에서 전국선원수좌회 스님 및 불교학자, 종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간화선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 설립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는 교육원, 포교원, 전국선원수자회 스님과 종무원 및 불교학자들로 구성돼 올해 안에 발족할 예정이며 간화선 지도자 교육기관의 성격과 교육형식, 커리큘럼, 기간을 결정하는 등 지도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화선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 이수자들은 신도기본교육을 마친 조계종 신도 및 간화선 입문자를 대상으로 종단이 지정한 사찰에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지도하게 된다.

간화선 지도자는 출·재가자 구분 없이 될 수 있으며 출가 지도자는 4안거 이상을 성만한 자, 재가 지도자는 간화선 실참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불학연구소 박희승 연구차장은 "종단 차원에서 전통 간화선 수행체계를 사부대중에게 쉽게 전달할 지도자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2002년부터 연구를 시작, 올해 초에 펴낸 <간화선>과 1, 2차 기본수행 시범운영에 이어지는 '간화선 기본수행 프로그램'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일반 신도 뿐 아니라 청소년과 대학생 불자들도 간화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청소년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을 발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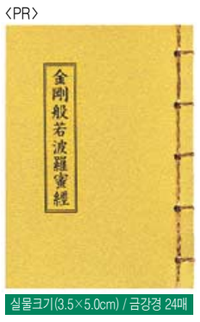
연구개발팀은 앞으로 청소년 계층의 정서와 수준에 맞는 간화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청소년 심성개발프로그램과 고민상담방법, 영상음악자료 축적 등 청소년 포교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이 의장을 맡고 봉은사 교육국장 선업 스님과 김형중 종립학교 교법사 등이 연구개발팀에 참여한다. 또 연내에는 대학생을 위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연구개발팀도 꾸려질 예정이다.

불학연구소장 화랑 스님은 "간화선 수행지침서를 펴내고 간화선 기본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배경에는 재가불자들의 간화선 수행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며 "전통 간화선 수행체계를 사부대중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통해 수행종단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영문 포탈부다피아 eng.buddhapia.com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양주 회암사지 유물 소유권 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20일 회암사 봉선사 문화재청 양주시 등 관계자와 의정부 지방법원 담당판사 등이 회암사지 전망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양주=고영배 기자

회암사 유물 소유권 소송 '현장 검증'
'맷돌 회암사 소유' 확정

양주 회암사(주지 각원)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회암사지 유물 소유권 확인소송과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2부 재판부는 10월 20일 회암사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원고인 회암사와 피고인 문화재청·양주시청을 비롯해 회암사의 본사인 봉선사, 조계종총무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벌어진 현장검증은 회암사지 출토물 보관수장고, 회암사지 현장, 회암사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문화재청과 양주시청이 "회암사지 맷돌(경기도 민속자료 제1호)에 대해서 원고와 소유권을 다투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회암사지 맷돌 소유권은 회암사의 것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회암사지의 괘불대·석조·돌계단 등 다른 지상문화재들도 회암사의 것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익순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속보 buddhanews.com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27일 종책 토론회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종책토론회가 10월 27일 오후 3시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 토론은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화합승가포럼,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 한국불교기자협회 등 4개 단체가 주관하고 교계 언론사 등이 후원한다.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정책국장 원명 스님은 "청정선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동국대이사회 갈등 '점입가경'
18일 영배 스님 연임 결의…장윤 스님 '무효' 소송

동국대 이사회가 11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영배 스님의 이사 연임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제214차 동국대 이사회가 열린 10월 18일 오전 이사장 현해 스님은 통도사 스님들의 이사회 저지에 대비, 경비용역 직원들 30여명을 고용했다. 영배 스님의 이사선임을 반대하는 통도사 스님 40여명이 이사회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대학본관은 고춧가루와 소화기 분말이 뿌려지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와중에 영배 스님의 재임을 지지측 이사 9명이 참석했지만 이사재임을 반대해온 지관·장윤 스님은 이사회 참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9일 장윤 스님은 "이사의 정당한 회의참석을 저지한 것은 불법으로 영배 스님의 이사선임이 원천무효"라며 "유례가 없는 용역 동원이라는 치욕스런 상황을 연출한 책임을 지고 나를 포함한 승려이사 모두가 동반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영배 스님은 20일 "난동 수준의 폭력적 방법을 동원 원만한 회의진행이 방해받는 상황에서 경호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무처직원의 입장 권유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회의장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바로 학교를 빠져나간 것은 이사회 개최의 적법성 시비를 위한 의도적 불참"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텅빈 충만, 空
-해공제일 수보리

혜거 스님 | 10월 26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할'



그림·조태호

약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본 광고는 총무원장선거법 제10조에 의한 제32대 총무원장선거 입후보자 종책공고입니다.

기호1번


지관스님 수행 및 종단 소임 이력
1947. 11. 3 화엄사에서 자운성우율사를 시사로 사미계 수지
1953. 5. 24 통도사에서 자운성우율사를 지사로 비구계 수지
1965. 11. 25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선역임
1968. 8. 7 동국학원 이사 취임
1970. 11. 20 화엄사 주지 취임
1972. 7. 20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취임
1973. 1. 2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취임
1980. 8. 7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취임
1986. 1. 16 동국대 11대 총장 취임
1993. 12. 20 화엄사 주지 취임

현재 활동상황
대한불교조계종원로의원 | 동국학원 이사
동국대 명예교수 | 사)간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요 수상경력
2001. 10. 20 문화관광부 은관문화훈장 서훈
2001. 11. 30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2005. 8. 12 만해대상 학술부문 수상

주요저서
간산불교사전, 역대고승비문총서 등 다수

화합과 안정 그리고 미래, 한국불교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관스님의 종단 운영 4대 기조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 안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의 한결같은 바람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종단안정입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과 좌절을 경험한 우리 종단은 '화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원력'을 가진 총무원장을 기다하고 있습니다. 승가 전통인 '공의'에 의한 원융화합은 지관스님의 변함없는 소신이며 종단운영의 제1의 원칙입니다. 문중과 계파를 떠난 '공평무사한 인사원칙과 제도 정착' 그리고 권위와 독단을 배제한 '수평적 의사 결정' 은 한국불교의 안정과 희망을 열어갈 것입니다.

중앙과 교구의 조화로운 발전, 교구 활성화로 실현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중앙기관과 교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중앙종무기관은 작지만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교구본사는 권한과 위상 강화로 특성에 맞는 분권종무행정의 기틀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대 흐름을 통찰하고, 풍부한 경륜과 행정력을 갖춘 지관스님의 결단력은 교구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통제대비사상, '자비의 나눔'으로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계층의 정당하지 못한 부의 축적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전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정한 사회 현상을 극복하는 길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에 따라 '자비의 나눔'을 대중화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종단', 지관스님이 추구하는 종단운영의 방향입니다.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700여년의 유구한 전통을 간직한 한국불교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여 국민의 정신을 함도해 나가야합니다. 또한 제31대 총무원이 일궈놓은 '세계속의 한국불교'를 계승하여 한국 선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불교대회'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불교와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켜야합니다. 제32대 총무원장 후보로 입후보한 지관스님은 이력(履歷)와 사행(事行)을 겸비한 경륜과 높은 학덕, 청빈한 수행자의 자세로 종단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관스님의 10대 분야 종책공약

1. 수행종풍 진작
종지 종풍의 수호와 전승
종단 수행 체제의 정립
선사상 연구원 설립 및 학술대회 개최

2. 교구본사 역량 강화, 교구활성화 실현
각 교구본사 특성에 맞는 분권종무행정의 기틀 마련
말사주지 인사권 이하 주요 종무 권한 교구본사 상통에 맡게 이양
전인 (경제, 문화, 환경 등) 에 따른 권역별 사찰 네트워크 운영
교구문화재 관리를 위한 국고지원 확충

3. 열린 종단, 효율적인 종무행정
능력중심의 공평무사한 인사제도 정착
교육원, 포교원 위상강화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종단 자산의 효율적 관리 (종단 재정 확대 기획단 구성)
비구니부 신설 (고역직 인사 등록)

4. 수행 및 교육
승납과 법계에 따른 교구별 재교육 시행
역경사업 7반 조성 (한문경전, 범어원전의 역경, 각종 사전 편찬)
삼설 동차 교육원 설립
불자 온라인 교학 시스템 구축, 인터넷 불교대학 설립

5. 전법 및 포교
수행과 전법교학 활동의 세계적 지원 (지원예산인 편성)
권역별 국제 교류 지원과 외국인 포교 거점 마련
계층별 포교 활성화 (각 계층별 사회시설 법과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과 보수에 대한 국가예산 확충
템플스테이 기능 및 국가 지원 강화
불교문화원형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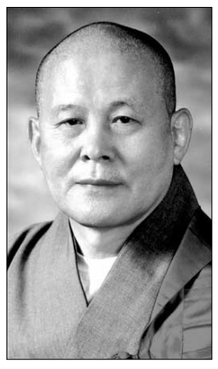
7. 승가 및 재가 종무원 복지 향상
정부 및 각종 기금 등과 연계한 '승려노후복지 사업안' 마련
사찰 일반직 종무원의 처우개선 및 각종 복지 혜택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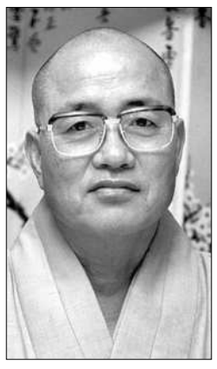
8. 對사회 활동
'자비의 나눔' 운동 전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불교사회복지센터' 설립 지원 (불교 인력풀으로서의 역할)
인권 및 생명환경분야에 대한 종단적 대책 및 지원
북한 지역 사찰과 문화재 현황 파악, 복구지원 강화

9. 국제 불교 교류 및 협력
해외 불교 담당 전문 부서 마련
'국제불교 네트워크' 구성 및 '세계불교대회' 유치

10. 불교관련 국가정책 해결 추진
현안 '불교관계법' 개정 추진
정부 및 각 정당과의 협력 체제 구축
대정부 공약과 정책 이행 추진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후보 지관스님 선거대책위원회


기호1 지관 스님


기호2 정련 스님






기호4 월서 스님(왼쪽 위)
기호5 대우 스님(오른쪽 위)
기호6 각명 스님(왼쪽 아래)

'탄탄한 경륜' 對 '참신한 이미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지관·정련 스님 양강 구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가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과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의 양강 구도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10월 21일 오전 9시 이전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추첨한 결과 기호 1번 지관, 2번 정련, 3번 법열, 4번 월서, 5번 대우 스님 순으로 정했다. 9시 이후 후보 등록한 각명 스님은 기호 6번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날 열린 제143차 회의에서 선거법 제9조 3항을 이유로 법열 스님 자격 박탈을, 서류미비로 대우 스님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중앙종회 종책모임 일승회(회장 종광)와 화엄회(회장 장주)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관 스님은 지난 9월 20일 유성에서 열린 교구본사 주지연합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위 '합의추대론' 속에서 출마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용주사 해인사 수덕사 직지사 송광사 등의 교구본사 지지를 받고 있는 지관 스님은 동국대 총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학승의 이미지와 많은 제자들이 강점이다.

지관 스님은 1947년 사미계, 53년 구족계를 수지한 뒤 해인사 주지, 동국학원 감사, 중앙종회 부의장, 동국대 정각원장·불교대학장·교육대학원장·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 및 이사,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맡고 있다.

종책모임 보림회(회장 설송) 금강회(회장 보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련 스님은 31대 총무원장 선거에도 출마설이 나왔다. 부산지역에서 어린이 포교불사와 복지 불사에 많은 노력을 해 온 정련 스님은 월정사 대흥사 은해사 쌍계사 관음사 등의 교구본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정련 스님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대사회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8년 사미계, 68년 비구계를 수지한 정련 스님은 조계종 총무부장·포교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내원정사 주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사)지구촌공생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월서 스님(호계원장)이 조류독감 예방기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월서 스님은 1956년 사미계, 59년 비구계를 수지한 뒤 72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중앙종회의장, 4·5·6·8·10·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총무부장, 불국사 주지, 종단협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호계원장과 서울 봉국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1974년 사미계, 75년 구족계를 수지한 각명 스님은 87년 경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5년 중앙승가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청계사 주지, 총무원 호법부 호법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승가대 대학원 석박사 통합학생회 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성명

한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새 총무원장은 △청정성 △도덕성 △개혁성을 갖춰야 한다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결단코 이루며, 평등하고 투명한 종단을 운영해 참된 교육과 수행, 교화가 심도 있게 실현돼 한국불교의 새 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정센터 공개질의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도 21일 발표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범죄사실증명원의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재결의한 것은 번복 사유의 정당성을 떠나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남동우·조용수·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획연재 - 조계종 총무원장 어떤 자리?

법난·분규 겪으며 '개혁' 주체로

연재순서
1. 위상과 권한
2. 어떻게 선출하나
3. 인물로 본 총무원장 上
4. 인물로 본 총무원장 下

탄성스님 격변기마다 권한대행 두차례
의현·월주 스님 '3선시도' 종단사태 불씨

80년대 이후 총무원장들…25년간 18명 자리 이어와

'도전과 응전의 시대.' 1980년~2005년은 한국불교사에서 격동의 시대였다. 한국불교는 교계 안팎에서 비롯된 법난과 분규란 충격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란 자리는 바로 그 한가운데 위치했다. 종단이 80년 10·27법난, 94년과 98년 분규를 겪는 동안, 총무원장 자리를 거쳐 간 스님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밀려나거나 민주화 흐름과 함께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불교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실망'을 함께 보여주었다. 94년 자체적인 개혁이 시작된 후 한국불교는 사회 속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했다. 최근 불교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벌어진 환경운동 등 시민운동도 이 연장선 위에 있다.

<조계종사 근현대편> 집필자인 박희승 씨는 "80년대 불교계의 주요화두는 ▲종단 민주화와 자주화 ▲대중적인 참여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 등이었고, 90년대 중반이 문제들은 구체화될 계기를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총무원장은 이런 흐름을 끌어안고 종단 민주화와 자주화, 승가교육체계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하길 요구받았다. 박씨는 "90년 후반 불교의 사회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총무원장은 종단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라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뿌리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1980년 초 한국불교는 모처럼 맞은 화해 무드를 만끽했다. 3년 동안 지속된 개운사측과 조계사측의 분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제17대 총무원장(재임 80.04.26~80.11.08)에 선출된 월주 스님은 군사정권에 의한 10·27법난으로 중도하차했다. 이후 권한대행 탄성(80.11.08~81.01.16), 18대 성수(81.01.16~81.06.10), 19대 덕진(81.06.10~82.01.07), 20대 법전(82.01.07~82.04.06), 21대 진경(82.04.06~83.09.03), 22대 서운(83.09.08~84.01.23), 23대 석주(84.01.23~84.08.01), 24대 녹원(84.08.01~86.08.25), 25대 의현(86.08.25~90.08.26), 26대 의현(90.08.26~94.04.18), 27대 탄성(94.04.18~94.11.25), 28대 월주(94.11.25~98.11.20), 권한대행 도법(98.11.20~98.12.29), 고산(98.12.29~99.10.18), 권한대행 원택(99.10.18~99.11.23), 3대 정대(99.11.23~03.01.15), 권한대행 선용(03.01.15~03.02.24), 31대 법장(03.02.24~05.09.11), 권한대행 현고(05.09.11~) 스님 등 18명 스님들이 1980년 4월부터 25년간 총무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총무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을 조금 넘기고 있다. 재임에 성공했던 의현 스님을 제외하면 녹원·정대·법장 스님 등도 4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10·27법난과 94년 종단개혁·98년 종단사태 앞뒤로 임기 1년 미만의 '단명 총무원장'의 체제가 7번이나 지속됐다.

탄성 스님은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맡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개월과 7개월 간 종무행정을 책임졌지만 조계종의 변화와 개혁에 많은 공헌을 했다. 80년 10·27법난 직후 수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총무원장 중심제 등 종헌종법 개정을 매듭지었으며 94년 종단개혁 직후에는 현행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3원 체제, 교구자치제, 총무원장 선거인단제도 등 제도개혁을 이끌어냈다.

탄성 스님은 소임이 끝나면 수행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짧은 재임기간에 비해 오랫동안 불자들의 기억 속에 남는 총무원장이 되고 있다.

횡성 죽림산사 회주 선혜 스님은 "탄성 스님은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총무원장을 맡아 공심으로 종무를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선혜 스님은 또 "고산 스님은 계율에 밝고 살림을 잘해 종단 안팎의 기대를 받았지만 뜻을 펴보지 못한 채 낙마했다"고 아쉬워했다.

의현 스님과 월주 스님을 80·90년대 총무원장 지위를 둘러싸고 직·간접적인 악연(?)을 맺고 있다. 월주 스님이 군사정권에 의해 자리를 빼앗겼다면 의현 스님은 군사정권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상 첫 총무원장 재임에 성공했다.

두 스님은 또 '3선 시도'로 종단사태를 촉발시켰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의현 스님의 3선 시도는 94년 종단개혁의 촉매가 됐고 월주 스님의 3선 시도는 98년 종단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의현 스님은 불교방송 출범과 중앙승가대 4년제 정규대 승격에 기여했으나 94년때 멸빈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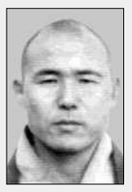
그 뒤를 이어 월주 스님이 곧바로 총무원장에 선출됐다. 월주 스님은 종단 민주화와 불교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깨달음의 사회화'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불교의 사회적 위상 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대 스님은 98년 사태 이후 뒤숭숭한 종단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님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종단 안정화에 기여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이 두드러진 성과다.

최근 열반한 법장 스님은 불교복지 활성화와 한국불교 세계화에 원력을 세우고 대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펼쳐 불교위상을 크게 높였다.

강유신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17·28대 월주 스님


권한대행 탄성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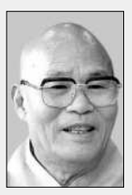

18대 성수 스님


19대 초우 스님


20대 법전 스님


21대 진경 스님


22대 서운 스님


24대 녹원 스님


25·26대 의현 스님


29대 고산 스님


30대 정대 스님


31대 법장 스님

일본 동북 사찰순례 4일
참가비 : 699,000원
출발일 : 11/7,14,21,28 (매주 월요일)
12/5,12,19,26 (매주 월요일)
• 여 정 : 인천-아키다-히라이즈미-하나마키(2)-모리오카-다자와(1)-아키다-인천
• 항 공 :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 특 징 : 흑석사,중존사,모월사,금색대관음,뉴토온천, 이와테성 유적지
※ 온천호텔 4인1실 기준 (2인1실 6만원 추가)

일본 북해도 불교 문화탐방 4일
참가비 : 699,000원
출발일 : 11/2,6,9,13,16,20,23,27,30 (수,일)
12/4,7,11,14,18,21 (수,일)
• 여 정 : 인천-치토세-노보리베츠(1)-무로란-토야(1)-오타루-삿포로-죠잔케(1)-삿포로-인천
• 항 공 :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 특 징 : 아이누민속촌,지옥계곡,쇼와신산,곰목장,분화구,토야호수유람선, 후키다시약숫물,무로란 만케지사찰,삿포로 동본원사 사찰
※ 온천호텔 4인1실 기준 (2인1실 6만원 추가)

중국 성도/낙산/아미산 성지순례 6일
(중국 4대 불교성지 문현보살의 도량 아미산)
참가비 : 899,000원
출발일 : 11/10,17,24(매주 목요일)
• 여 정 : 인천-성도(1)-낙산-아미산(2)-성도(2)-인천
• 항 공 :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 특 징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아미산에서 금정-케이블카 왕복, 만년사-케이블카 편도 포함보국사, 복호사 관광 포함

중국 성도/낙산, 티벳 성지순례 6일
(신비의 땅 티벳을 순례하는 희귀 체험)
참가비 : 1,599,000원
출발일 : 11/8,15,22,29(매주 화요일)
• 여 정 : 인천-성도(1)-라싸(1)-시가체(1)-장체(1)-라싸(2)-낙산-성도(1)-인천
• 항 공 :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 특 징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라싸(노부린카,색랍사, 철봉사,포촬라궁,대소사, 팔각가 순례.) 시가체(자스룬부스 순례), 장체(백거사,얌또흐 순례)

중국 상해/소주/항주 불교 성지순례 4일
참가비 : 549,000원
출발일 : 10/31, 11/7,14,21,28 (매주 월요일)
• 여 정 : 인천-상해(1)-소주(1)-항주(1)-상해-인천
• 항 공 :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 특 징 : 옥불사,홍구공원,정산사,용화사,서커스관람, 영은사,한산사,졸정원,발맛사지 체험, 서호유람,동방명주탑

중국 북경 불교 성지순례 4일
참가비 : 549,000원
출발일 : 10/31, 11/3,7,10,14,17,21,24,28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여 정 : 인천-북경(3)-인천
• 항 공 :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 특 징 : 자금성, 써커스 관람, 만리장성(케이블카), 용경협(유람선),천단공원,이화원,유리창·영광사, 불아사리탑(부처님 치아 사리),벽운사, 오백나한당

인도 불교 성지순례 9일
참가비 : 1,990,000원
출발일 : 11/3,10,17,24 (매주 목요일)
12/1,8,15,22,29 1/5,12
• 여 정 :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쿠쉬나가르(1)-파르나(1)-라즈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1)-샤르나트-바라나시(1)-아그라-델리
• 항 공 :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 특 징 : 특급호텔, 호텔식(음식걱정 OK) 기원정사,사위성지, 석가탄신지,아쇼카왕석주,열반당,마하보디사원, 죽림정사,다멕스투파 등

인도 불교 성지순례 11일
참가비 : 2,190,000원
출발일 : 11/6,13,20,27 (매주 일요일)
12/4,11,18,25 1/1,8
• 여 정 : 델리(1)-파르나(1)-나란다-라지기르(1)-부다가야(2)-샤르나트-바라나시(1)-쿠쉬나가르(1)-룸비니(1)-쉬라바스티(1)-럭나우-델리(1)
• 항 공 :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OK)
• 특 징 : 특급호텔, 호텔식(음식걱정 OK) 기원정사,사위성지, 석가탄신지,아쇼카왕석주,열반당,마하보디사원,죽림정사, 다멕스투파,나란다대학유적지,영취산 참배, 나란지강 등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 여행자보험, 유류할증료,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포함. 여권, 중국,인도비자 인지대, 각종 팁 불포함
• 이용항공 : 대한항공(일본), 아시아나항공(중국,인도). 보너스 마일리지 100% 적립가능 • 이용호텔 : 중국/2인1실 1급호텔, 일본/4인1실 온천호텔, 인도/2인1실 특급 및 1급호텔

해외여행 안내원 모집 :
외국어 능통자 우대(영어,일어,중국어)

◆ 문의 및 신청 : 02)2076-9511~2 眞如聖地巡禮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4번지 고려빌딩 715호(우 110-796)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8번 출구 200미터

조계종 포교사 위상 높인다

팀별 포교활동통해 능력 검증 후 품수
올 고시 내년 2월19일…전문가 등용키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계종 소속 포교사는 총 4278명. 사회적으로 포교활동을 하는 포교사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종단이 본격적인 화두풀기에 나선다. 포교사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유도하면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포교원은 현행 포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활동정비를 위한 '포교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운용의 목적 불분명에 따른 포교사 정체성 미확립과 포교사 개인적 역량의 한계, 10년간 시행돼 온 현행 고시제도의 시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포교사고시 매년 2월로 변경

포교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폭넓은 포교활동을 지원할 포교사 등용의 틀 자체를 바꿀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포교사고시를 통해 배출돼 온 포교사는 총 3263명이다. 그러나 그간 포교사고시는 불교대학 졸업자의 의례적 통과절차로 인식되거나 포교사고시 합격률이 불교대학 선택의 기준으로 오용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또 필기시험 위주의 자격고시를 통해서는 지원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교원과 포교사단 측은 매년 11월 넷째 주 일요일에 시행되던 포교사고시의 시점을 불교대학 졸업 이후인 익년 2월 셋째 주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포교사가 되겠다는 열의를 가진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포교사고시는 내년인 2006년 2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포교사고시의 불교입문, 불교방법론, 종헌종법 이해 등의 현행 6개 교과목을 유지하는 한편 1차 평가를 현행 지역특성을 고려한 상대평가에서 특정과목의 과락을 포함한 응시자 전체 평균의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포교능력 검증 제도 마련

필기 합격 이후 2박 3일 연수만 거치면 바로 품수가 가능했던 현행 배출방식 또한 바뀐다.

앞으로 포교사고시에 합격한 예비 포교사는 신행평가를 포함한 1박 2일 연수 후 6개월간 팀별 포교활동 경과를 토대로 2차 합격이 확정돼야 품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선발 자체를 활동영역별로 구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원자의 동기를 분명히 하고 포교 의지와 해당분야에서의 활동능력까지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포교원 측은 내다보고 있다. 또 연수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팀 소속감을 이끌어 내 해당사찰 및 포교사단과의 연계성도 증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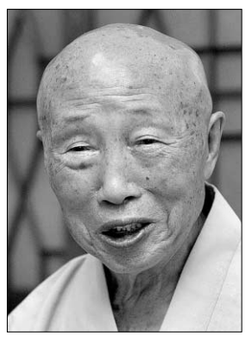
전문포교사 등용 제도화

포교원은 또 일반 포교사 활동을 10년 이상 해온 포교사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포교사들을 전문포교사로 등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포교원 황충기 포교계장은 "전문화 시대에 걸맞도록 포교분야의 전문성도 확보되어야 한다"며 "포교사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포교사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를 전문포교사 제도 내로 흡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내가 청정해야 사회·국가도 청정

인터뷰 조계종 전계대화상 추대 성수 스님



"부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삶입니다. 출가대중이나 재가대중이 스스로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율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지혜와 자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청주 보살사에서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전계대화상으로 추대된 성수 스님(황대선원 조실)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하루도 끊이지 않는 각종 사건 사고와 전쟁, 부조리들의 원인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악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모름지기 안으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공업의 과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즘 계율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는 스님은 "출가 대중들이 초발심을 잃지 말고 청정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고 재가불자들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행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청정하고 공평해야 종단과 사회, 국가가 청정하고 평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계대회상은 종단이 계단을 열어 자격을 갖춘 출가자에게 계를 수여할 때 그 수계의 청정함과 계단의 권위와 적법성 등을 증명하는 최고의 지위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계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 성수 스님은 "수행과 계율은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며 "말로써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성수 스님은 1923년 경남 울주에서 출생해 1044년 부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48년에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으며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등의 주지를 역임했다. 황대선원 해동선원 법수선원 등 도량을 열어 출·재가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통영시 고발 검토
토지사용 불허 불구 공사

조계종이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 통영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조계종 사회부는 10월 10일 용화사를 통해 종단 토지 일부가 케이블카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사를 중지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통영시에 요청했다. 8월 24일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통보했음에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조계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영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영시 김호관 문화진흥과장은 "용화사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현등사 사리구 소유 문제
유홍준 청장에 해결 촉구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의 연이은 실언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에 대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현등사 사리구 문제만은 제대로 해결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10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금불아미타여래좌상 건을 지적하며 "우리는 국가의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앞장서야 할 최고 책임자가 아닌 삼성문화재단의 책임자 유홍준을 연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신도회는 또 "문화재청장은 지난 시기 도굴과 장물거래 등으로 훼손되고 망실된 우리 문화유산을 바로 세워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본분사를 다하여야 한다"며 "도굴 당한 '현등사 사리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상 회복를 통하여 세간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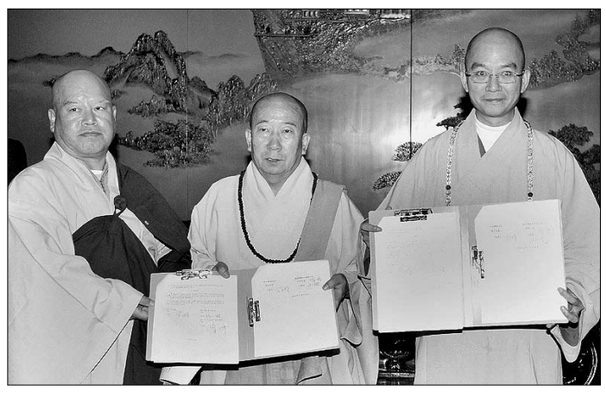
유철주 기자

불교구연동화대회 연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는 불교동화의 발전, 전파에 앞장서고 동화구연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1회 불교구연동화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불교동화를 직접 구연한 5분 내외의 녹음테이프를 11월 6일까지 원고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은비 기자



베이징 광제사에서 열린 불지사리이운 조인을 마치고 조인서를 보여주는 한중 양국의 대표들. 왼쪽부터 한국의 장주, 홍파 스님과 중국의 쉐청 스님.

中 법문사 불지사리 한국 전시 조인식

11월11일~12월20일 서울·부산서 친견행사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및 기타 유물(지하궁 출토)의 한국 전시를 위한 조인식이 10월 17일 중국 베이징 광제사에서 열렸다. 공식협의서에는 한국측에서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 불지사리 이운 봉행위원회(이하 봉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장주 스님이, 중국측에서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쉐청(學誠) 스님 등 3개 단체 대표가 서명하였다.

한편 봉행위원회는 11월 10일 중국 법문사에서 이운 법요식을 개최하고 한국으로 이운한 뒤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계사, 잠실 체조경기장, 부산 백스코등에서 불지사리 친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봉행위원회는 10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만성취기원법회를 거행했다.

베이징=박재완 기자

불교계, 파키스탄 구호 팔 걷었다

불교계의 파키스탄 지진 구호가 속도를 붙이고 있다.

조계종은 10월 21일 15명의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파키스탄 현지로 파견했다.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10월 29일까지 약 2000명의 현지 환자를 진료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자비나눔기금 전화 ARS 060-700-0482)

천태종(총무원장 운덕)도 10월 31일까지 파키스탄 지진피해 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11월 15일 관문사에서 열리는 '파키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파키스탄 대사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원우·유철주·김강진 기자

대불청, 동안거 청년 신행결사

11월13일~내년 2월19일까지

불자청년들이 불교의 전통적인 안거결제의 정신을 이어받아 재가운동으로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는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동안거 청년신행결사에 나선다.

정진기간 동안 대불청 회원들은 해당 원찰에서 매일 108배와 참회정진, 청규, 청년불자공동서원발원문, 대불청 헌장전문과 강령을 수지 봉독하는 한편 육바라밀 실천주간에 맞춰 신행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결사기간 동안 대불청 홈페이지(www.kyba.org) 내에 수행일지 코너가 마련돼 법우들의 수행일기와 법담, 관련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동안거 시작 한 주 전인 11월 6일 광역별 지정 도량에 모여 공동입제로 시작되는 청년신행결사는 내년 2월 19일에는 전체대중이 3000배 용맹정진을 한 뒤 수계법회를 봉행하며 회향한다.

김익석 회장은 "전국의 불교청년들이 동일한 발원, 청규의 수행을 통해 신행적 단결을 이루기 위해 이번 결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02)738-1920

이은비 기자



북관대첩비, 100년만에 고국 품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무찔렀던 정문부 장군과 의병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던 북관대첩비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뜰에서는 북관대첩비가 고국에 무사히 돌아왔음을 알리는 고유제가 열렸다. 북관대첩비는 10월 28일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11월 17일에는 반환을 기념하는 민족축제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고유제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왼쪽 첫번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가운데), 한일불교복지협회 회장 초산 스님(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북관대첩비를 살펴보고 있다. 유철주 기자

世界佛教 海東 元曉宗

티벳 텐진 린포체스님 초청

봉행 灌頂摩頂受記 및 菩薩戒

귀의삼보하옵고
종단 대덕 큰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티벳스님을 초청하여 관정마정수기 및 대승보살계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다겁생래의 죄업소멸과 미래 성불의 인연을 심는 대각보리의 행원과 복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일 시 : 2005년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총본산 보광사
◆ 동참비 : 삼만원
◆ 접 수 : 봉행법회 3일전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봉행위원장 종 정 벽운 해광
총무원장 법공 정산

入宗 公告 안내

종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해동 원효종 총무원장 법공정산 입니다.
현대는 여러 다른 종교, 사상, 경제 및 정치체계의 과격한 대결을 초래하는 대립과 갈등의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상생조화 평화운동을 갈망하고 모든 종파 종교 신앙과 사상적 차이를 초월하여 원효성사의 화쟁론은 그 위대한 사상이 될 것입니다.

현대 한국 불교사의 특성은 다양한 종파 분립 형태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민주화되어 다양한 종교와 종파를 인정하고 있다. 다양한 종교현실과 불교적 실태에 적응하여 一心의 本覺으로 함께 뜻을 모아 진정한 和解, 無諍, 平和, 平等和合의 근본사상을 기초한 원효성사의 和諍思想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불교 해동 원효종을 창종하였습니다.

■ 창종일 : 2004년 8월 1일

입 종 서 류
1. 사진 5매(3/4)
2. 신상명세서
3. 주민등록등본
4. 도첩사본
5. 사찰 등록신청서
6. 입종비 : 이십만원

입종시 발급서류
1. 사찰등록증
2. 주지임명장
3. 신분증 (승려증)

세계불교 해동 원효종 총무원 보광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93-1 (300-500)
• 종무실 : 전화 042)283-5896 팩스 042)285-0108 / 담당 : 동화스님 (보광사 주지, 종단 기획실장 011-769-030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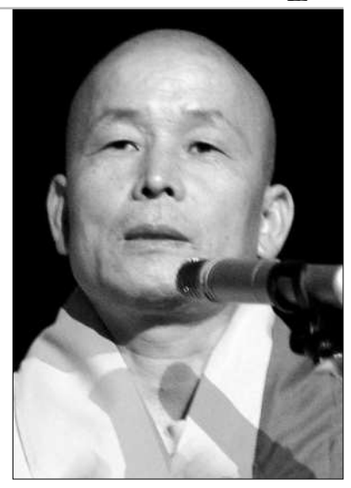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3강 : 꽃을 드니 미소 짓다-두타제일 가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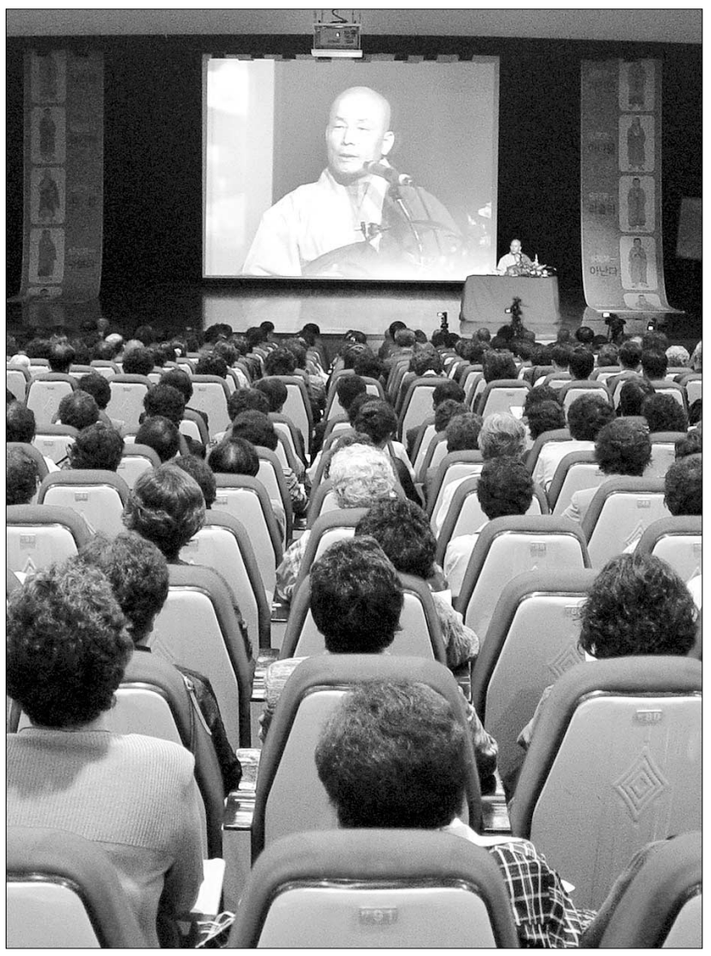
강사 : 현봉 스님(前 송광사 주지)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현대불교

일시 : 2005.10.19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욕심 적게 내고 만족할 줄 알면 '참 사람'



입추의 여지없이 강당을 메운 8백여명의 불자들이 가섭 존자의 수행정신을 현재의 삶에서 실천하라는 현봉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다.

오늘 말씀드릴 부처님의 제자는 강의에 앞서 예불하며 외우셨던 제대조사(諸大祖師) 가운데 제 1조이시고, 영산회상에서 부처님 법을 부촉받으신 마하 가섭 존자입니다.

가섭 존자는 부처님이 오래 머무셨던 왕사성에서 얼마 되지 않은 마하딧타라는 바라문 마을에서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 비아리 성에 있는 가비리라는 바라문의 딸과 결혼해 여느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늘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허망한 것'을 느껴 수행자가 되고자 했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출가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함께 출가하며 '먼저 스승을 찾는 이가 이끌어 주기'로 했습니다.

가섭 존자 부부가 출가한 날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가섭 존자는 큰 스승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죽림정사에 계시던 부처님도 가섭 존자가 올 줄 알고 지금의 나란다 대학이 있는 곳까지 직접 가셔서 기다리십니다. 가섭 존자는 부처님을 뵙고 첫눈에 그분이 큰 스승이신 것을 알고 가르침을 받아 8일만에 도를 깨닫습니다.

집착과 욕망을 떨쳐 버리고

가섭 존자는 왕사성으로 오던 길에 부처님이 피곤해서 쉬시려 하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섭 존자의 옷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옷을 보며 누더기를 걸쳐야 하는 수행자로서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가섭 존자는 원을 세웁니다.

"나는 늘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겠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절제하면서 두타행을 행하겠노라"

이때부터 가섭 존자는 평생 두타행을 행했기 때문에 부처님 열 분의 제자 가운데 '두타 제일'이라고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두타(頭陀)는 범어(梵語) dhuta의 음역으로 욕심을 적게 내고 만족할 줄 아는 삶, 모든 집착 욕망 번뇌를 떨쳐버리고 스스로 고행하면서 도를 닦는 행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고행을 위한 고행이 아니라 수행의 한 방편으로, 보통 12가지 두타행을 말합니다.

1. 세속과 떨어진 고요한 곳에 머문다 2. 항상 빌어먹는다 3. 빈부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 일곱 집만 걸식한다 4. 하루 한 번만 먹는다 5. 배고픔을 면할 정도만 먹는다 6. 오후에는 영양가 있는 것을 마시지 않는다 7. 옷은 분소의(糞掃衣)를 걸친다 8. 삼의(상의 하의 중의)외에는 옷을 갖지 않는다 9. 무상관(無常觀)을 닦기 위해 무덤가에서 산다 10. 나무 아래에서만 쉰다 11. 맨 땅 위에 앉는다 12. 앉기만 하고 드러눕지 않는다.

부귀영화 버리고 출가해 누더기 걸치고 수행

위기에 놓인 환경문제, '절제' 않고 해결 못해

두타행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환경이 비켜주는 그 자리에 겸손히 자리하는 것이 바로 두타행입니다.

가섭 존자는 이러한 두타행을 돌아가실 때까지 행하셨습니다.

하루는 늙은 가섭 존자가 무거운 분소의를 입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부처님이 안타깝게 여기며 두타 수행을 말리셨습니다.

그러자 가섭 존자는 "두타를 행하면서 만족함을 알고 홀로 조용히 도를 즐기는 것이 좋으며, 후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를 닦는 즐거움을 알리고 싶습니다"고 하십니다. 결국 부처님도 "마하 가섭이여! 그대는 후세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인해 큰 안락과 이익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가섭 존자는 부처님으로 세 번에 거쳐 법을 받아 의발(衣鉢)을 물려받습니다.

바로 삼처전심(三處傳心)으로, 하나는 '다자탑전 반분좌(多子塔前 半分座)'입니다. 부처님이 다자탑 앞에서 설법하고 계실 때, 남루한 차림으로 가섭 존자가 그 자리에 늦게 도착하자 여러 제자들이 멸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자리를 반쯤 내어 주어 같이 앉게 하고 "나와 같은 선정에 머무르고 있으며, 나와 같이 번뇌가 다했으며, 나와 같이 지혜를 갖추었으며, 나와 같은 광대하고 훌륭한 공덕을 갖추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쌍수하 곽시쌍부(沙羅雙樹下 槨示雙趺)'로, 부처님께서 사라쌍수 밑에서 열반에 든 뒤, 늦게 도착한 가섭 존자가 부처님 관을 세 바퀴 돌고 합장하자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밀어 보인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염화미소(拈花微笑)'입니다. 어느날,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다가 아무 말씀 하지 않고 꽃을 한 송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대중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일대사 크나큰 인연 법문을 하실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아무 말씀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뜻을 모르고 있는데 한쪽에서 누더기 옷을 걸친 가섭 존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마하 가섭에게 부촉한다"고 하셨습니다.

염화미소에 대해 후대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육왕 심(育王 諶) 선사의 평을 소개합니다.

상효장공안이래(霜曉長空雁已來)하고
천림황엽위매태(千林黃葉委苺苔)이로다
동리적막일지국(東籬寂寞一枝菊)이여
불입왕손취후배(不入王孫醉後盃)로다

서리 내리는 새벽 하늘가에 기러기는 날아오고 / 온갖 숲의 낙엽들은 이끼 위에 쌓여간다 / 적막한 동쪽 울 밑의 한 떨기 국화꽃은 / 왕손들의 취한 술잔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제왕들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 하지만 이렇게 물질을 허비하면서 사는 삶 속에는 절대로 한 떨기 국화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누가?"

천하의 모든 왕들과 장자들로부터 귀의받고 공양 받아도 충분한 그 분이 어째서 두타행을 했을까요?

요즘 우리에게는 공해, 환경문제가 큽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만큼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벌 떼같이 반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모두 제왕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앞으로 히말라야 산에도 눈을 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나오는 가스, 부처님 전에 공양하러 가면서 내뿜는 배기가스 등등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섭 존자는 이처럼 위기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두타 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가섭 존자가 상수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가섭존자가 벽을 바르기 위해 진흙을 밟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미가 지나가다가 "교단의 제일 어른이신 존자께서 어찌 직접 일을 하십니까?"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가섭존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하겠느냐"하셨습니다.

가섭 존자가 후대에 들려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리불과 목건련 존자는 부처님보다 일찍 돌아가셨기에 나이가 많고 부처님으로부터 세 번이나 법을 전해 받은 가섭 존자가 승단을 이끌었습니다. 가섭 존자는 부처님 열반 후에 부처님 가르침을 모아 결집을 했습니다

가섭 존자는 일대사를 마치고 부처님 법을 아난존자에게 전해줍니다. 그 법이 달마 조사로 해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2500년이란 긴 시간에도 부처님 법이 멸하지 않고 전해 오는 것은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기도 하지만 경전을 결집하고 후대 중생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가섭 존자의 두타행이라 하겠습니다.

가섭 존자같이 삶에 만족할 줄 알고 모든 바깥 경계에 대해 욕심을 적게 부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문 : 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삼처전심을 통해서 선맥을 이었습니다. 참선에서 화두는 무엇이고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화두를 참구해야 합니까?

답 : 화두(話頭)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어느날 남편이 집에 오면서 꽃을 한 송이 건네줍니다. 아내는 "이 사람이 왜 이래,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 웬 꽃이야"하면서 의구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맞아,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네"하고 알아차립니다. 이처럼 진리의 요체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의구심을 내어 찾으면 알게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은 그대로가 다 화두입니다. 조사 스님들은 그것을 압축해서 말해 놓았는데 그것도 화두입니다.

어떻게 화두를 참구해야 하느냐하면, 오늘 강의 주제가 사리불 존자이면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목련 존자 같으면 '효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섭 존자의 두타행인 '소욕지족으로 번뇌망상을 줄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서 흥청망청 하는 사람이 참선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이 설해 놓은 진실된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참선하는 자세입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지관 큰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추대를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해인승가대학 동문들의 큰 선배이자 스승이신 가산당 지관 큰스님께서 애종심과 크나큰 원력을 바탕으로
제 32대 조계종총무원장 후보로 나서게 된 점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이에 우리 해인승가대학동문들은 큰스님께서 교단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고를 하여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큰스님께서는 종단의 원로급 위상을 가지고 계신 어른입니다. 자비와 섭수로서 우리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는 종도들의 간곡한 염원이기도 합니다.
2. 큰스님께서는 해인사 등 대중처소에서 수많은 후학들을 교육하셨고, 동국대 교수와 총장직을 역임하고, 불교 연구및 사전 편찬 등 많은 학문적 업적과 불교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며, 중앙종회의원, 본사주지 등 숱한 종단 소임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러한 수행력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종단을 더욱 수준 높고 품격있는 종단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3. 신심있고 수행력이 뛰어난 불자, 그리고 원력이 큰 불자들이 적재적소에서 전법교화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행가풍 진작과 승가교육의 내실을 더욱 기울여 주셔서 우리 승가가 인천의 사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9(2005)년 10월 21일

해인승가대학총동문회 대중일동

“여기 동자 쿠폰인데요, 염주 주머니 주세요”

화성 신흥사, 신도들 위한 ‘성불장터’ 열어

50여종 불교상품 마련
장학금 · 지원금도 전달

“항상 깨끗한 정장차림에 당당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고교 2년생인 김진솔(18) 양은 끝내 편지를 읽지 못했다. 아버지를 향한 편지는 이내 눈물로 얼룩졌다. 법당에 모인 500여 신도들과 청년회, 학생회원들이 진솔이를 격려하기 위해 박수와 함께 합성을 질렀다.

증권회사에 다니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진솔이는 편지를 제대로 읽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아버지에게 전했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밝다.

10월 16일 정오 경기도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신흥사의 ‘성불장터’는 자식과 부모가 마음을 나누는 편지 읽기로 시작됐다.

성불장터가 열리기 전에 열린 식전 법회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사찰 측에서는 편지쓰기 외에 학생회 회원들과 지도간사에게 장학금을, 학생회를 잘 뒷바라지한 학부모와 자모교사들에게 지원금을 주며 격려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성불장터. 법당 옆에 마련된 성불장터에는 사찰 측에서 마련한 50여 종류의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에서부터, 주부들을 위한 주방용품, 칫솔과 비누 같은 생필품, 단주와 차걸이 같은 불교용품 등.

성불장터 개장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학생 풍물패의 공연과 어린이회의 율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불장터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저마다 동자승이 그려진 쿠폰을 몇 장씩 내놓고 물건과 바꾸느라 정신이 없다. 이 쿠폰은 법회 참석 때마다 한장씩 받은 것이다.

손은향 보살(38 · 부천 원미구)은 딸에게 주겠다며 염주주머니를 골랐다. 법회에 몇 차례 빠졌다는 손 보살은 “다음부터는 법회에 빠지지 말아야겠네요. 더 많이 사려면요”하면서 웃는다.

성불장터가 열리는 동안 주변에 쳐진 천막에서는 먹거리가 잔치가 계속됐고 가족 단위로 자리를 틀고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신도들이 많다. 신도회장인 전재근(65 · 前 서울대 교수)씨도 아내와 아들 내외, 딸 내외, 손자들까지 모두 9명의 가족들이 성불장터에 왔다. 가족들 모두가 신흥사 신도다. 신흥사에는 이렇게 가족단위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들이 상당히 많다.

신흥사에는 이렇게 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신도들에게 절에 오는 재미를 붙여주고, 또 그 속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그래서 우란분절에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신도들에게 특별선물을 드리고, 칠석법회 때는 ‘좋은 부부인연상’을 선정해 시상을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그 이유를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매력 있는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절에 오면 무엇인가 얻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것은 물론이고, 흥미를 느끼며 보람을 얻을 수 있어야만 열의가 생깁니다. 절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화성 신흥사=한명우 기자



신흥사 성불장터에 참가한 신도들이 쿠폰으로 물건을 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화 통한 상호이해 · 존중”

한국 종교간 대화학회 27일 창립, 공동대표 대성 스님

문화 · 학문 등 교류 예정

종교간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와 존중, 공동발전을 기원하는 ‘한국종교간 대화학회(이하 종교간 대화)’가 10월 27일 전남대 국제회의동(용봉홀)에서 창립된다.

종교학자와 종교인, 일반시민 등 9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종교간 대화는 대성 스님(부산 범어사 주지), 황승룡 목사(전 호남신학대 총장), 박일영 교수(가톨릭대), 김영태 교수(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장)가 공동대표를 맡아 종교간의 문화예술과 학문적 연구 및 교류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종교간 대화는 이날 창립총회와 함께 ‘종교간 대화의 이념과 방향’이란 주제의 기념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기조발표는 서강대 교수 서명원 신부(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가 하며 동국대 윤영해 교수(불교와 기독교의 대화), 강남대 이찬수 교수(종교간 비교와 종교간 대화)가 주제발표를 한다.(062)530-3910

이준엽 기자

생명 · 나눔의 축제 열린다

강화 전등사 28일부터 ‘삼랑성 문화축제’ 개최

황우석 박사 초청 강연

강화 전등사(주지 장윤)는 10월 28일부터 3일간 ‘생명의 빛, 나눔의 기쁨’을 주제로 한 2005삼랑성 문화축제를 연다.

10월 28일 재불화가 방혜자씨의 그림전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10월 29일 ‘내안의 빛-소리여행’으로 계속된다. 특히 ‘내안의 빛-소리여행’에서는 전등사 신도로 널리 알려진 서울대 석좌교수 황우석 박사가 ‘나의 생명 평화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해금 연주자 정수년, 오카리나 연주자 한태주, 남인도 전통 음악 ‘카르나타카’를 들려줄 상기따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마지막날에는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나눔의 장’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황우석 박사, 박원순 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 전등사 스님들이 내놓은 기증품과 전등사 신도회가 직접 담근 강화 순무 김치와 소금 등이 판매된다. (032)937-0125

유철주 기자

잔반 ‘벌금’ 인도 어린이돕기에

여주 돌격부대 빈그릇운동

정토회 에코붓다(대표 유정길)가 펼치고 있는 빈그릇운동이 해외 지원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10월 1일부터 빈그릇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 돌격부대(부대장 김지환) 장병들은 잔반을 남길 때마다 끼니당 150원의 ‘벌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 돈은 10월 한달간 모아져 인도 어린이 건강지원기금으로 전달된다.

돌격부대는 빈그릇운동 외에도 부대원들의 자발적인 금연운동과 장기기증운동으로 ‘환경’과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돌격부대장 김지환 대령은 “그동안 자율 배식을 통해 잔반을 줄여왔지만, 빈그릇운동이 환경과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굶주리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평화기원 등 대청호반 수놓아

옥천사암련, 유등축제 막 내려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희망의 빛을 담은 등이 장계국민관광단지 대청호반을 수놓았다.

옥천지역 사암과 불교단체들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 ‘세계평화 희망의 빛 등(燈) 축제’가 유등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축제기간동안 선보인 등은 대형등 100여점, 중형등 200여점, 소형등 3000여점 등. 육영수여사등, 만사형통등, 부귀문등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등도 첫 선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전통등과 불자들의 보시금으로 마련한 소망등 1만개도 대청호를 수놓아 이목을 끌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해남 미황사 수륙천도재 봉행
괘불재, 산사음악회 펼쳐



해남 땅끝에 자리한 아름다운 절 미황사(주지 금강)가 지난 10월 15일 괘불을 펼치고 야단법석을 열었다(사진).

올해로 4회째 맞는 괘불재에는 지역주민, 관광객, 신도 등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일지암주 여연 스님의 고불문,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의 법어, 만법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만법 공양에는 참가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재미있게 읽은 책, 콩, 호박, 향기나는 찹쌀, 태중 아기사진, 헌혈증 등 만물을 공양올리고 수륙 천도재를 봉행했다.

괘불재에 이어 6회째 맞는 산사음악회에는 박남준 시인의 시낭송과 판소리, 진도아리랑, 찬불가 등이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광주 원각사, 가을음악회

국악과 양악의 만남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사찰에서 이뤄졌다.

송광사 광주 포교당 원각사(주지 도제)는 지난 10월 14~15일 대웅전 앞 뜰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다.

광주 충장로 축제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14일 ‘퓨전음악과 추억의 올드팝, 그리고 재즈가 함께하는 7080 라이브 콘서트’를 시작으로 15일 ‘국악과 양악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류상호, 주권기씨 등 통기타 가수와 원각 국악단 등 지역에서 활동중인 음악인이 대거 출연했다.

음악회가 열리는 동안 무대밖에서는 도원 이창호(선.다화 연구소장)씨가 시민들과 함께 ‘달마도’를 그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음악회에 앞서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회색 시멘트 건물 사이에 자리한 원각사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양식의 사찰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찰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걷기명상 · 108배 등 체험



지리산생명평화결사가 10월 15~16일 대구 북구 신천변 체육공원과 관오사(주지 지도)에서 2005생명평화대회를 개최했다(사진).

15일 오후 2시부터 신천변 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생명평화대회는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걷기 명상을 시작으로 참회와 성찰의 108배, 생명과 평화의 발원을 담은 현수막을 연과 함께 날리는 순서로 진행됐고, 공연, 발언, 고백 시낭송 등으로 이어지는 생명평화 난장이 열렸다.

체육공원 주변에는 광주탁발순례 환영 시화전, 솟대 나무목걸이 전시, 여순사건 시와 그림전 등의 전시 문화마당과 생명평화 판화체험, 흙공예, 나무공예 등 다양한 체험마당이 펼쳐졌다. 밤 10시부터는 남구 관오사에 준비된 스승, 선배와의 대화방, 묵상방, 고백의 방, 성찰의방, 시인과의 대화방, 교사들의 방에서 대화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16일은 생명평화결사운동을 위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백회의와 관오사에서 두류공원 솟대광장까지 이어지는 걷기명상의 시간이 이어졌다.

배지선 기자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성황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10월 20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1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장애인들의 문화 축제인 ‘제4회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를 개최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경북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문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고 자립과 재활의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9월 16일부터 모집한 문예, 그림, 서예, 공예 등 4개 부문 200여 작품 중 우수 입상작이 전시됐고, 지역별 장애인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배지선 기자

〈 종 무 기 조 〉

01 • 화합을 근간으로 종무행정에 임하는 성실한 총무원을 만들겠습니다.
02 • 수행과 전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03 • 말사주지 인사권 교구이양 등 교구지처제를 실현하겠습니다.
04 • 투명하고 모범적인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5 • 작은 총무원을 지향하겠습니다.
06 • 인재불사와 성산불교만이 종단발전의 길입니다.
07 • 미래지향적, 세계속의 한국불교를 건설하겠습니다.

수행 경력
1956. 3. 15 • 선암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6. 4. 15 •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73. 11. 5 •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정사 주지
1985. 3. 1 • 내원정사유치원 원장
1996. 12 • 몸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998. 3 • 사회복지법인 내원 대표이사
1998. 7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이사장
1998. 10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1999. 2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2000. 6 •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2000. 8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2001. 1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

학력
1973. 2. 25 • 동아대학교 철학과 졸업
2001. 2. 25 •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 석사

수상 경력
1986 • 문교부장관상 수상(우수 유치원 선정)
1992 • 교육부장관 표창
1997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종정상)수상
2002 • 국무총리 표창 수상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후보 정련스님

한국불교 중흥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 정 련 스 님 •

기호 2 번





"계율 법문을 듣고나서 계를 받으니 수계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10월 9일 동화사 보살계 수계불자)

"우리 향천선원에서는 10월말부터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 등의 선지식을 모시고 계율공부를 시작합니다.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가 계율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리공부와 더불어 지계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려고 합니다." (유광옥 서울 향천선원장)

계율 중요성 새롭게 인식한 場

성립과정 · 정신 등 전반적 문제 다뤄
인류가 겪는 난제 해결 키워드 제시



8월6일 입제해 10월9일 회향한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는 계율의 의미, 지계의 중요성, 교육이 필요함을 확산시킨 대중법회였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주최해 8월 6일부터 시작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가 10월 9일 보살계 수계법회로 회향됐다. 이번 법회는 계율 관련 첫 대중법회라는 의미와 함께 계율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연인원 1만5천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이번 법회는 계율이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임을 분명히 했고, 계율교육의 필요성과 지계의 생활화라는 공감대를 넓혔다.

또 재가불자들에게 '계율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계율성립과정부터 경전속의 지계정신, 종단제도, 한국불교 계맥전승 등 계율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과제도 제시했다. 계율수행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생활규범임도 확인했다. 또한 계율이 환경훼손 · 전쟁 · 테러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는 근거도 찾았다.

계율에 대한 관심 고조는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현산 혜국)가 선원공동청규제정을 위한 위원회구성,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근대한국불교율풍진작과 자운율사' 심포지엄, 서울 향천선원등의 계율강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천선원의 경우, 10월말부터 3개월 과정의 학당을 열어 체계적인 계율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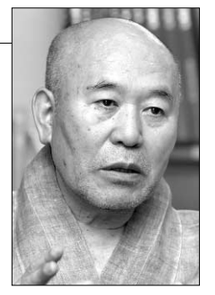
이번 법회를 기점으로 불교계에서는 지계수행의 생활화를 위해 전국의 각 불교대학이나 사찰에서 계율강좌가 개설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종단 차원의 '계율지침서' 재가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계율해설서 출간, 자자 · 포살법회 상설화, 계율지도법사(율사) 양성, 한글 계율용어 해설집 편찬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철우 · 배지선 기자

"국민 누구나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

지성 스님 (동화사 주지)



"스님들만 알아야 한다며 담을 쌓고 있었던 계율 문제에 대해 사부대중의 눈을 뜨게 했다는 점이 이번 법회의 수확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사진)은 계율수행대법회의 성과를 이렇게 말했다. 계율이 불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꼭 지켜야 할 행동 규범으로, 사회적 윤리와 도덕으로 승화되는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회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신라시대 원광법사가 세속오계로 일반인들이 쉽게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듯 이 시대 국민들의 행동강령이 될 수 있도록 계율을 가르치고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회를 전반적으로 볼 때, '2%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랫동안 계율학을 공부했던 스님들과 뛰어난 교수들이 법주와 논찬자로 참여하는 등 모든 것을 갖추었고 계율법회가 그동안 동화사에서 열린 어떤 행사보다도 성황리에 마쳤지만 내용면에서 계율의 성립과정, 문화적 배경, 생활실상 등이 의미있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 특히 남방계율과 북방계율, 계율에서 본 종단 제도 등은 터치도 못하고 넘어갔다며 아쉬워 했다.

지성 스님은, 계율을 주제로 어렵게 연 법석이니만큼 계율수행법회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혹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계율에 관심 있는 스님, 학자, 사회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 종합토론의 장을 향후 마련해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계율수행법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승가나 사회가 공감하는 문제(계율의 흐름, 법난이나 조선시대 때 계율이 훼손된 부분 등)를 잘 정리해 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스님은 고등상식사회에서는 사회법이 필요 없다는 '법철학적'인 측면에서 법조인들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화사 주지를 맡은 첫해, 백고좌법회부터 이번 계율법회까지 매년 한 차례씩 신도들을 위한 큰 법회를 열어 '부지런하고 학구적인 주지스님'이라는 평가를 받은 지성 스님은, 앞으로도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적인 면을 관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법회에 동참한 모든 사부대중과 공동주최자 현대불교신문에 감사함을 표했다. 또 출 · 재가자들에게 계율정신을 잊지 말고 생활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구=배지선 기자

이렇게 제안한다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가 첫 대중 계율법회인 만큼 법주스님들은 계율의 중요성과 지계의식 확산을 위해 종단과 스님들, 그리고 재가자들을 향해 다양한 제안들을 거침없이 개진했다. 법회에서 나왔던 제안들을 요약 · 소개한다.

마성 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상가법' 도입하고 율장공부 확산

불교국가인 태국은 스님인구가 40만 명을 넘어 자발적인 계율로 상가를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스님들도 잘못하면 상가법에 따라 스님 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불교도 상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상가법을 도입하면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확인한다.

보살계 수계법회를 할 때, <우바새계경> 6중28경계를 재가자들에게 수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율장을 재가자들에게 공개했으면 한다. 한국불교가 발전하려면 율장을 공부해야 한다. 남방불교 스님과 재가자들이 율장을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한국도 율장을 공부하는 수행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혜능 스님 (해인총림 율원장)

'재일'에 꼭 포살 했으면

6개월간의 행자교육 후 사미계를 받는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계 후 2년 동안 계율과 승가원형, 승단의 조직, 종헌 · 종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을 제안한다.계율을 가르쳐 기도하고 공부하는 승가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가자들은 보름마다 자기 청정을 확인하고 지난 보름 동안을 반성하면서 다짐하는 포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재가자들은 한달에 여섯 번, 열 번, 또는 하루만 해도 된다. 특히 재일(齋日)에 재계를 지키는 것이 재가자의 포살임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재가자들이 '수계→지계→참회발원'으로 이어지는 계율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출가자들은 재가자의 포살 · 자자를 지도해줘야 한다.

지운 스님 (동화사 강주)

스님들에게 술·고기 권유말길

승가를 외호해야 할 재가자들은 스님들에게 고기와 술을 권하지 말아야 한다. 재가자는 절에서 오신채를 먹자고 주장하거나 출가자가 만행할 때, 고기나 술을 공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출가자가 술과 고기를 사달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자들도 출가자와 마찬가지로 포살할 것을 제안한다.

남방에서 포살은 30여분 정도 소요된다. 합장하고 게송을 외우고 나면, 출가자가 하루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런 포살은 '작법참회(作法懺悔)'로, 자신의 죄목을 들어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 참회를 하는 것이다. 또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가벼운 참회법, 20여명 승가 앞에서의 참회법도 제안한다.

법혜 스님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출가연령 등 율장으로 더 점검해야

부처님의 근본사상, 사분율장의 정신, <범망경>의 정신을 살려 독신출가 교단을 만들어 나가고 출가자들의 수행을 여법 원만하게 하도록 종헌 종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단과 힘을 합쳐 종도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출가 시에 학력 구분, 연령 제한 등도 율장 정신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선교육 후득도제'도 율장을 더 참조해야 한다. 율장에 의하면 20살이 되면 비구계를 주고, 은사스님 밑에서 3~7년 계율을 배운 후에 수행하도록 돼있다. 수행 교단은 이판사판을 겸해서 수행해야 하는데 너무 사판화 되어가는 것 같다. 권력에 끄달리는 종단이 되지 않도록 계율을 더 알아야 하고 계율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한다.

철우 스님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오계' 계목을 적극적 行으로

현재의 삶에서 한걸음 나아가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한 자세로 오계를 받아 지녀야 한다. 또한 계를 지킬 자신이 없다고 해서 가려서 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오계의 계목을 적극적인 행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해본다. 불살생(不殺生)은 '자비롭게 살라'로, 불투도(不偸盜)는 '베풀며 살라'로, 불사음(不邪)은 '청정하게 살라'로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불망어(不妄語)는 '진실하게 살라'로, 불음주(不飮酒)는 '지혜롭게 살라'는 뜻으로 여겨야 한다.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소의율장' 제정해 교육하자

현재 종단에 소의경전은 있는데 소의율장은 없다. 소의율장도 정했으면 한다. 소의율장을 정한 뒤, 한글로 정확히 번역해 가르쳐 주자. 자운 스님이 번역한 <사분비구계목>을 소의율장으로 제안한다.

출가자의 '육식과 오후불식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채식주의로 할지, 오후불식을 하고 육식을 허용할지 등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또 토굴 · 자동차 등의 소유는 승가공동체에, 사용은 개인이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한다. 종단은 토굴 크기, 시설물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검박한 생활이 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하고, 승랍 10년 이하 출가자는 토굴생활을 금지토록 했으면 한다.

또 율장에 나와 있지 않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 맞는 청규를 제정함으로써 출가자가 경험하는 지계실천상의 갈등을 풀어줘야 한다.

경성 스님 (중앙승가대 강사)

여법한 갈마통해 이해관계 해결을

호계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 제한을 풀어야 한다. 전체 대중의 참여로 이뤄지는 갈마와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율장에서의 만장일치제는 화합정신에 있다. 만일 가까이에 스님이 없을 때는 20인 이상의 승단을 찾아가야 하며, 병이 들어 참석 못하면 병자를 들것에 싣고서라도 참석하게 하는 갈마를 하는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원로회의의 역할을 강화할 것도 제안한다. 종교적 의례인 갈마가 교단 정치적 · 행정적인 분규 등의 범계 행위를 다룰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그렇다. 원로회의 어른들의 여법한 갈마를 통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불기 2549년
제9회 광주 · 전남 불교 합창 예술제



● 초대손님 : 싯다르타, 정보 스님, 오목대
● 일 시 : 2005년 10월 26일(수) 오후 7시 | ● 장 소 :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상무지구)
● 주 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062-376-3223)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 1번지
● 출 연 : 향림사, 백양사, 원효사, 증심사, 원각사, 무각사, 한마음선원, 사암연합회 합창단

출연합창단
▲향림사 (혜향 스님) 062-375-7600 ▲백양사 (두백 스님) 061-392-7502
▲원효사 (현지 스님) 062-266-0326 ▲증심사 (진화 스님) 062-226-0107
▲원각사 (도제 스님) 062-223-3168 ▲무각사 (광민 스님) 062-383-0108
▲한마음선원 (혜월 스님) 062-373-8801 ▲사암연합회 (일명 스님) 062-376-3223

불교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은 각 사찰 합창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광 주 불 교 사 암 연 합 회

"계율 법회 매년 열렸으면…"



중요성 알았으니 여법하게 정진을



종진 스님(해인총림 율주)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계율대법회의 첫 법주로 나선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은 "선(禪)과 관련한 법회는 많았지만 이렇게 계율만으로 법회를 연 것은 한국불교에서 무척이나 드문 일"이라며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과 현대불교신문, 법회에 참석해준 불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으려면 계(戒)가 가장 우선이고 정(定)과 혜(慧) 3가지가 고루 갖춰야 한다"며 "훌륭한 법주들과 열정적인 논찬자들이 계의 중요성을 아홉번에 걸쳐 전한 만큼, 출 · 재가자 모두가 정성을 다해 부처님 제자로서 마음가짐과 행동을 흐트리지 않고 여법하게 정진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심히 흘려보냈던 일상 점검하는 기회



일진 스님(운문사 강원 학감)

"계율은 생활 그 자체니 논할 필요도 없지만, 무심하게 흘려보냈던 생활을 점검하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계율법회는 특별했습니다." 계율의 중요성이 부각돼야 할 때, 계율을 주제로 하는 귀한 법회가 열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했다는 운문사 강원 학감 일진 스님은 계율에 무관심한 요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려 감사했고 참 희망적이었다고. 다만 "스님들의 참석이 많지 않아 서운했다"고 토로했다. "계율수행대법회가 한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율을 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었으면 한다"는 스님은 "현대불교가 매주 법회내용을 잘 정리 · 보도해주어 참석하지 못했던 많은 스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었고 감사해 한다"는 말도 들려주었다.

알고 노력하려는 공감대 형성



장영관(대구광역시 조계종 9교구신도회장)

"무관심했던 '범망경' 10중48경계를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번 법회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지키기는 어렵지만, 알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동화사에서 그동안 열렸던 2002년 백고좌대법회부터 2003년 화엄논강, 2004년 담선법회를 죽 지켜봐 왔던 대구광역시 · 조계종 9교구 신도회 장영관 회장은, 계율이라는 생소한 주제로 열리는 법회에 불자들이 얼마나 참석할지 처음에는 걱정이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러나 우려는 빗나갔다. 10번의 법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장회장은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놀라웠고, 개인적으로는 계율의 중요성을 새롭게 느끼게 한 소중한 법회였다고 말했다.

신심 깊어지고 지계 결심 계기 돼



권대자(조계종 9교구 신도회 부회장 · 포교사)

"불자라면 누구나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념이 부족해 지키지 못했어요. 이번 법회는 그 신념을 내 재산으로 만들어, 계율을 지키겠다는 결심의 계기를 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회향하는 날 국화화분을 통일부처님 앞에 올렸다는 권대자(63) 조계종 9교구 신도회 부회장은 "서슬 퍼런 계율 속에서 자비한 계율이 있다"는 법주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어렵게 얻은 선물은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이번 법회를 세세생생 영원의 보물로 간직할 겁니다." 앞으로 전국의 교구본사가 부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러한 법회를 자주 열어 불법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소망도 밝혔다.

도반들과 담론의 장 열고 성찰의 시간



오동주(대구불교대학 총학생회장)

"매주 법회가 끝나면, 도반들간에 계율을 주제로 한 담론의 장이 열리곤 했어요. 그간 무심히 넘겼던 생활속 일반적인 규범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들도 많이 나눴어요."

대구불교대학 총학생회 오동주(70) 회장은 계율법회 이후, 새로워진 불교대학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또 장엄하고 여법한 법회와 회향인 수계의식은 도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지키지도 못할 테니 계를 받을 필요도 없다' 던 재학생들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도반들이 계를 꼭 받아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계율의 필요성을 절대 공감하는 눈치예요.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처님의 세세한 가르침이 3천여 년동안 어떻게 내려왔을까 신기해하더군요."

인생 참답게 살아가도록 한 전환점



신동엽(택시운전기사)

"불교의 기초를 새로 배운 느낌입니다. 사람이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제어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법회였습니다."

대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신동엽(53)씨.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다보니, 교대시간과 회사 입금액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9번의 동화사 계율대법회에 모두 참석했다. 매주 토요일, 3시간의 법회를 듣기 위해 동료들에게 사정해 근무시간을 바꾸고, 때로는 자신의 돈으로 입금을 맞춰가며 법회에 참석한 노력가이자 열성파. 신 씨는 "법회가 열린 두 달여의 시간이 너무나 값지고 보람됐다"며 "사람이 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전환점이 되는 이런 법회가 매년 열리기를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말했다.

불법이 바로 생활속에 있더군요



정홍영(대구정동고 국사 교사)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 정동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정홍영(47) 교사는 "불법이 바로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부처님 가르침도 더 열심히 배울 것"이라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고. 정 교사는 또 "수계를 통해 그동안 무심히 해왔던 행동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무엇보다 학생지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개인사정으로 9번의 법회에 모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붓다뉴스' 를 통해 법문을 다시 청취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지금도 쉬는 시간에는 수시로 법문을 다시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만하고 있던 나 자신 일깨워 줘



김덕수(대구시 서부경찰서 법우회장)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자만하고 있었던가를 점검하고 경책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초발심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법회를 통해 스스로를 겸허하게 반성하게 됐다는 김덕수 대구 서부경찰서 법우회장은, 스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여겼던 계율을 사부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내놓고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계율을 통해 사회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법(法)은 그 한자처럼 물이 흘러가듯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사회의 제도적 기본 장치인 세속법은 결국 불교의 계율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계율정신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터에서도 지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선 기자

법회 이모저모

법주스님들, 직접 만든 인쇄물 법보시

○… 9번의 법회가 열리는 동안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은 법주스님들. 법주들 대부분이 율사스님들이고, 물질문명에 사로잡혀 혼탁해가는 현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 계율정신이기 때문이다. 첫 문을 연 종진 스님은 '말을 잘하는' 비결을 일러주고 그것을 A4 용지에 인쇄해 매 법회 때마다 불자들에게 법보시했다.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도 삼귀의계, 오계, 보살십중대계의 내용을 모아 <불자의 청정한 길>이라는 소책자로 엮어 불자들이 매일 또는 재일에 송계할 수 있도록 보시했다. 그리고 법회 시작 때마다 동화사 합창단의 선창에 의해 '오계의 노래' 를 사부대중 모두 불러 계율법회의 의미를 한층 각인시켰다.

논찬자 중 유일한 비구니 일진 스님

○… 8월 27일 열린 네 번째 법회 '계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 에는 논찬자로는 유일하게 비구니스님인 일진 스님(운문사 강원 학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일진 스님은 법주로 나선 지운 스님의 법문을 4~5번이나 읽고 와 여러 대중들이 궁금해 할 점을 다양하게 질문해 박수를 받았다.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절 밖에서 공양을 해야 하는 수행자를 위해 동화사가 나서서 사찰음식 식당을 운영해 보는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법한 진행으로 박수받은 사회자 대법 스님



○… 이번 법회 내내 한결같은 목소리로 중심을 잡으며 여법한 진행으로 눈길을 끈 대법 스님(동화사 사회국장 · 사진). 계율법회는 사회국장 소임을 맡은 후 처음 맡게 된 큰 법회라고. 미리 사회대본을 준비해 수도 없이 읽고 또 읽으며 법회를 준비했는데 첫 법회때는 많이 미흡했었다고 토로한다. 스님은 이번 법회를 "승가와 재가에게 계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나태함을 경책하며, 인류 현안 문제점의 해결책을 '계율' 에서 찾기 위한 의미있는 법회라 회향한 지금 너무 뿌듯하다"고 밝혔다.

은은한 백련차, 구수한 메밀차 인기

○… 두 달 여 동안 펼쳐진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 감로법문이 설해지는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감로수를 제공한 '참 보살' 들이 있다. 동화사 팔공다회(회장 광명자) 회원들. 30여명으로 구성된 팔공다회 회원들은 뜨거운 8월에는 목이 마를세라 시원한 오미자, 매실, 감주를 준비했고, 가을로 들어서자 따뜻한 세작과 오룡차, 중국차를 준비했다. 법회기간 가장 인기 있었던 차는 은은한 백련차와 구수한 메밀차. 팔공다회 회원들은 법회시작 두 시간 전이면 어김없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나 1말 찜통으로 물을 일곱번 여덟 번 길어 날랐다. 또 맛있는 떡과 다식도 준비해 더욱 풍성한 법회가 되는데 일조를 했다.

빠짐없이 참석해 법문 들은(?) 개(犬) '마야'



○… 매주 동화사에서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유독 특이한 인연이 포착됐다. 법회 때마다 나타난 누런색 리트리버종 개(犬). 키가 1m에 달할 정도로 덩치도 크다. 이름은 마야(사진). 처음엔 모두 '법회장소에 웬 개가 왔지?' 라며 의아해 했지만 한번도 빠짐없이 나타나자 '다음 생엔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고 축원을 해주는 이들까지 생겼다. 마야는 대구 어느 사찰에서 키우고 있다.

절에 온 사연도 특이하다. 신도가 새끼 때 잠시 절에 데리고 왔는데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절에서 키우게 됐다는 것. 마야는 법회를 방해하는 일 없이 통일기원대전 계단 밑에 웅크리고 앉아 점잖게 법문에 귀를 귀울였다.

수계법회 5천여명 참석 '대성황'

○… 계율을 주제로 한 9번의 법회에 이어 10월 9일 보살계 수계대법회가 열렸다. 법회 전날 수계신청자는 이미 3,900여명을 넘겼고, 당일 수계법회에는 무려 5천여 불자가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2000년 보살계 수계법회 이후 동화사가 5년만에 여는 수계법회지만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모인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계율을 주제로 한 아홉 번의 법회가 불자들에게 계율정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켰고, 한국불교계의 으뜸가는 스님들이 3사7증으로 자리해 부처님을 대신해 계를 내리는 자리였던 것. 게다가 일요일에 열린 수계법회이다 보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손자 등 온 가족이 함께 나올수 있었다.

이날 수계동참자들은 "9주간 열린 법회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서 받는 수계라 그런지 계를 받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장엄하고 좋았다"며 만족해 했다.

밀납양초 (Bees Candle)

2005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밀납초의 특징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 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여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십시요.

- 1호 59中 × 18cm 約 연소시간 72시간 以上
- 2호 59中 × 13cm 約 연소시간 50시간 以上
- 3호 47中 × 14cm 約 연소시간 30시간 以上
- 4호 47中 × 9.5cm 約 연소시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以上
-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야광 용초
뒷줄 6개 = 10-1 70中 × 35 cm
앞줄 5개 = 10-2 56中 × 26.5 cm
그 외 모든 양초 제조 판매합니다.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너의 죄는 이미 참회 되었느니라


9월20일 삼조사를 방문한 조계종 선원장스님들이 3조 승찬 스님의 묘탑인 삼조탑 참배하고 있다

선원강, 禪의 원류를 찾다
– 중국 선종 초조에서 8조까지

3조 승찬 : 설우 스님 (청주 법인정사 선원장)

천주산 삼조사

흥분되고 설레었다.

그렇게도 와보고 싶었던 천주산(天柱山) 삼조사(三祖寺)가 앞에 있다. 20년 전 육조사를 답사했을 때 미처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을 이번에 훌훌 털어버리리라 마음먹었다. 삼조사가 어떤 곳인가. 조사선의 근간이자 요체로 꼽히는 <신심명>을 저술한 승찬(僧璨) 스님(?~606)의 선기가 서려있는 곳이 아닌가.

중국 선종 중요 사찰 답사길의 마지막 하루 전날인 9월 20일, 안휘성 안경시 잠산현의 천주산에 올랐다. 천주산은 옛날 중국을 대표하는 5악 중 한 곳으로 경치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곳이다. 천주산에 오르기 전 안경시를 지나오면서 소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발이 되지 않은 전형적인 시골 풍경의 운치는 또 다른 맛을 풍겼다.

승찬 스님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다. 하북성 출신이라는 것 외에 속성과 출생연도는 현재까지 미상이며, 행적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나병을 앓다가 2조 혜가 스님을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은 뒤 이곳 천주산에서 수행을 하며 법을 펴다가 열반에 들었다는 기록, 그리고 중도의 법을 설한 <신심명>을 저술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인지 승찬 스님이 실존인물인가에 대한 논란까지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승찬 스님이 실존인물임은 분명하다.

삼조사는 계단식으로 돼 있는 사찰이다. 반야문 정진문 해탈문 세 개의 문 위에 걸린 건원선사(乾元禪寺)라는 현판이 삼조사를 찾는 방문객들을 맨 먼저 맞는다. 이 문을 지나 계단을 오르다보면 삼조선사(三祖禪寺)라는 현판이 걸린 입구가 나온다. 이곳을 지나 다시 계단을 오르면 산곡사(山谷寺) 현판을 볼 수 있다.

삼조사의 원래 이름은 산곡사(山谷寺)다. 양무제가 양나라 고승인 보지(寶誌) 화상의 요청으로 이곳에 절을 짓고 산곡사라는 현판을 내렸다. 승찬 스님이 산곡사에 머물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100~150년이 지난 뒤다.

산곡사 현판을 지나 다시 계단을 오르면 승찬 스님이 서서 입적했다는 입화탑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지화상이 참선을 했던 보공동이라는 동굴이 있고, 인근에 바로 승찬 스님이 수행했다는 삼조굴과 묘탑인 삼조탑이 있다.

삼조탑 벽에는 <육조단경>에 나오는 6조 혜능 스님의 '무상송(無相頌)'이 새겨져 있다. 무상송은 불법과 세속법의 일치를 통해 생활불교와 실천불교를 강조한 혜능 스님의 법문이다.

깊은 병이 발심의 뿌리

"스님, 어디 계십니까?"

삼조탑 앞에서 승찬 스님을 불렀다. 당 현종 서주 별가(부지사) 이상후가 승찬 스님의 유골을 다비한 뒤 3백과의 사리를 수습해 이중 1백과는 조정으로 보내고, 1백과는 승찬 스님의 생가에 모시고, 나머지 1백과는 사리함에 넣어 탑을 세웠다고 한다. 삼조탑은 이렇게 승찬 스님의 육신이 묻혀있는 곳이다. 삼조탑에서 우리 일행은 도량 마당에 엎드려 절을 하고 기도를 했다.

"몸에 풍질(風疾: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풍질을 앓게 된 저의 죄를 참회케 해 주십시오."

"죄를 가져오너라. 죄를 참회케 해 주겠노라."

"죄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느니라. 그저 불법승에 의지해 안주하라."

승찬 스님의 대답 대신 승찬 스님이 혜가 스님과 나눈 선문답이 들려왔다. 승찬 스님이 2조 혜가 스님을 찾아가 불쑥 물었던 '죄'를 생각했다. 그때 승찬 스님의 나이가 40세 정도였다고 하니 수명이 길지 않았던 당시,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나병으로 힘든 생활을 했었을 스님의 고통이 느껴졌다. 무슨 죄가 많기에 나병을 앓게 되었느냐며 죄를 참회케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 병으로 인한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자기성찰이 집요하게 화두로 자리잡았을 터.

승찬 스님의 아픔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한 때 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마저 포기했을 때 느껴졌던 절망감. <신심명(信心銘)>을 품고 살며 건강을 추스렸던 지난 시절, 나 역시 얼마나 깊은 고뇌와 발심이 있었던가.

승찬 스님은 혜가 스님을 2년 동안 시봉하며 병도 치유하고 법맥을 이어받았다고 한다. 모든 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욕심과 욕망 때문이며 그 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여겼던 승찬 스님. 나병이 나은 것은 혜가 스님으로부터 정견(正見)을 얻어 본래 업이 없는 이치를 알게 된 때문이다.

우리네 인간사를 떠올려본다. 병의 근원은 정신에서 오는 것이고, 그 정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본래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근본을 아는 것이니, 선의 생명은 일정한 틀이 없는 것이다. 종교의 진정한 생(生)의 열기는 사상적 새 삶의 활로이며, 그것은 연기적 삶 그대로 신선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조사선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안심법문(安心法門)이다.

중도 요체 담아낸 '신심명' 저술

법은 이렇게 참으로 인간적이다.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편안한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법의 바탕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함축돼 있다. 사람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그리고 사람의 본래자리는 해탈돼 있음을 그 옛날 혜가 스님과 승찬 스님은 말한 것이다.

승찬 스님이 수행정진했다는 삼조굴에 들어서니 승찬 스님의 영정이 눈에 들어왔다. 승찬 스님은 많은 행화(포교)를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승찬 스님은 본래 나병을 앓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적두찬(赤頭瓚)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삼조사 기록에는 승찬 스님이 거의 동굴에서 살았다고 적고 있다. 아마도 나병으로 인해 변해버린 외모가 포교보다는 선 수행에 매진케 한 이유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삼조굴 바로 앞에는 '해박석(解縛石)'이라고 음각하고 빨간색으로 페인트칠을 해놓은 널따랗고 평평한 바위가 누워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속박을 풀어준 바위'라는 뜻인데, 이곳이 바로 승찬 스님과 승찬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4조 도신 스님(580~651)이 선문답을 주고받은 곳이다.

"청하옵건데 해탈법문으로 이 몸의 속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저를 묶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자유롭다. 그런데 어찌해 해탈을 구하고 있단 말이냐."

인간 존재의 밑바탕인 자성(自性)은 본래 속박된 일이 없다는 절대적인 자유를 말한 그 유명한 '수박여(誰縛汝)'라는 화두가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우리의 본래 자리는 속박된 적이 없으니 해탈을 구할 필요조차 없이 자성 그대로가 해탈이요 부처임을 일깨워 준 안심법문이다.

천주산만큼 깊은 조사의 법

삼조사는 꽤 조용하고 깨끗했다. 이곳에는 스님이 20여 명 가량 있다고 한다. 마침 마당을 쓸고 있는 스님에게 이것저것을 물었다. 이곳 스님들은 승찬 스님의 법을 잇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향객(香客:신도)과 관광객들에게 승찬 스님에 대해 설명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찬 스님을 추모하는 의식과 행사도 연다. 이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심명>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至道無難)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唯嫌揀擇)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但莫憎愛)
통연히 명백하리라(洞然明白)

<신심명>은 4언절구로 해서 146구 584자로 되어 있는 간단한 글이지만 선과 교를 막론하고 양변을 여읜 중도(中道)가 불교의 근본 사상임을 표현한 불후의 명저다. 이렇게 짧은 글 속에서 조사선의 요체를 담아냈다는 것은, 승찬 스님의 일생이 스스로 지혜로서 자성을 회광반조하는 생활선이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승찬 스님이 나병을 앓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불후의 명저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승찬 스님의 삶은 혜가 스님을 찾아오기 전부터 삶 자체가 수행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신심명> 가운데에서도 정수는 앞의 네 구절이다. 지극한 도는 우리가 본성을 알고자 한다면 그 정체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가까운 곳에 현실로 드러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우리가 양변적인 원리, 즉 이원론에서 움직이고, 그 이원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실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다시 집착이 생기는 것일 뿐이다. <신심명>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중생심은 허상이고,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님을 <신심명>은 일깨워준다. 본성자리는 본래 부동한 자리에서 인연을 수순하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정견이고, <신심명>에는 그 정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信心不二)
둘이 아님은 믿는 마음이니(不二信心)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言語道斷)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로다(非去來今)

<신심명>의 마지막 구절이다. 마음을 믿는 것은 본래 성불을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래부처라는 것이다. 본래부처를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확신하라는 것이다.

선방을 다니던 시절 내 겉망 안에는 늘 <육조단경> <채근담>과 함께 <신심명>이 들어있었다. 아침에 <신심명>을 외며 도량석을 한 것도 꽤 오랜 습관이었다. 후학들을 위해 많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때마다 꼭 <신심명>을 강조한다. 적어도 수좌라면 <신심명>은 외고 있어야 한다. <신심명>만큼 중도(中道)의 실상을 잘 드러낸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신심명>은 정견을 바로 서게 하는 힘이 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고 했다. 지극한 도는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없는 것은 간택을 했기 때문이다. 없는 것에 의미를 붙이고 이름을 붙이는데서 시비가 생기고 스스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간택심과 분별심을 버려라. 그러면 본래 그대로다. <신심명>이 말하는 본래자성이야말로 수행자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찾아야 할 좌우명이다.

대중설법 끝내고 서서 입적

승찬 스님은 선 채로 입적했다고 전해진다. 입화탑(立化塔) 앞에 서니 승찬 스님의 체취가 느껴진다. 승찬 스님은 이 나무 밑에서 대중설법을 마치고 나서 합장한 채 서서 입적했다. '스님은 정적인 삶 속에서도 항상 동적인 삶을 함께 갖춘 중도의 정신을 보이려고 서서 입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입화탑에는 승찬 스님의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그 고뇌를 법으로 승화시킨 원력이 담겨있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삼조사를 나섰다. 삼조사 앞을 흐르는 강 '잠하(潛河)'는 여전히 묵묵히 흐르고, 유유자적한 안경시의 시골풍경은 한가로이 하품을 하고 있다. 물이 깊으면 산도 깊은 법. 육조사 중 삼조사가 개발되지 않은 이유는 천주산의 깊이와 천주산의 주인이었던 승찬 스님의 법의 깊이가 그만큼 깊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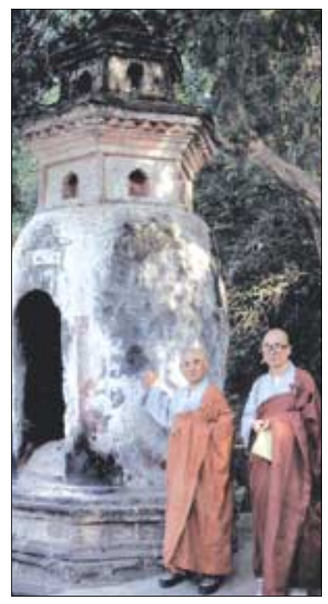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교육이 미흡하고 제도가 온전치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먼저 승가공동체의 근원적인 정신의 활로를 여는 총체적 생명의 물결이 흐를 수 있는 정신적 수행풍토가 일어나기를 발원해 본다.

천주산 자락이 멀어져갔다. 하지만 희미해지는 천주산 자락에서 나는 보았다. 승찬 스님이 설한 대자유인이 되는 길이 거기에 나 있음을.

정리=한명우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승찬 스님이 수행했다는삼조굴에 모셔져 있는 스님의 영정.


혜국 스님과 설우 스님(오른쪽)이 승찬 스님이 서서 입적했다는 입화탑 앞에 서 있다.


삼조사로 들어가는 첫 문 앞에서 선원장 스님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설우 스님은 1971년 상주 원적사에서 원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수도암 도성암 등지에서 정진하며 25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수행지침서 <간화선>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교육원 교육제도개선위원회 위원·승가고시 위원·기본선원 교선사를 맡고 있다. 청주 법인정사 선원장으로 있으면서 후학양성에 매진 중이다.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❶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국보 제119호 · 삼국시대) ❷ 춘궁리철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332호 · 고려시대) ❸ 관음보살(고려시대) ❹ 해외 옥션에서 구입해 처음 공개되는 신중탱화(18세기 중엽)

불교 조각실 · 회화실 · 금속공예실은

시공 초월한 '법당'

국립중앙박물관 10월 28일 개관…미리 만나본 불교문화재

10월 28일 서울의 한복판 용산이 민족의 역사와 혼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1997년 시작된 8년간의 대역사(大役事)와 경복궁 전시를 중단한 1년여의 휴지기를 끝내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드디어 문을 연다.

9만2936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지어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우)은 연건평 4만616평, 건물 전시면적만 8101평으로 건물면적만 따지면 세계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관람코스 길이가 4km, 1만1000여점의 전시 유물을 둘러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시간이나 된다.

불심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불교문화재가 집중돼 있는 곳은 미술II관의 불교조각실(3층)과 미술I관의 불교회화실(2층), 그리고 금속공예실이다.

불교조각실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춘궁리철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332호)으로 불리는 고려시대 철불이 눈에 들어온다.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하사창리 절터에서 발견된 불상으로 무게가 6.2톤이나 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철불이다.

그 왼편으로는 충남 서산 운산면에서 출토된 철조불좌상이 자리하고 있다. 8세기 작으로 백호와

관람코스 4km 11시간 소요, 세계 여섯번째 규모
반가사유상 · 천흥사종 등 1만 1000여점 유물 전시
진도 6 규모 내진 시설 · 지상 수장고 등 안전성 최상

국립중앙박물관은 건물길이가 404m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에 형상마저 전통성곽을 닮아 거대한 '요새'를 연상시킨다. 자랑스러운 민족의 문화유산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요새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것만 같은 믿음을 준다.

국내박물관 건축사상 최고 수준인 내진(진도6 대비) 기능에 더하여, 땅의 진동이나 변형을 흡수하는 면진(免震) 장치, 공기정화 시설과 대기오염 감시장치 등 특수설비시스템까지 갖추었으니 그 믿음이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수장고를 지하가 아닌 지상에 둠으로써 환기문제나 수재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또 지반을 3.5m 성토해 한강의 범람에도 대비했다.

이같은 외형 못지않게 전시품도 알차다. 소장유물의 질을 지정여부로 판단하는 '무식의 소치'를 범하자면, 상설전시실에는 총 59건의 국보와 79건의 보물, 중요민속자료 1건이나 되는 많은 보물과 국보가 전시돼 있다.

국보 59건 가운데 18건, 보물 79건 가운데 27건이 불교문화재여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조상의 양손은 간데없지만 항마촉지인을 한듯한 팔의 자세로 보아 여지없는 석가모니상이다. 면진대 위에 놓인 다른 불상들과는 달리 이 석가모니상만은 장엄을 위해 닫집까지 갖춰진 불단 위에 정성껏 모셨다. 닫집은 부석사 무량수전의 것을 따랐는데, 단청은 돼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관람객이 단청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곳은 단연 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 전시공간이다. 약 5m×8m 넓이의 독립공간에 단독 전시된 반가사유상은 캄캄한 암흑 속에서 벽면을 타고 조용하게 흘러내리는 몇 줄기 조명을 받으며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인다.

불화실은 두 층이 트인 전시공간을 확보해 커다란 괘불도 걸어놓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개관에 즈음해 일본 나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두 점이 대여 전시된다.

금속공예실에서는 '청녕4년이 새겨진 종'(보물 제1166호)과 천흥사종(국보 제280호)을 비롯해 감은사터동탑사리기(보물 제1359호) 등 화려한 사리기들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범종은 종각을 만들어



'역사의 길'에 서 있는 고달사지쌍사자석등(보물 제282호 · 고려시대)



금속공예실의 성거산 천흥사동종(국보 제280호 · 고려시대).

걸지 않고 바닥에 받침을 괴고 그 위에 올려놓는 방법을 취했다. 종각이 전시장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응천 전시팀장은 "지금으로서는 종소리를 들려줄 수 없어 아쉽다"며 "종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 중"이라고 밝혔다.

박물관 야외에는 보신각종(보물 제2호)를 비롯해 11건의 석탑과 부도 · 석등이 전시돼 있다. 경천사10층석탑(국보 제86호)는 박물관 실내 역사의 길에서 만날 수 있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인 터 뷰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지난해 3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해 1년 6개월여 동안 박물관 이전 및 개관에 온 힘을 쏟아 부은 이건무 관장을 10월 19일 만났다. 이 관장은 피곤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로 인터뷰에 응했다. 불자 관장답게 불교문화재에 대한 애정도 읽을 수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장 힘들었던 점은

–유물 이전이 가장 어려웠다. 수만 점의 유물을 이전하는 엄청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점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이전했다. 직원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또 하나는 미군 헬기장 문제였다. 금년 5월 1일까지도 헬기장이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아마 개관 못했을 것이다.

▷전시에 특별히 유념한 부분이 있다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조명이다. 조명을 잘해야 작품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특히 진열장 안에는 광섬유 조명을 사용해 세밀한 조명이 가능케 했다. 광섬유 조명에는 열을 배제하고 빛만 들어가도록 자외선을 거르는 특수 필터가 장착돼 유물 손상을 최소화했다.

▷불교문화재가 빈약하다는 느낌인데

–성보박물관이나 국립경주박물관과 비교해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불교가 지배해온 한국에서 불교문화재를 따로 한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본다. 도자공예나 회화 등 다양한 문화유산에도 불교정서나 사상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성보박물관과 교류하면 풍성한 전시가 되지않을까

–현재로서도 월인석보(보물 제745호 · 수타사 소장),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 · 화엄사 소장), 김정희가 쓴 해인사 중건상량문 등 사찰 성보박물관으로부터 빌려온 유물들이 있으니 교류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특별전이나 상설전시 교류 등을 시행해볼 생각이다.

● 불교조각 감상 요령

- 반드시 전시된 순서를 따라 감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감상할 때는 양식이나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 공부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마음에 드는 불상을 찾아본다.
- 불상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며 시선을 마주 한다.
- 불상을 조성한 이들의 마음가짐을 떠올려 본다.
- 자주 그 불상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도록 한다.

도움말=진정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여기서 방황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한국 파동 빙의연구원 원장스님의 놀라운 의통과
투시능력으로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해결 해 드립니다.

- 첫째,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은 예고없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지은 전생의 카르마(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 둘째,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의 악기(惡氣)로 누적된 파장으로 인해 자기 앞에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이 나타난다.
- 치유법 :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 과학적이며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한다.

빙의령인지 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환자 스스로 자기 몸속에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세의 쟁애인지 확인 – 상담 – 현세의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 해결한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되는 것일까?
- 병도 없이 몸이 아프며 백방치료해도 왜 효과가 없을까?
- 집안에 불화와 우환은 왜 끊이지 않을까?
- 원인모를 병과 사업실패, 직장실패, 부부실패, 집안이 편치 못한 것은 왜 그러할까?
- 묘터와 수맥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는가?
-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 사용으로 피해가 없는가?
- 원인모를 불임시에는 태아영가의 장애였는지 의심해 봐야한다.

여러번의 종교의식(천도나 제령)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분 상담

빙의(憑依)로 나타나는 증상
내 몸속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나를 조절할 수 없고
누군가 내 머릿속에 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대표적 증상이며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 환청, 환시, 우울증, 강박증세,
심리불안, 조울증,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등 갖가지 증상을 호소한다.

한국 파동빙의연구원
053)767-0036
053)652-3300

대웅전 확장 중건 대작불사 모연문



만물이 풍족한 가을 단풍색도 아름답군요
모든 불자님 성불합시다.
이곳 왕룡사원이 있는 산은 형산이라 하오며
대웅전 뒤 바위산은 용의 머리이며 그 용의 머리 숨골에 산신각을 모셨습니다. 포항편 동해안의 최고 명산으로 천년전 부터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워 진다고 합니다.
대웅전이 10평정도로 협소하고 세월에 풍락속에 많이 훼손되여 37평으로 확장 대작불사를 3년전부터 시작하여 여러불자님의 정성으로 드디어 주축돌도 놓고 기둥을 세워습니다만 재정이 모자라서 부득이 신문지상을 통하여 모연을 하게 되였습니다,
대명산 천년기도도량에 보시하신다면 크나큰 공덕이 될것으로 믿고 권하옵니다, 십시일반으로 만원, 이만원이라도 정성을 올린다면 그 공덕으로 불자님은 무량한 공덕의 인연을 심게 되시고 당사 큰 법당의 대작불사를 원만 이루워질 수 있을것입니다.

◆ 아래 통장번호로 입금 하시면 됩니다.
농 협 721082-52-143499 / 우체국 702373-02-003980 / 조흥은행 804-06-610190 (예금주 : 윤시연)

왕룡사원 원장 구암 윤시연 · 신도회 회장 대승 전달선 합장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149-1 ☎054)762-4269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걀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 뒷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열쇠폰걸이


달마차걸이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6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 (정정애)

신간

몸에 지니기만해도 병이 낫는 청혈기술

고혈압 동맥경화 걱정없다



이책속에 귀하의 평생 건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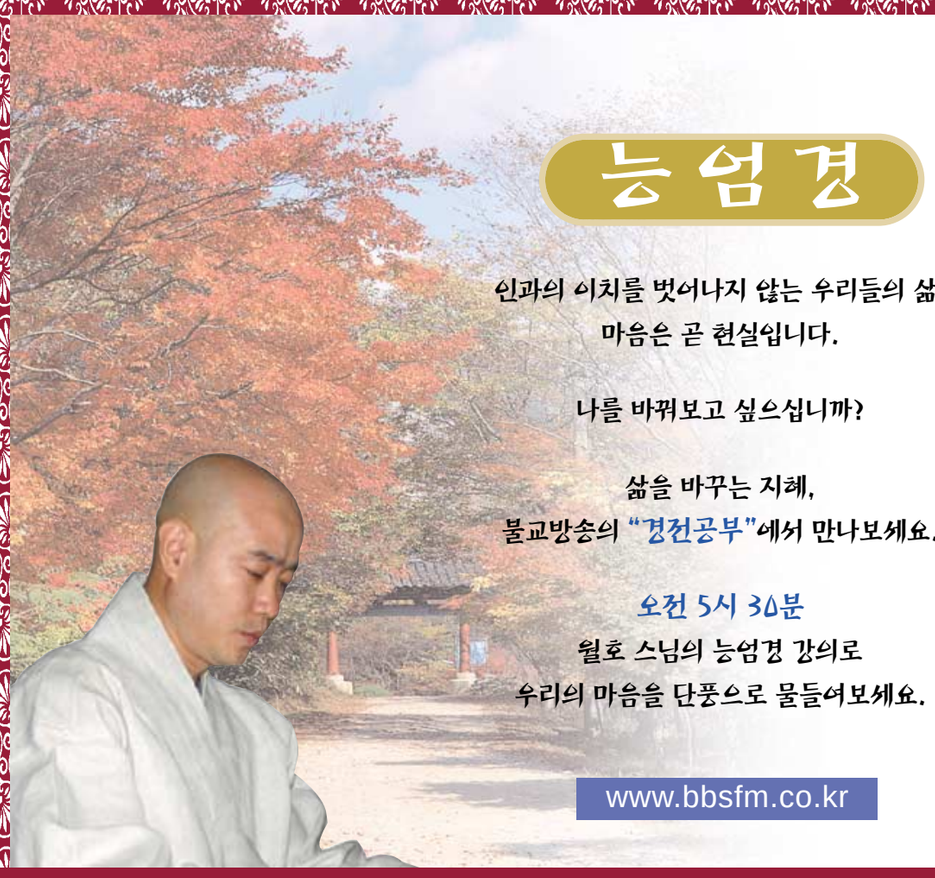
이 재 복 편저
100쪽 값 6,000원

- 죽음을 부르는 탁한피 당신의 피는 안전한가
- 꽉막힌 혈관 확 뚫어라
- 심혈관 질환의 주범, 고지혈증
- 고지혈증의 원인과 증상
- 증이라고 무시 했다간 큰코다친다.
- 한국인이 더 위험
- 심장병 환자에겐 시간은 생명
- 뇌졸증 주범은 뇌경색
- 몸에 지니기만 해도 병이 낫는 청혈기술
- 북한 의학박사가 발명한 방해석의 신비
- 18년간 1만명이상 임상시험
- 심, 혈관질환 치료율 98.8%
- 당뇨 합병증예방, 치료한다.
- 21세기 인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의학적 대발명
- 38년간 고생하던 두통이 하루만에 없어졌다.
- 불면증이 4일째부터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
- 두통과 메스꺼움이 7일만에 없어졌다.
- 편두통에서 벗어났다.
- 두통으로 하루 8알씩 먹던 진통제를 끊게 되었다.
- 신우신염이 좋아졌다. – 이명증이 없어졌다.
- 하지 정맥류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 손, 발 저림이 하루 밤 사이에 깨끗
- 혈압 200-97이 3일만에 120-70으로
-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피가 맑아졌다.
- 소변에 혈흔이 나타나지 않는다.
- 극심한 생리통이 없어졌다.
- 25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안 먹게 되었다.
- 숨이 차고 , 불안, 가슴두근거림이 없어졌다
- 심장 압박에서 벗어났다.

※많은스님들이 애용하신후 질병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 02)3436-3206~7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능엄경

신과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
마음은 곧 현실입니다.

나를 바꿔보고 싶으십니까?

삶을 바꾸는 지혜,
불교방송의 "경전공부"에서 만나보세요.

오전 5시 30분
월호 스님의 능엄경 강의로
우리의 마음을 단풍으로 물들여보세요.

www.bbsfm.co.kr

경전공부





이 법화경은 불교방송 프로그램
경전공부에서 방송된
쌍계사 승가대학 월호스님 강의 내용입니다

법화경

월호스님 (쌍계사 승가대 교수)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기본사상으로 삼국시대 이래 가장 많이 보급된 불교경전이다.

신라의 원효와 고려의 의천이 펼쳤던 불교운동의 근본에 법화경이 있었고, 혜초가 목숨을 걸고 서역길을 가로질러 가져왔던 경전이 바로법화경이었다.

• 구입문의 :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 전 화 : (02)706-3502~5
• 가 격 : 70,000원 (CD 20개)

서울FM101.9 MHz 부산FM 89.9 MHz 광주FM 89.7 MHz 대구FM 94.5 MHz 청주FM 96.7 MHz 춘천FM100.1MHz 안동FM 97.7MHz 포항FM 105.5MHz BBS 불교방송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영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당뇨, 고혈압 비만 희소식
(스님에 한해서 원가 제공)
- 제품명 : 비타그린(특허출원)
- 특 징 : 천연식품(환으로 제조)
- 함유영양소 : 천연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 제품크기 : 1통(200g) 1개월분 3개월 복용 후 효과 없을시 환불
- 가 격 : 50,000원
제품시험성적서 및 자료제공
- 홈페이지 www.egreennara.co.kr
- 연락처 : 016-641-5211, 061)901-5211

역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강의
적중률 높은 학설로 누구나 쉽게 단기간 완성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벼락맞은 대추나무
워낙 진귀한 것이라,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함. 입시 승진 취업 결혼 사업 성취 매매 건강쾌차 득남득녀 가공하지 않은 진품 그대로 점안하여 드림.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011-9585-4908

승려 노후 복지시설 입주 스님 모심
정정도량 팔공산 인근 노후 복지시설에 입주할 스님을 모십니다.
황토방의 1인1실 최신식 주거환경으로 숙식제공과 함께 매월 기초생활비 (월 30만원)가 지급됩니다.
- 입주요건: 만 50세 이상 승납 20년 이상의 조계종스님 입주 보증금 일부 있음(월 생활비 없음)
- 문 의: 011-805-3086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전까지문의)

세계결혼기관
- 국내 : 초혼, 재혼
- 국제 : 필리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지사모집 시·군
0502-555-4242

사찰운전기사 모십니다
▷상주가능.출퇴근가능
50~65세 경기도 성남
011-264-8312

절에서 평생 가족처럼 지내실 분 모십니다
▷총무보살구함
055)335-4225(야간)
011-856-4578

사찰운영(동업,주주)모심
- 사찰위치 : 경주
- 규모 : 토지3500평,건물 300평 (소자본으로 힘을 모아 사찰운영 같이 할 분)
처사님 보살님 동참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051)803-5143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신명의식
011-850-0176

행 자 모 집
(엘리트스님 양성 목표)
참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출가의 연을 갖고자 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문의 053)745-3334
대한불교조계종 삼존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산세수려한 산사에서 천일기도 하실 스님 모십니다
- 행자 모집합니다
011-696-850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31)764-8381

사찰사무장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상주가능 출퇴근도 가능
031)335-2576
011-270-2675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지낼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대구 북구
017-504-7809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사찰 뒷일 도맡아 하실 처사님 연락바랍니다
0505-794-525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42)282-9270
042)282-7188

60세 미만의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보시드림)
▷김해 천불사
055)322-8323

불사중인 사찰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밀양 영구암
055)353-030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
▷55~65세
054)971-7561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옥좃대, 향로, 다기-한세트,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 6,500만원/대불 모실때 4,500만원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2회,3회 분할가능)
010-6512-123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 진주시내에서 10분거리
- 평수: 200평
- 법당완비, 창고, 일체시설완비
- 가액: 8천만원
055)745-1083
017-587-7193

암자안내
- 위치 : 구미시 옆 칠곡군 약목면 소재
- 임범당, 정원 밭, 350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년 350만원, 양도도 가능 양도가 1억
017-813-9126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82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4억2천만원
011-9961-0241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천하요새의 도량
- 사찰 건립 60년된 평수 1천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종각 2평, 요사방6개, 주방시설완벽
- 주차 30대 시설완비
- 가액: 5억
010-4877-5900



알려드립니다
- 성명 : 정혜영(女 16세) 행자
– 위 사람은 여러사찰에서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일이 있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피해 사찰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립니다.
※ 전남 영암, 수도권(서울, 인천, 성남)에 거주 하였음. 최근 인천지역 거주

중국중의침구학강좌
중국자격증 학위취득을 위한 무료 세미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면 침구계(3년) 중의계(5년) 결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WTO개방에 대비하고 영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서비스와 해외이민시 병,의원 설립하여 창업을 위한 연수강좌 미국의 한의대(3년~4년)편입 할 수 있으며 NCCAOM고시에 응시할 자격 있습니다.
- 개강: 매주(화,목) 오전 11시 설명회 입회 (직장인 의료인: 매주(일) 오후2시)
- 제주 분원: 매주(토) 오후 2시
- 중국 연수: 수시(4박 5일) 정기(년 8차)
과목: 체침(전통침), 뜸, 부항, 이침, 양도락기, 건강(약용)식물관리, 활법, 피부관리, 비만침법, 미용침법, 식이요법
- 기본세미나: 16주 매주1회 11시~17시
중국 연수유학 전문 중국문화원
02)456-4248, 456-4249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출구

수능시험합격부적패션 출시
"경영주사"로 특수염색자수 하여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며 행운을 주는 패션제품
-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 제품 : 팬티, 손수건, 양말, 차량용 복주머니
선물용포장 017-533-1356 [특허출원]
유통사업관심계신 분 – 전화상담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사주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자 [예비스님, 남·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남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을 보기전에는 카르마(업)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730-6156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영통 파동 명상 수련생 모집 (약간명)

인체내에는 특별한 에너지 중추가 있다. 이 미묘한 에너지 중추는 육체의 내분비선과 주요 신경중추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장 속으로도 확장되어져 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chakra)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에는 일곱가지 차크라가 있다.
이 차크라들을 나-노 파동요법 을 통하여 수련하게되면 사람에 따라 우주에너지와 연결되어 神通 이 열리게 된다.
한 예로, 정수리 차크라는 두뇌 꼭대기에서 비롯되어,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차크라인데, 이 차크라를 열게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투시가가 될 수 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730-6156
051) 817-6156


법관(法觀) 최영식

퇴마사 수련생 모집 (약간명)

나-노 파동 요법을 알게 되면 명상 최면 지도사 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적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주파수 (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파수에 나-노 파동 요법 으로 공명을 일으키게 하면 자신이나 타인이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지거나 몸속에 숨어 있는 영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영혼적 현상들을 바르게 인도(제령) 하고 정리(천도)하는 기법이 나-노 파동 요법 입니다.

- 1996년 PSB '생방송 새아침'출연
- 2001년 SBS '호기심 천국'출연
- 2002년 KBS 'VJ 특공대'출연
- 2003년 iTV '위험한 초대'출연
- 2004년 SBS '세상발견 유레카'출연
- 2004년 PSB '현장추적 사이렌'출연
- 2005년 PSB '유레카 귀신이 산다'출연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 부터 존재했었다"
"빙의 그 영혼의 노숙자들"
"전생을 읽는 여자"
- 2002년 12월 '어린이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해결
- 2005년 8월 동해 군인 초소 총기 탈취사건 자문 역활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45평
- 명부전 : 35평
- 요사 : 70평
- 가액 : 15억

- 위치 : 부산
- 법당 : 18평
- 요사 : 45평
- 가액 : 4억7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10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종로구산밑큰절-30억
2.용인목조사찰500평-9억
3.분당포교당34평-3천/140
※ 노전,부전스님,
사찰운영하실스님
공양주보살, 법당보살, 화주보살,
운전직, 종무직, 신속연결
※ 불교일자리소개전문
현대불사 02)555-0575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 가옥: 신축 황토기와집
- 가액: 5억5천만원(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집 주인이 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청주관광호텔앞
- 평수: 45평,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존불, 고급후불탱화 3점,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
- 몸만 오셔서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6-261-2068
043)268-4242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1천 5백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영월
- 부지 : 만평
- 법당 : 25평
- 요사 : 100평
- 가액 : 6억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 위치: 상계역 2분거리 (최고의 위치)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내 위치
- 2,3층사용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2층만 사용시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2층 40평 3층 20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시설완비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02)952-813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내. 대구, 왜관에서 15분 거리
- 대지(밭 같이있음)416평-실제사용600여평
- 대웅전,삼존불,요사채3동 화장실,세면실 주차장 완비 난방시설 : 심야전기보일러 36평2개
- 중계업자 일체사양, 직접운영하실 스님만 전화요망 ※스님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5천만원

010-3542-3203

토굴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 대지 200평(텃밭 포함) 건물 3채, 45평(임법당), 요사채, 후원(창고)
- 가액: 4천만원
- 기도와 수행에 뜻을 두신분

017-401-4939
063)631-843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경계
- 건물(조립식) 대지 200평, 법당 25평 요사채 10평, 부속창고 20~30평 총 1600평
- 심야보일러 130m암반수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6-9559-888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거재도
- 부지: 천평
- 법당: 토목 공사완료
- 요사: 40평
- 양도가: 5억5천
- 산세 좋으며 바다바로앞임

- 위치: 경기도 이천
- 부지: 450평
- 법당: 30평
- 요새: 30평
- 양도가: 6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부근 천안시내에서 15분거리
- 평수: 대지 62평,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가액 : 6천 3백만원

011-209-5506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30평, 주지실, 사무실, 총 방5개, 참선방 4칸,주방, 욕실, 화장실 3개(실내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전물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여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1개,큰방2개,거실,욕실, 도시가스(삼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목조각
- 가액: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주차가능
-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사찰터,임야 (급)안내

- 바다같이 넓고 아름다운 충주 호수 접한 임야
- 강원도 보다 더 깨끗하고 조용하고 맑은 공기 청정수 흐르는 계곡, 정남향입
- 조선 소나무 수만그루 산재함
- 산 정상에 100여년 묵은 조선 소나무 100여그루 산재함
- 주변에 혐오시설 없고 사찰터 적합
- 5m 도로 접함. 요양원, 복지시설로 최적지
- 서울 1시간 30분대, 수안보온천 20분대, 충주 20여분
- 총 6만 4천여평중 4천여평은 그냥 드림
- 평당 급매가 1만원으로 매각함

주인직 010-7187-6599(중개도 가함)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40평
- 법당: 20평(임법당)
- 가액: 7천5백만원
- 특징: 도심 중심가에 위치한 도심사찰임

사찰안내(굿당)

- 위치: 경남 밀양시
- 부지: 약 1천평
- 법당: 10평
- 요사: 40평 굿당(방)10개
- 가액: 전세3천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 2층 법당 44평 3층 후원 41평 총 85평
- 가액: 전세 2억 시설비, 권리금 없음

011-9912-757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중구 동인동
- 건물: 한옥31평(주택 사용가능)
- 가액: 5700만원 (3000만원 융자) 인수금 2700만원
- 답사후 가액 절충可

053)625-3372
016-383-7255

사찰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 부근3층건물의 2층
- 법당 23평, 전체 43평 방3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7188-5612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구성면
- 면적: 2만평
- 산세가 수려하고 둘로둘려싸인 팔각정 천하절경명산으로 소문난 명승고적지
- 가액: 2억6천만원

054)433-3533
011-9570-3533

사찰안내

- 위치 : 동해안 산세 수려한 명산자락임
- 부지: 종교 부지를 포함해서 1300평임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목조 주삼포건물 회관건물: 1층황토방겸, 공양간 2층 회관 요사채 현대식 스라브건물 주차장 완비 포장된 진입로 2곳 연수원 기도원 적합
- 가액: 답사 후 절충바람 장기 전세 가능

010-3660-2867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042)274-010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시장 뒷길
- 평수: 약 60평 2층 방3, 3층방 1개
- 법당, 엠프 에어컨 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절비 3천만원

051)554-2406
011-843-2404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읍
- 대지 120평 바닷가 경관 좋음
- 삼존불, 집기일체
- 가액 : 전세 2천만원. 시설비 700만원

011-9744-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문현로터리 5층건물 중 3층
- 법당 20평, 방2개, 입식 주방
- 즉시 법회 가능 (지하철 5분거리, 위치 좋음)
- 가액 : 500만원에 월30만원 이사관계로 급히 안내, 보살님이 오셔도 좋습니다

019-513-25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인천지역
- 평수: 30평, 3층건물 3층
- 옥상 50평 사용가능 법당, 방, 베란다, 후원 완벽함
- 주변에 절이 없으며 약 10만세대 입주예정 포구에서는 배 300척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됨

010-7181-756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법당, 요사채3채, 총 760평
- 창고, 방4개,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 2억 천만원

011-562-9873
055)883-8846

사찰 (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제 • 부지 : 약 1350평정도
- 대웅전 약50평, 목조기와 단청필. 요사채 40평 불사할 것 많습니다. 범종각, 선방, 산신각, 칠성각 등 신축건물 1.2층 90평 정도
- 앞은 바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상가 등 뒤는 산,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 종단 총본산을 하시든지, 불교적 큰 꿈을 가지신 분을 찾습니다
- 가액 : 14억 5천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12월말 개통, 교통편리

011-9327-7932

사찰,선방(터)안내

- 위치 : 거창군 북상면
- 마을과 떨어져 있음. 앞산은 덕유산 입구에 계곡과 소폭포 있음. 토목공사 완료
- 논 867평(평당 20만원)

055)963-2097
011-583-2097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군위 우보
- 평수 169평
- 가액: 3천8백만원
- 배산임수 명당절터 마을맨 끝집

011-9585-4908
054)383-8553

별장식 사찰 안내

- 위치 : 이천시(중심가)
- 대지 175평, 법당 30평(1층), 요사채(2층건물)
- 가액 : 3억3천만원
- 특징 : 사찰뒤 산이며 앞은 이천시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좋고, 교통편리한 새절입니다.

(공찰 주지소임관계로 새로 사찰을 건립하고자 하는분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016-510-3455

사찰(급)안내

- 법당, 요사채, 용궁, 전답
- 전세 : 2,200만원

018-406-3073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아파트)
- 평수 : 17평
- 현재 법회운영중
- 가액 : 7천5백만원

011-9036-9993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남
- 요사채 50평, 법당50평
- 보증금 2,500만원 월 160만원 시설비 절충

010-7163-539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파계사 입구 마을
- 대지: 180평
- 건물: 한옥(법당사용) 건물 1채, 신축황토찜질방 1채
- 가액: 7천만원 답사후 가액 절충可

011-540-1004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법당: 45평
- 특징: 소원불(천불) 모셔져 있음
- 가액: 3억7천만원 답사후 가액 절충可

017-531-2888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파동 가창교 부근
- 대지 60평
- 법당 삼존불, 방6, 부엌2개
-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또는 보증금 5천만원/월30만원 양도가 : 1억 7천만원

011-9357-5677
053-768-578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대지 235평
- 법당 요사채 각 18평
- 가액: 1억9천만원 상담후 결정

- 위치: 경남 고성읍 죽계리
- 전세 3천만원 월 50만원

011-879-7551

사 찰 안 내

- 부산시 서구청 뒤
- 대지: 약20평 1층요사채 18평, 2층 법당 18평 옛날 기와집
- 가액: 9천5백만원 (융자 3천만원)
- 특징: 국제,새벽,자갈치 시장 5분거리
- 노스님이나 비구니스님께 적합 약20년된 절

0502-244-3888

포교당안내

- 위치 : 고양시청옆 4층건물중 4층
- 평수: 80평 , 법당: 30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모든시설완비

010-8345-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2동 부산은행 앞 • 평수: 40평
- 삼존불, 모든시설 완벽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일체 2000만원

010-4846-5194
052)295-3700

토 굴 안 내

- 위치 : 마산시 외곽
- 법당1, 방2, 부엌1, 마당 - 전체 50평
- 가액 : 권리금 400만원 (도지세 1년 80만원)

054)956-7706
(오전7시-오전9시 전화요망)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60평 • 요사채 30평
- 구조: 법당 30평
- 가액: 1억8천만원 (절충가능) 은행융자 3천5백만원

011-9543-0226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재
- 전: 1800평
- 건물: 34평
- 가액: 전세 2천만원

017-870-3878

토굴겸 포교당안내

- 위치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대지: 350평
- 건평: 30평
- 가액: 5천만원

011-631-2954
061)533-9046

포교당안내

- 위치 : 안산 상록수 3층건물중 2층
- 평수: 40평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1-226-2880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042)274-0108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영주시 근교
- 대지 180평, 법당 25평
- 불상탱화완비, 산신 칠성각 1채, 요사채 40평 2채
- 가액: 1억2천만원

- 대지: 87평. 일반주택사찰.
- 법당 20평, 불상탱화완비 산신 칠성 용왕각 1채, 공양간 종무실
- 가액: 1억

011-511-0442
010-9378-0774

비구니스님으로 아담한 사찰안내

- 전주시 중심 단독상가주택 1층, 2층
- 대지 110평 8×8미터 코너접 건평 120평 1층상가 6개 2층법당 후불순금탱화 입체 100평, 칠성순금탱화 입체 50평, 신중순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법당, 홍송조각 3단 15자 부처님 삼신불 4자반 자신있게 갖춘도량임 완벽함
- 1층상가6개에서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가액 4억7천만원중 상가 보증금 빼고 2억 6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완료. 융자가능 답사하시여 의논바람

032)667-8485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남구 야음동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걸어서 5분거리
- 건물: 단청 주택 임법당
- 법당, 방2, 주방, 종, 북, 일체완비 시내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곳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수행 하기 좋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15만원

011-9519-9984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진천IC에서 7분거리, 동서울IC에서 1시간대
- 전 550평, 요사채 30평 (요사채 내 임법당 10평) 산신당 4평
- 특징: 마을 근처 구교지내 산 계곡 단독사용

전경 강 배경 좋음, 차량통행가능

- 가액: 1억3천 (전화상담곤란)

016-682-8211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완도군 완도읍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방4개
- 평수 400평 주차장완비
- 집기일체양도 즉시법회가능
- 노스님이나 비구니스님 적합한 도량
- 가액: 6500만원 (전세 3500만원)

010-3120-5730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에서 15분거리
- 대지: 200평 현대식 2층건물 1층 요사채 50평 큰방 5개 화장실, 2층 법당 20평 공양간 20평 창고 10평. 삼존불 아미타불 400불 신중탱화
-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2억

017-548-598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수영(지하철 광안역 대로변)
- 평수: 4층 건물 3층, 4층 3층 요사 30평(방4개, 주방) 다용도실: 40평(시민선방, 요가, 차(茶)실, 기타 다양하게 사용가능). 4층: 법당40평(최고시설)
- 가액: 3층 전세2천만원 월 60만원 4층 전세1천만원 월 40만원

(크게하실분은 3,4층 모두 사용하시고 작게 하실 분은 3층만 사용가능)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7-857-7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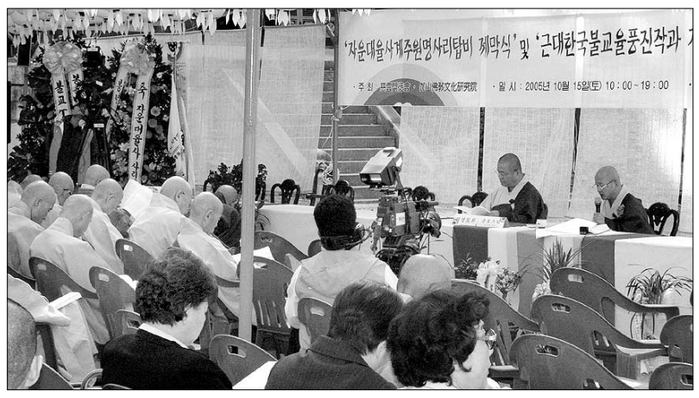
‘율 중흥조’ 자운 스님 업적 되짚어

‘근대한국불교 율풍진작과 자운대율사’ 심포지엄

불교계 대표적인 율사 자운 스님(1911~1992)에게는 ‘근대한국불교의 율(律) 중흥조’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억불책에 위축되고, 일제 식민통치기에 일본 불교의 침탈을 받으며 뿌리가 흔들리던 율의 전통을 크게 진작했기 때문이다.

자운율사의 뜻을 기리고, 업적을 조명하기 위한 특별심포지엄 ‘근대한국불교 율풍진작과 자운대율사’가 자운문도회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공동주최로 10월 15일 서울 경국사에서 처음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인환 스님(前 동국대 교수), 철우 스님(파계사 영산율원율주), 묘엄 스님(봉녕사승가대 학장) 등 내로라하는 율사들과 종단 중진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지관 스님, 종진 스님(해인총림 율주), 혜총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 법혜 스님(동국대 교수), 무관 스님(前 조계종 총무부장),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자운 스님의 업적을 정리 · 발표했다. 발표 내용의 요지를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자운율사의 계맥을 이은 지관 스님이 심포지엄에서 기조법문을 하고 있다.

●계율홍포 통한 교단정화와 승가화합

구한말 이후 승가의 기강은 무너지고 일본불교에 의한 침탈과 타락이 심각했다. 이때 자운 스님은 교단을 정화하고 종풍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운영권과 종단의 재산 회복보다도 ‘계율수지’라고 봤다.

이를 위해 스님은 1948년 문경 봉암사에서 처음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열었고, 1953년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첫 비구계 수계법회를 가짐으로써 청정승가 회복의 기틀을 다졌다.

동산 · 효봉 · 성철 · 청담 · 경산 스님 등과 더불어 교단 정화운동을 주도한 자운 스님은 1954년 전국수좌대표자대회에 참석해 교단정화의 방향과 노선을 정하고 본격적인 정화운동에 동참했다. 정화 과정에서 승가 화합이 위태로울 때는 더욱 계율 엄수를 강조했다.

‘동일갈마(同一羯磨) 동일설계(同一說戒)’ 즉 계내(界內) 전 비구가 모인 여법한 회의와 결의, 그리고 전원이 참석한 여법한 포살의식이야말로 승가의 화합이라는 율장의 가르침대로 자운 스님은 율장을 홍포하고 계율을 강설하고, 율사를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인 승가의 화합을 도모했다.

계율홍포 차원에서 스님은 1951년에 한문본 <범망경> <사미니율의> <비구계본> <비구니계본> 등 5종의 율서를 2만5000권 간행했고, 이후 우리말 번역본 4만8000권을 간행했다. 또한 1951년 통도사에 천화율원을 설립해 출가수행자를 대상으로 율학을 강수했다.

●수계의식 정비

수계의식정비와 관련한 자운 스님의 대표적인 업적은 단일계단 확립과 이부승수계(二部僧授戒) 복원이다.

단일계단법은 각 본사나 사찰별로 율사 스님들에 의해 시행되던 수계산림을 단일화해 종단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계종 첫 단일계단 수계산림은 자운 스님을 전계사로 1981년 개최됐다. 스님은 총 12회에 걸친 단일계단의 수계산림을 통해 비구(니)계 · 사미(니)계 · 보살계 · 재가계를 정비했다.

이부승수계란 비구니가 비구니계단에서 계를 받고, 이어 비구계단에서 다시 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 율장에 따르면 사미니는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의 6계를 받고, 비구니계를 배운 다음 삼사칠증(三師七證)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고, 다시 비구의 삼사칠증으로부터 인증적인 수계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비구 · 비구니가 한자리에서 구족계를 같이 받아왔다.

이부승수계는 1986년 범어사에서 거행된 제7회 단일계단수계산림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로써 율장에 근거한 수계의식 절차가 완성됐다.

●지계와 참회를 근본으로 한 염불수행

자운 스님은 지계와 참회를 근본으로 한 염불수행자였다. 스님은 해인사에 출가해 팔만대장경판전에서 1만 배를 올렸고,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1일 20시간씩 백일간 문수기도를 봉행하기도 했으며, 평소매일 수천 배씩 절을 하는 등 참회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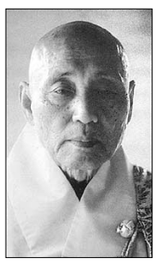
또 매일 고성염불을 10만 번씩 예참했는데, 중국의 도작이나 선도처럼 아미타불명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종자진언과 아미타불본심미묘진언 무량수여래근본다라니 등을 외우며 정진했다. 스님은 다른 불자들에게도 이같은 수행을 권했다.

한국전쟁의 원인을 국민 개개인의 업력이 공업으로 작용한 인과의 도리로 해석하고, 참회를 강조했던 자운 스님은 1951년 감로사에서 자비도량참법, 문수예참 등의 참법 수행을 통한 3000배 참회 법회를 시작했다.

자비도량참법이 한국에 전래된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한국에서는 1106년 10월 고려 예종이 자비도량참법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시대 들어서도 <상교(詳校)정본자비도량참법>이 여러 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참법이 열렸음을 알 수 있다.

자운 스님은 자비도량참법 보급을 위해 참법을 소개한 서적을 여러 차례 간행 · 유포했다. 자비도량참법은 해인사 홍제암을 비롯해 봉녕사 석남사 진관사 감로사 등에서 지금도 봉행되고 있다.

글 · 사진=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자운율사는 1911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1927년 혜운 스님을 은사로 남천옹규 율사를 계사로 사미계를, 1934년 일봉경념(一鳳敬念)율사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만하승림(萬下勝林)-성월일전(惺月一全)-일봉경념-운봉성수(雲峰性粹)-영명보제(永明普濟)-동산혜일(東山慧日)-고암상언(古庵祥彦)-석암혜수(昔岩慧秀)로 이어지는 계맥을 전수했으며, 다시 종수 · 일타 · 지관 · 성우 · 철우 · 정행 · 인홍 · 명성 · 묘엄 스님에게 전했다. 1981년 조계종 단일계단 전계화상으로 추대됐으며, 동국역경원장 등을 역임했다. 계율 홍포와 여법한 제도 확립에 공이 커 율 중흥조라 불린다.

보조사상硏 국제 학술대회 ‘간화선 수행전통…’ 주제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1월 26일 서울 법련사에서 ‘간화선 수행전통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의 간화선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성배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라이용하이 중국 난징대 교수가 중국의 간화선 전통을, 니시무라 일본 하나조노대 교수가 일본의 간화선 전통을 논한다.

또 서명원 서강대 교수가 서구의 간화선을 소개하며, 미국의 간화선에 대해서는 종호 스님(동국대 선학과)이 발표를 맡는다. (02)733-5311

익산왕궁리유적 전시실 개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송의정)는 익산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 전시실을 10월 18일 개관했다.

전시실에서는 익산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왕궁사(王宮寺) · 대관관사(大官官寺)명 명문와, 수부(首府)명 인장와, 연화문 와당, 금제 영락(瓔珞), 유리구슬 등의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익산왕궁리유적은 백제 무왕(600~641) 대 조성된 궁성유적으로 석축성벽의 규모가 남북길이 490m, 동서너비 240여m에 이르는 장방형 성벽으로 구획돼 있으며, 1989년부터 4차 5개년 계획으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발굴을 통해 출토된 새로운 자료를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할 예정이다.

‘불교와 性’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평론’ 2005년 가을호

욕망 끊기와 깨달음의 관계성 탐구

창간호~23호 CD로…구독사은품

늘 신선한 담론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불교평론>이 이번에는 ‘불교와 성’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들고 찾아왔다. <불교평론> 2005년 가을호는 ‘불교와 성’을 특집주제로 다뤘다.

<불교평론> 주간 조성택 교수는 권두언에서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불교계의 수팽풍토와 욕망을 긍정하기 시작한 근대 이후의 시대정신이 어울려 ‘불음(不淫)’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며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불음의 윤리를 철저하게 실천함으로써 출가자 본래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고, 전통적인 계율이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불교현대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할 수 있다”며 “불음의 문제를 더 이상 뜨거운 감자로 외면하기보다는 구성원 내부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철저한 준수 또는 폐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집은 ‘율장을 통해 보는 욕망끊기’(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 ‘밀교와 성에 대한 이해’(정성준 동국대 강사), ‘정신과 상담을 통해 살펴 본 불교와 성’(최훈동 한별정신병원장), ‘불교영화 속의 섹스, 어떻게 볼 것인가’(송희복 진주교대 교수), ‘불교미술에 나타난 성’(박영택 경기대 교수), ‘불교문학은 여성을 어떻게 보았는가?’(임종욱 청주대 교수) 등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가을호에는 특집 외에도 율곡과 어느 노승이 나눈 대화를 통해 불교와 주자학의 철학적 만남을 읽어낸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1554년 금강산, 청년 율곡과 어느 노승의 대화’를 비롯해 변희욱 서울대 강사의 ‘간간화선, 간화선 다시보기’,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의 ‘고인 고통을 걷어내니 맑은 내가 있구나’ 등 다양한 논문과 수필, 서평 등이 수록됐다.

<불교평론>은 이번 가을호부터 현대불교신문사가 발행한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불교평론> 창간호에서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CD로 수록, 구독신청자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02)2004-8211

조선시대, 문중 중심 선법 확립

한국불교학회 · 선학회 추계학술대회 열려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선학회(회장 현각)와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가 각각 10월 20일(동국대)과 21일(충남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고려시대 선사상의 특징’에 이어 금년 한국선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조선시대 선사상의 특징’이 주제로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각 스님(동국대 교수)은 조선시대 선법의 특징을 △문중 중심 △인물 중심 △사구화(死句化)로 규정했다. 현각 스님은 조선시대의 배불정책이 선사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했고, 그 결과 법맥 중심의 문중개념 선법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1424년부터 1504년까지 83년간 선교양종체제가 어떻게 운용됐는지 살폈다.

이에 따르면 선교양종 본산의 수장인 판사는 태고보우의 문손보다는 나옹혜근의 문손이 장악했던 것으로 나타나 조선전기 불교계는 나옹혜근 문손이 주도했음이 확인됐다. 황 교수는 “선교양종 판사급 고승들은 유생들로부터 심한 탄핵을 받아 순교를 당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며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불교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욱씨(고려대 강사)는 허응당 보우(?~1565)의 사상을 ‘선교일치’와 ‘유불일치’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씨는 <일정론>과 <경암명>에 나타난 허응당 보우의 사상을 근거로 허응당 보우가 유불일치를 넘어서 유교와 불교의 결합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평래 충남대 교수의 기조발표 ‘이 언덕과 저 언덕을 잇는 뗏목, 여래장’으로 막을 올린 한국불교학회에서는 이만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의 ‘신라 원효의 <승만경소>에 관한 연구’ 차승후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Abhidharma-Samuccaya에서 설하는 12연기설’, 유진스님(동국대 교수)의 ‘돈황본 <단경>의 선병에 대하여’ 등이 발표됐다. 박익순 기자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0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 에서 강의

개강안내 11월 10일 10:00~18: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같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 주 명리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일주문



'장보고와 불교' 학술대회 개최

제주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은 10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장보고와 불교' 주제 학술대회를 연다.(064)738-5225



광주 전남 불교 합창제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혜향 스님은 10월 26일 오후 7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전남 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062) 376-3223



서각·서예 전시회

장수 도성암 주지 송강 스님은 10월 19~25일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서각·서예 80여점을 선보이는 개인전시회를 개최했다.



소아암 환자돕기 한마음합창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10월 30일 오후 3시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소아암환자돕기 한마음합창제를 개최한다. (052) 295-1884



남경중의약대 한국총장 재임명

삼화불교대학장 혜인 스님은 9월 26일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국총장에 재임명됐다.

서울불청 신임회장에 김대원씨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시해 바람직한 불자청년의 모습을 확립하겠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산하 서울불교청년회(이하 서울불청) 제19대 회장에 김대원씨(42·사진)가 당선됐다.

김 회장은 10월 19일 서울 대각사에서 진행된 서울불청 회장 이·취임식에서 "70~80년대에 비해 불자청년들의 활동이 많이 침체되면서 서울불청의 규모도 작아졌다"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불청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마라톤 대회나 댄스경연 대회 등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이벤트대회를 통해 불자청년들을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상담교화팀을 편성, 불자 청소년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은비 기자

"종교 초월해 나눔운동 동참"

'사명당의집' 후원 나선 박완서씨



"'작은손길'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사진)이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문화공연장에서 열린 작은손길 사명당의집 후원의 밤에 나타났다. 박완서 선생은 작은손길 김광하 대표의 장모. 박완서 선생은 "마음속으로는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위가 자선사업에만 열심인 것 같아 걱정도 된다"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박완서 선생은 평소 생각하던 '나눔의 의미'에 대한 강조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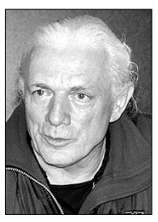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절이 있지요. 이런 나눔의 정신은 불교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완서 선생은 이어 "영상으로 노숙인들이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는 것을 보니 어서 빨리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될 것 같다"며 사명당의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작은손길은 현재 동대문구 신설동 일원에 새 시설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02)924-1010, 후원: 조흥은행 397-01-098367(예금주 작은손길) 유철주 기자

"몽골 불교예술 만날 기회 기대하세요"

몽골 탕카 한국전시 추진하는 글렌 멀린씨



"한국과 중국, 서남아시아, 유럽을 잇는 교역의 중심으로서 몽골 불교는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몽골에서 불교 부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캐나다인 글렌 멀린씨(사진). 최근 방한한 글렌씨는 내년 몽골 불교 성립 800주년을 맞아, 몽골 탕카 서울 전시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몽골 탕카는 티베트불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 이라크 터키 등 서남아시아의 예술기법까지 수용돼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멀린씨는 "몽골불교는 실크로드를 통해 오랫동안 한국불교와도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며 "이번 전시회는 한국문화와 몽골문화를 한눈에 비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글렌 멀린씨가 몽골불교 부흥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90년대 초. 함께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불교 공부를 했던 몽골인 도반의 영향이 컸다. 멀린씨는 자연스럽게 몽골불교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됐고 소련이 붕괴하고 독립의 기운이 무르익자 몽골불교를 되살리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는 몽골에 유일한 여성 수행자 전통을 복원하는 일. 멀린씨는 "몽골불교는 공산치하 70년 동안 철저히 탄압을 받았지만 여전히 몽골인 심성 속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여성 수행자 전통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내달 '초의차명상원' 개원

지장 스님, 직접 강의도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키우는 공간으로 가꾸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차와 명상이 만나는 '종합웰빙공간'이 문을 연다. 지장 스님(사진)은 11월 8일 종로 두산위브빌딩에 초의차명상원을 개원하고 '차명상'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30여 평 규모의 명상원은 다실과 강의실로 구성되며, 점심시간이나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전통찻집으로도 운영된다.

강의는 초급(3개월), 중급(3개월), 고급(6개월), 지도자반으로 나눠지며 매주 두 차례 이론과 실습, 상담이 각각 40분씩 진행된다.

차 명상 강좌와 더불어 매달 다도교육, 고전 강독 등의 문화강좌도 열린다. (02)733-7209 여수령 기자

이필이씨 제16회 경남예술인상 수상



이필이(70·전 경남무용협회장·사진) 보살이 경남예총에 의해 제16회 경남예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남예총은 "한국무용협회 마산지부를 창립해 '경남무용'의 탄생에 산파역할을 하는 등 경남무용 위상 정립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필이 보살은 총지종 마산 운천사에서 20여 년간 수행하며 봉사활동을 해온 신심 돈독한 불자다. 시상식은 10월 20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렸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전기금 마련 선서화전 성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10월 19~25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중앙신도회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불교 선서화전'을 개최했다. 구산·일타·혜암 스님 등 한국불교 근현대의 고승들이 남긴 선서화 작품 등이 선보인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중앙신도회는 신도회관 건립기금 마련과 재정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자운율사사리탑비 제막식



자운대율사계주원명사리탑비 제막식이 10월 15일 서울 정릉 경국사에서 봉행됐다. 자운문도회와 가산불교문화원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율사의 율풍 진작 대원력과 수행공덕을 대중에게 회향한다"고 말했다.

평양 광법사에서 남북합동법회



조계종 민추본과 천태종, 북한 조불련은 10월 16일 평양 광법사에서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100여명의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민추본 상임집행위원장 학담 스님은 "평양서 남북 불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지종 서울 관성사 헌공불사



총지종 서울 행촌동 관성사 헌공불사가 10월 17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본존제막, 개식사, 육법공양 순으로 진행된 이날 헌공불사에서 효강 총지종 종령은 "대자대비의 마음문을 열어 보살도 실천에 일심 정진하자"는 법어를 내렸다. 관성사는 연면적 169평 규모다.

청담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청담복지관(관장 혜성) 개관 1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14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청소년들의 공연, 개관10주년 경과보고, 직원표창 및 이동목욕센터 개소식 등으로 이어졌다. 관장 혜성 스님과 능인복지관장 법등, 옥수복지관장 상덕 스님 등과 주민 250여 명이 참석했다.

병불련 구례에서 추계의료봉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추계의료봉사가 10월 15~16일 구례군 마산면 청천초등학교에서 펼쳐졌다. 전국 병불련 회원 55명은 이날 내과 외과 안과 치과 등 5개 진료과목에서 인근 500여 주민의 병을 치료했다. 병불련 불자들은 15일 구례 화엄사에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신심을 다졌다.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종선사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 드립니다.

"천문을 열어라" 책값 : 20,000원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뜬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쓸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명중 8,9명 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요실금이 없어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어 남편 바람날 염려없고 전립선이 좋아진 남자는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니 이러한 신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 내 나이 75세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들의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씌워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 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충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부터 2주간은 서울 수련원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답십리 고미술상가 2동 맞은편에 있습니다.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 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올림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철새축제와 '인과 법칙'

'비상'이라는 영화는 이동하는 철새들의 비상의 날개 짓 만을 2시간 가까이 보여주는 영화로 관객은 아무도 이를 지겨워하지 않으며 몇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 한다. 철새의 군무는 그렇게 보는 이의 마음을 순화시켜주는 멋진 볼거리다.

각종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많이 훼손되기는 했으나 아직 이 땅에는 여러 곳 멋진 철새 도래지가 있다. 깊어가는 가을, 단풍도 좋지만 사람들은 그 철새의 군무를 보러 철새 수만큼이나 많이 그곳을 찾는다.

하늘을 덮는 몇 만, 몇 10만 마리 새 무리의 군무를 본 사람 가운데는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다. 자연과의 혼연일치라 할까?

그런데 올해는?

어쩐지 꺼림칙하다. 조류독감이라는 복병 때문이다.

지난 1년, 가을 한철의 철새축제를 정성껏 준비해 온 도래지 현지인들은 그 꺼림칙함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철새가 다니는 길을 따라 조류독감이 퍼질 수 있다는 의심의 눈길이 행여 관광객의 발길을 끊을까 해서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철새 기피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철새를 보면 공포탄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이전까지는 철새 먹이라면서 자랑스레 일부러 남겨두던 곡식들을 지금은 철새가 벼이삭을 먹어치운다는 불만으로 변하기도 한다. 인근 닭, 오리 사육농가에게는 철새가 위협적인 존재로 변하고 말았다.

동물학자들이 조류독감은 철새 아닌 닭, 오리, 칠면조 등 사람이 사육하는 조류에서 발생하므로 철새 도래지가 위험한 곳은 아니라 주장하지만 꺼림칙함은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무리 보아도 물리지 않는 저 자연의 장관을 외면해야 할까?

에이즈 에볼라 사스 광우병 조류독감 등등 지난 세기부터 지구에 등장한 신형 바이러스는 전혀 신형이 아니고 태초의 생명 탄생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럼 왜 현대에 접어들면서 인류 앞에 모두들 커밍아웃인가?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인과율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

이들은 생명기원 때부터 삼림 속 원숭이 쥐 박쥐 등 동물의 자연 숙주로 그들의 체내에서 말썽 없이 공존해 온 생물이다. 오랫동안 밀폐 상태에 있든 바이러스를 환경파괴로 삼림 밖으로 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인류다. '환경파괴 있었으므로 신종 바이러스 뜨다.'인 것이다.

새로운 환경 속 생존을 위한 바이러스의 몸부림이 지금 신종 바이러스의 파괴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철새들이 사람들로부터 느닷없이 병원균 취급을 받게 된 것인데 일부 전문가나 학자의 주장처럼 '지나친 공포감 조성'이 만들어 낸 억울한 누명일 수도 있고, 호들갑스러운 인류의 변덕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다. 서산 천수만 등 철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주최 측에서는 이미 일대에 소독을 마쳤고 바이러스 보유 가능성을 의심 받고 있는 조류똥으로부터 관광객들을 보호할 준비도 해 놓았다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경고도 무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철저한 대비책이 따라야겠지만, 이 땅의 과객, 철새들이 앞으로 한달너머 펼쳐 보여 줄 그들의 비상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카타르시스야 말로 이 난세의 정신적 자양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개성의 유서 깊은 사찰이자 고려의 일급 사찰중의 하나인 영통사를 천태종의 지원으로 복원하고 10월31일 드디어 낙성식을 거행한다는 희소식이 들린다. 많은 남한의 신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여 뜻 깊은 역사(役事)를 축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종교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남북 교류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역사적 의의가 있다.

현재 불교계에서 이루어진 남북교류는 조계종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 더불어 사찰의 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와 문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남북교류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있다.

영통사는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찰이다. 인종을 비롯하여 많은 고려의 여러 임금들이 이 사찰에 행차하였고, 고려 임금들의 초상화가 이 절에 모셔졌다.

더군다나 왕족출신으로 천태종을 창립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이 절에서 출가하여 이 절에서 입적한 인연은 이 절의

영통사 복원의 의미

역사를 한층 빛내고 있다. 그동안 이 절은 폐허가 되어 1125년 의천 스님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영통사대각국사비와 3기의 고려시대 탑들만이 이 절의 역사를 전하고 있었는데, 천태종의 노력으로 영통사의 역사가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27동이나 되는 건물을 1년 만에 그것도 시멘트로 지었다는 소식에는 왠지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선다. 오랜 역사의 숨결을 갖고 있는 문화재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가장 원형에 가까운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목조건물을 시멘트로 지어 외형만 살리고 목조건물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비용과 공사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겠지만, 전통의 사찰은 원래대로 목조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만 보완된다면 영통사 복원은 그 의미가 한층 더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신계사 복원에 이은 영통사 복원으로 남북불교 교류의 새 장을 열게 됐다. 두 사찰의 복원을 남북불교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두 사찰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유서깊은 옛 사찰들도 여법하게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병모(경주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기러기 아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모든 사물은 여러 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고, 모든 성자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화엄경>

자녀 유학을 위해 자녀와 아내를 미국에 보내놓고 홀로 지내던 한 50대 가장이 숨진 지 5일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과 유학비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담배로 달래다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조기유학이 늘면서 가족 간에 생이별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아내는 외국에서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 식의 역할분담이다. 수년을 그런 식으로 헤어져 살다보니, 한국에 남은 남편은 외로움에 지쳐가기 마련이다.

초중고 조기유학생이 2만920명, 유학·연수비용이 연 10조원. 적지 않은 학생이 해외로 나가 엄청난 비용을 뿌려대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영어실력이 진학과 취업에 큰 프리미엄이 되는 현실, 내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맞물려 빚어낸 현상이다.

근대화시기에 교육열은 한국의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대학을 상아탑이 아닌 우골탑으로 부를 정도로 교육열은 뜨거웠다. 그때 부모가 소 팔아 대준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녔던 이들이 이제 자녀를 위해 기러기아빠 신세를 자처하는 셈이다. 조기유학이 아니더라도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부모는 돈 버는 기계로, 자녀는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하고, 가족관계는 왜곡되기 십상이다.

이처럼 가족관계를 왜곡하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교육열이라면 곰곰이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그 같은 교육열은 '내 것'이라는 망상과 더 많은 것을 가지려하는 욕망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구조만 탓하고 그에 맞춰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박익순(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 윤리 논쟁을 보며 이종린(홍익소아과 원장)

수정란은 '생명현상', '생명'과 달라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깊어질수록 생명윤리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은 상당 부분이 '생명 현상'과 '생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해가 아닌가 한다. '생명현상'과 '생명'은 엄연히 다르다. 가령 달걀 껍질이 숨쉬는 것은 생명 현상이지 생명이 아니다. 회를 뜬 활어 아가미가 숨을 쉬는 것 역시 생명 현상이지 생명은 아니다. 손톱이 자라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배아를 파괴하는 것이 곧 바로 생명의 파괴인가? 둘째, 인간 복제의 우려이다. 기독교에서는 생명을 수정 순간으로부터 보기 때문에 배아 파괴는 명백한 살인이라는 것이다.

그럼 과연 불교의 입장은 어떨까? 불교에서는 육신 그 자체를 생명으로 보지는 않는다. 반드시 육신에 마음(識, 일종의 영혼)의 결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실은 '송장도 눈이 있는데 왜 못 보느냐?'는 불경의 경구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은, 과연 마음이 언제 육신에 결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수정란 자체에는 마음이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수정란 자체는 생명 현상일 뿐이요 생명이 아니다. 따라서 하등의 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 없다. 필자가 알기로 불교에서는 크게 수정 후, 임신 중, 출생 직후의 세 시기에 마음이 육신과 결합하는 것으로 말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두 가지는, 인간 생명체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불교의 경론은, 첫째, 수정체가 반드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일 것, 둘째, 어머니 태중에 안착이 된 상태일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경론이 만들어질 때엔 현대와 같은 복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배아는 핵 이식 과정에서 태아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든가, "복제배아가 성장능력이 없다"는 등의 현대 과학의 연구결과를 보면 인간의 탄생 조건은 보다 엄격한 정자-난자의 결합이 전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정자-난자의 결합이 아니면 동물은 몰라도 인간은 탄생되지 않는 것이다.

자궁의 착상 여부는 생명의 정의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 역시 경론에는 두 가지 형태로 설명된다. 하나는 인간의 탄생, 성장을 설명할 때 경론은 반드시 태(胎)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 또 하나는 무소불위의 영혼이 통과 못하는 장애물로 '부처님 품'과 '어머니 자궁'을 드는 점이다.

실제 시험관 아기의 성공에도 자궁의 착상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수정란의 자궁 착상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많은 수정란이 필요하며, 일단 착상이 성공하면 남은 수정란은 버려지게 된다(사실 이렇게 폐기되는 수정란이 현재 배아 복제의 주요 공급원이다. 버릴 수정란으로 난치병 치료에 쓰일 배아를 만드는 것임). 수정란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사실은 유정란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유정란 자체는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닭은 난생(卵生)이므로 부화가 필요한데, 인간 같은 포유류는 태생(胎生)이므로 따라서 자궁의 안착은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궁 착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마음과 육신이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수정란은 '생명 현상'이지 '생명'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문명의 이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문명이 갖는 태생적 한계이다.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그와 함께 성장하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력으로 극복할 문제이며 인류는 그러한 지혜를 이미 충분히 증명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있을지 모르는 미래의 부정적 부분을 우려하여,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현대'만평 심 민 섭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참가업체 모집 국내 최초의 불교산업 전문 전시회에 참가업체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 최대규모의 종교산업 전문전시회

2006 한국불교박람회



2006. 3. 23(목) ~ 3. 26(일)

서울무역전시장(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참가신청: (02)736-0993

www.bexpo.org

전시분야

사찰건축 및 첨단포교

사 찰 건 축 : 종합건설, 석재, 목재, 황토, 조경, 난방, 기와, 전기, 조명, 단청, 불화, 창호, 사찰장식, 조립식건축, 지하수개발, 간판(안내, 게시판) 등

유 지 보 수 : 성보보수(목재, 석조, 기타), 보호제(방습, 방충), 방범(방범시스템, CCTV), 방재, 금고, 안전문, 안전망, 강화유리 등

첨 단 포 교 : 음향(앰프, 스피커), 조명, 인터넷전용선, 홈페이지 제작관리, 종무프로그램, 위성방송, 홀로그램 등

장례문화, 사찰행사 및 기타

장 례 문 화 : 납골관련 특별전시관, 불교장례문화 소개 등

행 사 기 획 : 행사종합기획, 출연자(협회 및 공급자), 음향, 조명, 무대설치, 기념품, 여행사, 현수막 및 행사소품 등

불 교 용 품 : 불상(청동·금·목조), 범종, 법고, 목어, 목탁, 죽비, 요령, 연등, 제기, 불교음반, 도서, 기획출판, 사보, 향, 초(일반·기능성), 염주, 표구, 액자, 승복, 좌복 등

종단 및 교육 : 각 종단 특별전시관, 종립학교 및 각종 관련 학교 교육전시 등

상 담 지 원 실 : 종단 및 사찰 종무행정, 법무, 세무, 각종 인허가, 템플스테이 등

기획 전시 및 전통차, 웰빙관

전 통 차 : 녹차, 보이차 등 각종 차 및 다구

친환경 먹거리 : 사찰 특산물, 채식, 친환경 농산물, 생식 등

웰 빙 관 : 명상, 요가, 선무도, 불무도, 선 실수 등

야외 전시 및 부대행사

특 별 공 연 : "BBS 특별 공개방송", "불교와 국악의 한마당"

야 외 전 시 : 야외전시장 특별운영

주최 : BBS불교방송, (주)제이컨벤션 주관 :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

자연을 빚고 정직함을 굽죠

국내 유일의 사기장(중요무형문화재 105호)

김정옥

정호다완 재현한 도예부문 초대 명장

속도의 시대다. 눈 깜빡할 사이 세상은 변하고 조금이라도 머뭇거렸다가는 시대에 뒤쳐지기 십상이다. 좌우를 살펴볼 여유조차 없는 현대인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이외엔 아무 것도 아니다. 자연, 변화는 '진보'가 되고 전통은 '구태'가 된다.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 그는 맨발로 흙을 반죽하고 자신의 몸으로 물레를 밀며 나무와 불의 조화를 살펴 가마를 지핀다. 한 줌의 흙은 그의 손을 거쳐 세월의 무게와 진정성을 간직한 조선의 그릇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릇을 빚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나머지는 온전히 자연의 힘"이라고 말하는 김정옥 명장(64 · 영남요 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기능 보유자). 그에게 전통은 당위와 의무로 덧씌워진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아스라한 추억의 한 자락이 아닌 현재의 생활이자 삶이다.

"지금이야 명장이니, 장인이니 해서 기술을 인정해 주지만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쟁이'라고 해서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도공이었습니다. 힘들고 배고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지만 흙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내 삶이 돼 버린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흙의 세계에 뛰어든 그는 평생 흙을 만지며 끝없는 수련과 노력으로 1991년, 조선시대에 만들어져 일본에서 국보로까지 지정된 정호다완을 재현, 도예부문 초대 명장이 됐다. 이후 96년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으로 지정됐다. 현재 그의 작품은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박물관과 캐나다 로열온타리오 박물관에 상설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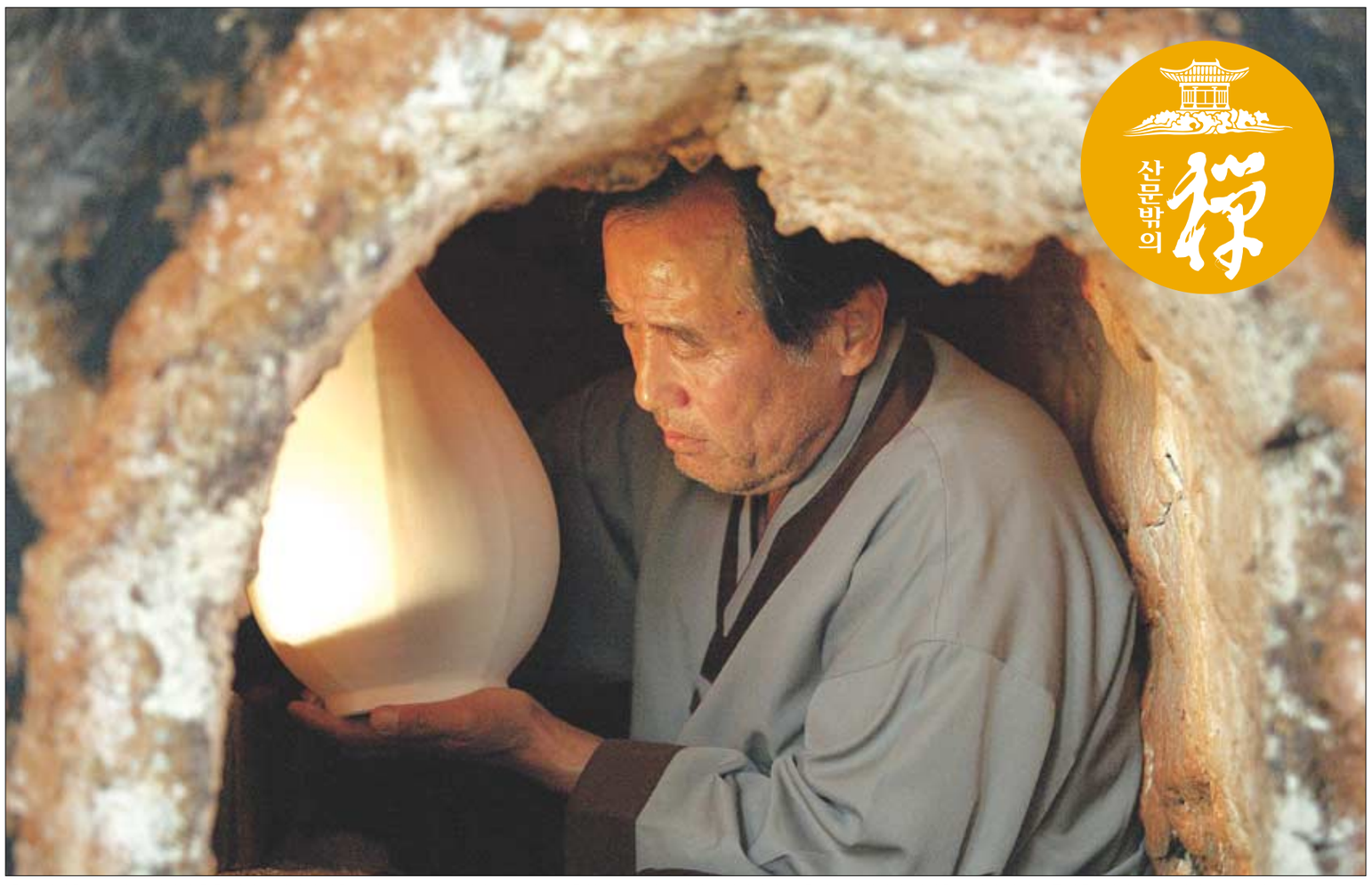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좋아해주는 이유는 바로 이 '보편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고 소박한 멋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선조들의 정성을 담고자 한 노력을 알아준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전통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도자기를 빚고자 하는 마음에서일까. 그의 작업실에는 자신의 호를 딴 '백산선방(白山禪房)'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비록 몸은 속세에 있지만 그릇을 만들 때만큼은 선방에 앉아 용맹정진하는 스님들과 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장의 마음가짐이 느껴진다.

"감히 '선방'이라는 말을 쓴 까닭은 무심(無心)에서 탄생하는 것이 도자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은 그릇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니만큼, 잡념을 버리고 작품에 몰입하자는 뜻이죠."

김정옥 명장의 도제 방식에서도 깨달음을 향한 치열함이 느껴진다. 많은 도공들이 오랜 세월 제자를 가까이 두고 가르치는 촐저한 도제식 수업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김 명장이 제자를 데리고 가르치는 기간은 1~2년, 길어야 3년을 넘지 않는다. 기초만 튼튼하게 익히고 나면 독립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김 명장의 지론이다.

"남의 밑에 있으면 자신이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자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스승은 곁에서 제자의 풀리지 않는 의문을 해결해 주는 보조자 역할이죠."



흙은 거짓을 모른다. 그러기에 흙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맑고 순수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욕심이 붙으면 도자기에 어김없이 그 욕심이 나타난다. 김정옥 명장이 자신의 공방을 '선방(禪房)'이라 부르는 이유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에 상설 전시
조선조부터 240여년 이어온 '가업'
스승은 보조자, 스스로 익히고 깨달아야
"마음 비우는 것이 좋은 그릇 만드는 비결"

인간적인 풍모와 수수하고 소박한 형태를 간직한 백자의 전통을 이어 온 '백산도자기'에 대해 어떤 이는 "가마에서 나오는 순간 수백 년의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했다. 지금 여기의 작품이지만 거기에는 수백 년 이어져 온 세월의 무게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는 뜻이리라.

"도자기는 보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월에 따라 그 감상이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 보더라도 싫증나지 않고 정직함과 자연스러움이 배어나는 그릇을 굽는 것이 제 평생의 화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겠죠?"

인연을 중시해 사람을 대할 때도 예(禮)와 신의(信義)를 다한다는 김 명장은 틈틈이 충주 미륵사지 마애불을 친견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부처님 앞에서 '왜 작품을 하고, 어떤 작품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묻다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전 제가 최고라는 생각은 해 본적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욕심을 버리고 '도자기'라는 화두 하나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제게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거짓을 모르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김 명장. 조선백자의 순박함을 닮은 그에게서 전통의 숭고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문경=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7대째 이어온 도예가문의 명장

■ 김정옥 명장의 장인(匠人) 계보

김정옥 명장의 집안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7대째 이어져 오는 도예가문이다.

조선 영조 때 경북 문경 관음리 출신의 초대 김취정으로부터 시작된 도예 핏줄은 광표-영수-락집-운희-교수 그리고 김정옥 명장에게까지 240여 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김 명장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가업을 이으라고는 강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좋아해야 배울 수 있지, 남이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 바로 '흙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한 뒤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던 아들 경식(38)씨. 그도 도공의 핏줄을 거스르지 못한 탓일까? 지난 1995년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고향을 찾아 지금껏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며 8대 도공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160여년 전 5대조 김영수 도공이 지은 망댕이 가마는 현재 경북민속자료재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고, 240여 년간 그릇을 품어낸 물레는 여전히 김정옥 명장의 작업실을 지키고 있다. (054)571-0907



■ 불교를 잘 아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현불

현불 프리미엄 불교 성지 순례 | 중국 - 4대 성지를 찾아서…

제1탄 관음성지
항주, 녕파, 천태산, 보타산 5일
11월 7일 출발 | 접수마감 : 10월 31일
동참금 : 80만원
비자비용별도

■ 전일정 특급호텔 투숙
■ 불교를 잘 아는 현대 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의 수준높은 불교성지 순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불교4대성지순례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항주 도착 국청사,지성산,지공원참배 녕파 도착
제2일 보타산 보제사, 법우사, 혜제사, 관음대불(법회), 법음동, 자죽림
제3일 낙가산 보타산 녕파 도착 천동사 참배
제4일 아유왕사 참배 항주 이동 서호 유람, 영은사, 육회탑견학
제5일 항주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육회탑 영은사 서호 영은사입구

현불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HE HYUNDAE BULKYO TRAVEL TEA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접수처 : TEL 02)2004-8295~6 | 사업팀 최언규(원각) 팀장 : 018-366-1002
협력사 미문여행사 02)722-8111

현불 프리미엄 불교 성지 순례 | 부처님의 땅, 인도 -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불교를 잘 아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수준높은 인도 불교 성지순례
'프리미엄 인도 12'

인도 불교 성지순례
부처님의 발자취 인도 12일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델리 도착
제2일 간디 화장터, 자마마스지드(회교사원) 시크교사원, 인도문, 인도정부빌딩
제3일 갠지스강 보팅 녹야원 싸르나트박물관 중국사원
제4일 부다가야 금강보좌 니련전하
제5일 나란다 대학, 라지기르 도착 왕사성, 영취산 영산회상, 죽림정사
제6일 유마경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바이살리 순례
제7일 부처님의 열반지 쿠쉬나가르 열반지 순례 열반지, 다비터
제8일 부처님 성장지 카필라성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네팔 관광 | 마야데비사원, 구룸붓 순례, 아숙칼라 순례
제9일 사헤트/마헤트 방문 앙굴리 마라터, 간다쿠티/ 보리수 참배
제10일 아그라 타지마할, 더얄박사원
제11일 델리투어 연꽃사원 차탈푸르 흰두교사원,쿠툽탑
제12일 델리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11월 28일 출발 | 접수마감 : 11월 15일
동참금 : 230만원
비자비용별도

■ 전일정 특급호텔 투숙
■ 불교를 잘 아는 현대 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의 수준높은 불교성지 순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지마할 아그라 성 싸르나트 마메크탑 부다가야 대탑 쿠쉬나가르 열반당

■ 지사 / 지국 안내 : 부산지사 부산 동구 범일2동 830-50 정욱빌딩 503호 (051)632-0064 / 대구지사 대구 수성구 중동 532-274 053)768-8008 / 호남지사 광주 서구 치평동 210-6 062)375-9986 / 대전 · 충북지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043)732-5560 / 울산지사 울산 남구 신정3동 195-4 홍원아파트 C-301 052)272-0909 / 경남동부지사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213 용정사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경남 진해시 충무동 25-11 055)547-3469 / 영주지국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1 054)634-3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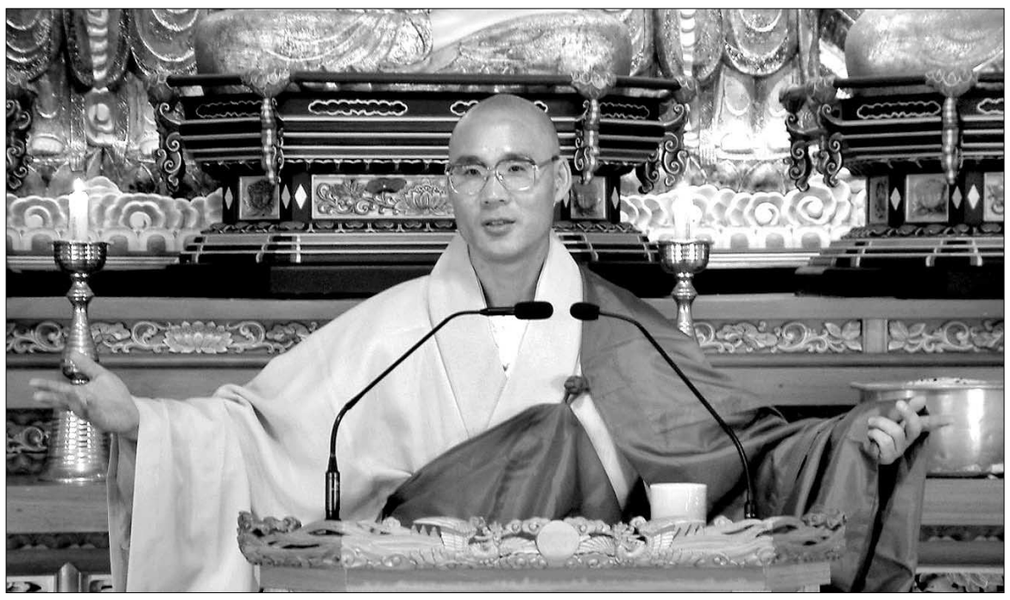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와이 무량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3)

주제:간화선의 기초수행-좌선법

법주:영진 스님(전국선원대표자회의 의장)



영진 스님은 내가 본래 깨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화두의 시작이며 간화선의 생명은 크게 의심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와이 무량사 신도들은 매주 일요일을 기다린다. 하와이 무량사 창건 30주년과 문화원 준공기념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해외에서 선원장 스님들을 만나뵐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일요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무량사를 찾는다.

하와이 현지 시각으로 10월 9일은 세 번째 간화선 법회가 열린 날. 오전 10시에 법회가 시작되지만 한시간 전부터 무량사 설법전에는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법주는 조계종 전국선원대표자회의 의장 영진 스님. 주제는 '간화선의 기초수행-좌선법'이다.

청법가에 이어 법좌에 오른 영진 스님은 잠시 신도들을 둘러보았다. 법회에 동참한 신도들은 영진 스님과 눈을 맞추며 깨달음의 갈망을 드러낸다. 영진 스님은 동참 대중의 근기를 파악이라도 하듯 웃음을 지으며 법문을 시작했다.

'내가 본래 깨친 존재'라는 믿음에서 출발

"오늘 이 법회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앉아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행법-기도, 염불, 만행 등에서도 으뜸인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법당을 울리자 신도들은 더욱 진지해졌다. 간화선이라는 수행법이 생소해서일까? 신도들의 눈동자에는 온통 영진 스님의 모습이 영롱하게 반추되고 있었다.

"내가 본래 깨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화두의 시작입니다. 또한 부처님과 스승님에 대한 믿음도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 부처님과 스승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심을 하고 화두를 통해 의정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크게 의심을 내면 크게 깨닫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분심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분심은 용맹정진하는 분발심입니다."

영진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는 내내 신도들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영진 스님은 또 깨달으면 어떤 경계가 와도 끄달리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으며 고통이 와도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죽음이 와도 생사 문제를 초월할 수 있으니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저녁에 잘 때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피곤한 몸을 누이면 내일이 온다는 확신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하지만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지만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말고 열심히 수행정진하세요."

평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신도들은 죽음만큼 중요한 것이 깨달음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아는 듯 했다. 법문이 진행될수록 신도들의 허리는 더욱더 펴지고 있었다.

스님의 열기가 설법전에 가득했다.

물 흐르듯 법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진 스님은 만공 스님의 일화를 소개했다.

"만공 스님이 결제 법문을 하려는데 어떤 꼬마가 불쑥 법좌 앞으로 뛰어 나왔습니다. 만공 스님은 꼬마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5살이라고 하자 만공 스님은 5살 이전에는 몇 살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4살 이전, 3살 이전을 물은 스님은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법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하며 법좌를 내려왔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큰스님의 일화지만 신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내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들어있다. 영진 스님은 만공 스님의 일화를 통해 하나의 화두를 청중들에게 넌지시 던진 셈이다.

의심 나면 용맹정진의 분심 절로 일어

"화두 수행을 하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화두를 들다보면 망상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때 망상을 버릴려고 하면 더 큰 망상이 일어나죠. 번뇌망상이 생길수록 화두를 더 굳건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내십시오. 내가 부처인 것을 믿고 화두를 들다보면 망상이 사라지고 깨달음의 길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화두참선을 할때 다가오는 장애에 대해서도 영진 스님은 자세히 설명했다.

"화두를 들다보면 두가지 장애가 옵니다. 하나는 번뇌 망상이고 또 하나는 혼침입니다. 혼침은 쉽게 졸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번뇌 망상은 화두를 더 간절히 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지만 잠이 그렇지 않습니다. 잠이 올 때는 다리를 살짝 들어 자세를 교정하든지 아니면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와서 다시 자리에 앉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부처' 믿고 화두 들면 깨달음 눈앞에

영진 스님은 육조혜능 스님과 남악회양 스님의 선문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의미, 일본 선사와 사무라이와의 극락과 지옥 이야기, 덕신 스님과 소동파 이야기 등 선(禪) 일화들을 소개하며 간화선의 핵심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법문 내내 신도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진지함이 교차됐다.

영진 스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의심을 크게 내어 화두 수행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에 도달합니다. 언제까지 내일로 미룰겁니까? 미루다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 일대사 생사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글 · 사진/하와이=김두식 기자

■ **영진 스님은** 1972년 김제 금산사에서 현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 용봉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출가이후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백담사 무금선원, 은해사 기기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에만 몰두해오고 있다. 99년부터 3년간 조계종 기초선원장 겸 동화사 금당선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전국 선원대표자회의 의장을 맡고있다.

영진 스님이 말하는 좌선법

양 무릎과 머리 삼각형 만들고 모든 인연 놓아버려야

두시간여의 법문이 끝난후 영진 스님은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직접 가부좌 트는 법, 수인 등의 방법을 설명했다.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수행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라고,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 등 어떤 자세에서든지 할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좌선입니다. 간화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앉아야 합니다. 결가부좌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우니 반가부좌를 권합니다."

영진 스님은 오른발을 엉덩이 밑으로 하고 왼발은 들어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며 반가부좌를 직접 시연했다. 또 허리는 굳게 펴며 어깨의 힘을 빼고 눈은 콧잔등을 향하고, 혀는 입천정에 살짝 붙이라고 부연했다. 전체적으로는 무릎에게 머리까지 삼각형을 이루게 하되 무게 중심을 아래로 두라고 자세한 지도를 했다. 스님의 시연을 보며 신도들은 저마다 자세를 바로잡으며 바르게 앉는 법을 익혔다.

스님은 또 앉아 있을때의 주의사항도 빼 놓지 않고 자세하게 알려 주었다.



좌선법을 시연하며 영진 스님이 일일이 신도들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주고 있다.

"앉아 있을때 모든 인연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야 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나와 괴로워하는 나를 분별하면 안됩니다. 더불어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틈이 없게 해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나 고요할 때도 항상 틈이 없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음식에 관해서도 주의할 점이 이어졌다. 탁한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식곤증이 오며, 너무 적게 먹으면 힘이 없어 허리가 굽어지기에 음식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좌선법 설명을 마친 영진 스님은 동참 대중들과 함께 실참 시간을 가졌다. 영진 스님은 실참 시간 내내 신도들의 잘못된 자세를 일일이 고정해 주었다.

법회에 참석한 구진성 법사는 "영진 스님이 좌선법을 직접 시연하며 자상하게 가르쳐 주어 좋았다"며 특히 "실참하는 도중에 스님이 직접 자세를 교정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깨달음(도통)과 불치병 · 난치병 · 각종암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참선공지도자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 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 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무량한 功德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 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 체험, 빙의 · 해리 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 천도비법등 신비법 전수.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자비의 손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善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 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現 참선공 협회장

전수반 안내
금요반 · 토요반
16:00~21:00까지(12회 과정)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자비손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 · 해리 치유법
칠차원 생명법
전생 치유법
내생 치유법

◆ 교육후 神임상최면사 자격증 · 神치유명상사 자격증 · 참선공 자격증 발급.
◆ 지도자 과정 전수후 사회활동 하실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卍신선암 神치유명상센터 神임상최면협회

● 전화 : 02)383-1319/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깨달음의 숲을 거닐다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⑯ - 서울 전등사 전등선림



'7일 안에 깨쳐라!' 해안 스님의 선풍을 쏘이며 서울 전등사 전등선림 재가선객들이 화두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놈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찾으려 해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 놈을 찾는 것이 이 공부지요? 그 놈을 꾸준히 찾으세요."

 # '선림(禪林)'이라 이름 지은 까닭은?

상설 재가참선도량인 전등선림은 현대의 선지식인 해안(海眼, 1901~1974) 스님이 "재가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다"며 1967년 만든 '불교전등회'에서 그 전통이 시작된다. "7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며 재가자에게 깨달음의 확신을 심어준 해안 스님의 가르침이 바로 전등선림의 가풍이다. 때문에 전등선림은 통도사 경봉 스님과 함께 '동(東) 경봉, 서(西) 해안'으로 불리며 선풍을 떨쳤던 해안 스님의 유지를 이으면서, 지금도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있다.

동명 스님은 "나무가 혼자 크면 삐뚤어지고 제멋대로 성장하지만,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이루면 옆에 있는 나무를 자기 경계로 삼아 곧게 크게 된다"며 "선원 이름이 선림인 이유도 나무가 홀로 성장할 수 없듯이, 수행자도 도반들과 함께 정진해야 큰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깨달음의 숲'이란 뜻을 지닌 전등선림. 그래서 선림에서는 재가자들의 대중정진을 중시한다. 스승 없는 정진은 독불장군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 '크게 한번 죽는다, 그래야 깨닫는다'

해안 스님의 선풍이 이처럼 깃든 전등선림에서 정진하고 있는 재가선객들은 어떤 자기경험을 하고 있을까? 10년 넘게 '이뭣고' 화두를 들고 있는 고경성(77 · 서울 정릉동)씨에게서 먼저 체험담을 들었다.

"정진을 하다하다 안 되고 화두는 천리만리 도망가면, 억울함에 눈물만 줄줄 흘렸지요. 그러다가도 화두가 순일하게 잡히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좋고 싫음이 없어지더군요. 그저 화두만 잡고 있는 나를 확인했죠. 심지어 그런 나조차도 느낄 수 없게 돼 한없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올 여름안거 때, 찰중(察衆:안거 대중의 잘못을 살피며 경책하는 역할) 소임을 맡았던 김명자(66 · 서울 수유동)씨는 '크게 한 번 죽는다'는 각오로 수행에 매달렸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일은 접어두고 놓고 가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했다.

"매일 3~4시간씩 가부좌를 틀고 '이뭣고' 하는 그 놈을 찾았지요. 그러면서 내 인연의 소치(所致)를 알게 됐어요. 온갖 경계와 부딪칠 때마다, 내 업장의 두께를 절감했지요. 참회가 저절로 됐죠. 그러니 망상도 화두를 드는 것도 바로 그 놈이 하는 짓이라 깨닫게 됐지요."

 #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다

전등선림에서는 동 · 하안거를 비롯해 24시간 선방의 문을 열어 개인별 자유수행이 이어진다. 하루 일과는 오전 8시부터 두 번의 공양 시간을 제외하고, 저녁 9시까지 꼬박 좌선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선림에서 상주하는 재가선객들은 새벽 3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15시간 이상의 가행정진을 한다.



참선 정진중인 재가불자들. 전등선림 조실 해안 스님의 영정이 벽에 걸려있다.

전등선림은 또 초심자의 근기와 인연에 맞게 다채로운 수행법을 동시에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이를 위해 초심자들의 경우, 항상 상담을 한다. 상담 이후 참회기도를 거쳐 선방에 입실하게 한다. 면담을 통해 재가자에게 맞는 기도, 간경, 염불 등을 권하며 발심의 기초를 다지게 위해서다. 또한 매년 3개월 과정의 불교대학을 운영해 참선에 앞서 불법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02)762-0643

글 · 사진=김철우 기자

■해안 스님이 "7일만에 깨쳐라" 한 뜻은?

'사람들은 정진을 오래 해야만 깨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견성은 단시일을 두고 결정내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아무리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7일이면 도를 성취한다고 했다. 만일 7일안에 깨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행자의 정신자세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기간이 짧아서가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한다.'

"7일 안에 깨우치라"며 단기출가와 용맹정진을 강조했던 해안 스님(사진)은 '7일 정진'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해안집>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님은 특히 '크게 한번 죽는(大死一番)' 용맹심을 절대적으로 강조했다. 수행자는 오직 화두일념에 사로잡혀 옆에서 뇌성벽력이 쳐도 듣지 못해야 하고, 찬 바람이 뼈 속에 스며들어도 추운 것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죽기로써 대들어야 영원한 살 길이 열리지 어설피 살려고 버둥대면 오히려 죽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게 결심한다면 7일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생사 일대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다고 당부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0> 재미있는 간화선, 행복한 간화선

조계종과 전국선원수좌회가 공동으로 〈간화선〉이라는 수행지침서를 출간한 이후 폭발적인 호응 속에서도 '여전히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왕초보 및 청소년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2차 대중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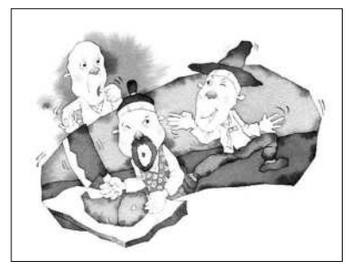
하지만 그것을 위한 연찬회의도 여전히 딱딱하고 심각한, 그리고 원론적인 말만 난무하는 참으로 지난(至難)함의 연속이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농삼아 나눈 한마디가 오히려 회의보다도 훨씬 감동적이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재미있는 간화선, 행복한 간화선이라는 타이틀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댓구가 튀어나온다.

"대중화된 간화선, 민주화된 간화선, 세계화된 간화선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귀족화된 간화선, 독재화된 간화선, 국수주의 간화선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



"깨끗한 곳으로 주게" "어디가 깨끗합니까" 푸줏간 주인과 선비 대화 듣고 크게 깨쳐

그 말에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하긴 언제부턴가 '코 만지기보다도 쉬운' 간화선이 '최상승 대근기'를 위한 것이란 반(反)간화선적 분위기로 인해 화두수행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로부터 멀어져만 갔다.

그 사이 웰빙 바람을 타고 '마음 다스리기'를 내건 제 3수행법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간화선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활개를 치게 됐다. 그 바람에 역작용으로 간화선 본래모습인 대중성을 회복하자는 흐름이 나타나게 됐으니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어쨌거나 시장은 냉정하다. 수요자의 근기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재미있는 간화선~ 대중화된 간화선이라~. 그 말은 반산보적(盤山寶積 당나라때 스님) 선사에게 딱 어울린다. 어느 날 선사께서 장터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장날인지라 여기저기 구경거리가 많았다. 어찌하다 보니 푸줏간 앞을 지나게 되었다. 어떤 선비가 고기를 사러 가게 안으로 들어서더니 주인에게 한마디 하였다.

"깨끗한 곳으로 한 조각 주게나."

사러오는 사람이야 신선하고 맛있고 정결한 부위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선하지 않고 맛있지 않고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기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칼을 내던지고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곳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선비는 차별심을 버리지 못했고 푸줏간 주인은 평등심으로 말한 셈이다. 이 광경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사는 크게 깨친 바가 있었다. 이쯤 되면 장터가 법당이요 그 선비는 납자이며 푸줏간 주인이 선지식이 되는 '재미있는 간화선'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도 나주 불회사 인근에 '중장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그곳에서 예전의 스님네들은 장날이면 몰려나와 살림살이로서 '행복한 간화선'의 거량을 했을 것이다.

반산 선사에게서는 '길거리표'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선사가 어느 날 상여가 나가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다.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면서 구성지게 가락을 뽑았다.

"지는 해는 결정코 서쪽으로 지거니와, 오늘의 혼령은 어디로 가시는고?" 그러자 뒤따르던 상주들이 그 소리를 후렴으로 받았다.

"애(哀)~ 애에야아~ (슬프구나! 슬프구나!)"

이순간 선사의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면서 눈이 훤하게 열린 후 스승 마조도일(709~788) 선사의 인가를 받게 된다.

상두꾼의 계송 한마디와 상주들의 후렴이야말로 반산 선사에게는 바로 깨침의 언어였다. 그런 법문이 '재미있는 간화선, 행복한 간화선'이라고나 할까.

행주좌와어묵동정 속에서 늘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서건, 누구의 한마디건 깨침의 인연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그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반산보적 선사의 예리한 기지는 그래서 더욱 빛나 보인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림사 지상보살상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27호 지정기념

제1회 덕림사 시왕재 및 경로잔치

전법도량 덕림사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및 권속 26구가 지난 2005년 7우러 18일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2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덕림사에서는 매년 음력 10월10일을 전후로 해서 '덕림사 시왕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10분의 시왕님들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생전에 지난 세월 묵은 업장을 모두 다 참회하고 다시는 죄업의 사슬에 빠지지 않기를 발원하며 전국 최초로 '시왕재'를 모십니다. 특히 시왕재의 현대적 의미를 되살려 노인을 봉양하고 공경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사랑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남구지역 노인분들을 초청, '경로찬치'를 성대히 봉행코저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05년 11월 6일(음. 10월 5일) (일요일 오전10시)
장 소 | 덕림사(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04-7
문의전화 | 종무소 062)362-2091~2/주지실 062)362-8860
내 용 | 1부 - 시왕재
2부 - 경로잔치 및 노래공연(오후3시) 음식공양 및 선물증정
※ 당일 덕림사 경내에서 사진 및 국화전시회를 엽니다.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경로잔치에 쓰일 음식 및 선물 등을 보시받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덕 림 사
주지 무이 월공 합장

주최 : 덕림사 / 후원 : 광주광역시, 광주불교사암연합회,광주불교방송,현대불교신문,불교신문,법보신문,금국건설(주),청남건설,한빛안경원,newbalance충장로지점,광주서부경찰서불자회,광주불교운전자회,명원재단 정읍지부, 예인회, 무등예술봉사단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6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13강 불이(不二)의 법(法), 그 입구(門)

"괜찮다(如), 내가 어딜 가겠느냐(是)"

야부의 시를 읽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번 강의에 일러 드린 대로, "보디스바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젖 달라고 징징대지 마라. 진리조차도 그렇다"입니다.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2. [如]如. 靜夜長天一月孤.

3. [是]是. 水不離波, 波是水. 鏡水塵風不到時, 應現無瑕照天地. 看看.

번역하자면,

2. "[如]여, 여(如)여. 고요한 밤, 길게 걸린 하늘에, 달 하나가 외롭도다."

3. "[是]여, 시(是)여. 바다는 파도를 떠나 있지 않으니, 파도가 곧 바다이다. 먼지가 붙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거울과 바다는 응당 한점 흠 없이 천지를 비출 것이니, 보라, 보라."

여기서 채용하고 있는 상징과 비유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2. '고요'는 '시끄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밖을 향해 분주하게,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시끌벅적 나대지 말라'는 뜻이고, '길게 걸려 있다'는, 하늘 저편 허공에 들어설 아파트 평수를 논하는 것이 우습듯, '구분과 차별이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제 1부에서, 구분과 차별이 인간의 관심과 욕망의 투사라는 말은 자주 했던 것같습니다.

'외롭다'는 그 관심과 욕망으로부터의 탈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홀로'란, 모든 인간적인 흔적이 지워진 곳, 자아(我)의 부당한 개입과 준동이 그친 곳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 특히 선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외로운 달(孤月, 一月孤)'은 나로 하여 토막질되지 않은, 저 스스로 나와 더불어 완전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3은 그 여시(如是) 세계의 실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물이 곧 파도이고, 파도가 곧 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대승기신론>이, 그리고 원효의 소가 본격 논구하고 있듯이, 파도는 이를테면 인간의 심리정신적 에너지의 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각자의 심층적 무의식, 자연적 신체로부터 발원한 것이고, 그 바탕은 우주의 총체적 에너지 근원에 뿌리 닿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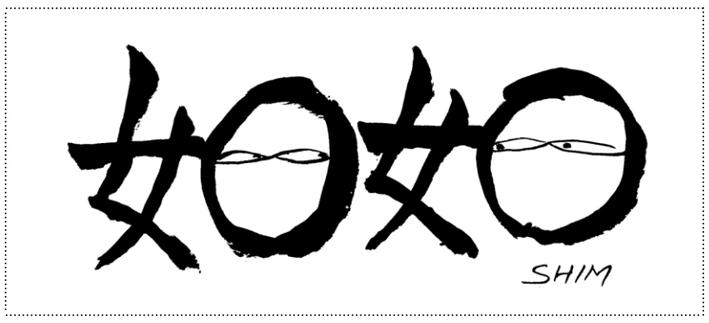
우리의 일상이 누추하고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일상적 에너지의 파도가 보다 근원적 심층의 자연과 분리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짚어 둘 것은 무의식의 심층에 관한 것인데요…. 유식이 표면적 육식(六識) 너머에 자아의식인 칠식(七識), 그 너머에 무의식에 해당하는 팔식(八識), 그리고 때로는 그 너머에 구식(九識)까지 있다는 얘기는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자아의식의 뿌리에 잡동사니 가득한 무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융은 그보다 깊은 의식의 심저에 영원한 고요와 평안의 에너지 창고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불교는 아마도 프로이트가 팔식(八識) 주변을 보았고, 융이 팔식의 심층, 혹은 구식의 정체를 간파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아의 활동이 숨을 죽일수록, 우리는 우리 내부의 더 깊은 불성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합치'와 더불어 세계는 더 이상 자아의 투사, 혹은 그림자로서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본래 갖고 있던 여여(如如)한 모습을 증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떠나지 않고, 바다가 물을 떠나지 않았다(水不離波, 波是水)"는 바로 그 '합치'의 경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마음은, "먼지 없는 거울, 바람 그친 바다처럼 응당 한점 흠 없이 천지를 비출(應現無瑕照天地)" 것입니다. 거기가 반야바라밀입니다.

지금 야부는 밖의 유혹도 안의 충동도 없을 때, 즉 에고가 숨죽인 무아(無我)에서, 세계는 제 모습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我)는 어떤 모습이며, 무엇을 다시 들을(聞) 것입니까. 여기 한 두 마디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我], 淨裸裸赤洒洒沒可把. 我我. 認得分明成兩箇. 不動纖毫合本然. 知音自有松風和.

5. [聞]. 切忌隨他去. 猿啼嶺上, 鶴唳林間. 斷雲風捲, 水激長湍. 最好晩秋霜午夜, 一聲新雁覺天寒.



4. "[我]라. 벌거벗고 깨끗하게 드러난 몸, 그러나 붙잡을 수는 없다. 아(我)여, 아(我)여. 그러나 이것이요 하면 둘로 갈라지니 조심할 것. 한 치 움직이지 않고 본시 본연(本然)에 합해 있다. 알아 듣는 자만이 시원한 솔바람 소리를 느끼리라."

5. "[聞]이라, 제발 남 쫓아가지 마라. 원숭이는 봉우리 위에서 울고, 학은 숲 사이에서 우짖는다. 조각구름 바람이 말려가고, 물은 긴 여울로 치고 흐른다. 좋구나! 늦은 가을 서리 내리는 깊은 밤에, 새 기러기 한 마리 차가운 하늘을 울고 간다."

4. 아(我): 여시(如是) 그 세계는 밖의 유혹이 멈추고, 안의 혼란이 그칠 때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아(我)는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입니다. 주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수한 경험의 지속으로 드러날 뿐, 자신을 대상화할 아무런 표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벌거벗고 깨끗한 몸(淨裸裸赤洒洒)"입니다. 이 전체의 경험을 박제화하거나, 거기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또 그 가치를 의심하거나 그 잔을 외면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요 하면 둘로 갈라지니 조심해야 한다(認得分明成兩箇)."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생생한 '지금 이것(如是)'의 경험이 이루어야 할 전부입니다. 보리사바하. 이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신성한 현재'를 온 마음으로 충분히 살기에 주력하십시오. 보리사바하, 그 불도(佛道)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치 움직이지 않고 본시 본연(本然)에 합해 있다네(不動纖毫合本然)." 그러니, 부디, 세상에 대고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힘과 가치를 믿으십시오. 이 본지풍광(本地風光)의 소식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온갖 먼지바람에 텁텁한 도심의 공기를 떠나, "산림의 솔바람 소리를 달게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知音自有松風和)."

5. 문(聞): 그럼, 이제 무엇을 '더' 들을 것입니까. 이 모든 소식은 무슨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밖의 소음과 내부의 허덕임을 그만 멈출 때, 그때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더라는 소식은 성찰과 명상으로 얻는 자기 지혜일뿐입니다. 책이나 설교는 그런 점에서 이 철저한 내면성을 다치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위대한 선지식 붓다의 목소리도 우리를 잘못 이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철 스님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돈오돈수(頓悟頓修)를 말씀하신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닦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 하나로 이미 완전해졌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말입니다.

그 정문의 일침을 지금 야부는 읊고 있습니다. "제발 남 쫓아 가지 마라!(切忌隨他去)" 마군이도 쫓아가지 말고, 부처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혀를 쫓아 진리를 알겠다고 <금강경>을 펼쳤는데…. 지금 야부는 생뚱맞게, 이제 그만 되었으니, 책을 덮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백장회해(百丈懷海 : 720~814): 당대 스님. 20세에 서산혜조에게 출가, 마조도일에게 참구하여 인가를 얻음. 선원청규의 개창자로서 선의 토착화에 크게 기여.

네티즌 교리문답

'불가피(不可避)'란?

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은 정말 불가피한 일이었어." 또는 "불가피한 일이라면 차라리 받아들여"라하면서 '불가피'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에게 이 말이 불교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궁금이)

답 1 :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원치 않은 일이라도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다가와 삶을 괴롭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살면서 부닥치는 불가피한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에 의해 태어나는 생명은 전생에 좋은 업을 지은 사람이면 좋은 생을 받아 태어나고 나쁜 업을 많이 쌓으면 나쁜 생을 받아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일들을 잘못 해석하면 운명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불가피한 생명의 과보를 면하기 위해 현세에 선업을 쌓아야 한다는 경책을 던져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국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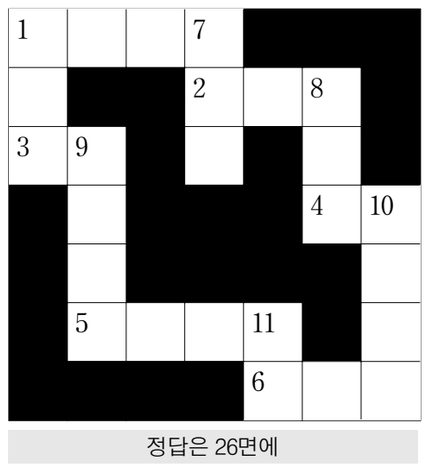
답 2 : 사실 늙는 것 또한 불가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월은 고정불변함 없이 항상 변해 감으로 인해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는 말입니다. 천하의 제왕도 하찮은 거지도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 앞에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함을 느낍니다. 죽음도 불가피합니다. 천수를 누리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던 진시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했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조금이나마 지연시킬 수 있을지라도 누구나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죽음의 윤회바퀴를 완전하게 벗어나 해탈을 얻는 방법을 설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 과보를 받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는 불가피에 대한 개념을 '피할 수 없는 일'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불교에서는 이를 승화시켜 인과응보를 일깨워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가피불자)

답 3 : 불가피한 일들에 대해 "운명이려니"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겪는 일이기에 반드시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로병사를 불가피하게 초월하는 과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운명개척보살)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악곡의 전체 또는 한 부분을 되풀이하여 연주할 것을 지시하는 표 2. 준공을 알리고 축하하는 의식 3. 독립기념관이 있으며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 4.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를 거쳐 맹자(孟子)에게 전해져 유교사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 5. 잘못되어 가는 세태가 슬프고 분함 6.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 펴지 못하게 된 손.

세로 1. 욕계육천 중 두 번째 하늘 7. 교양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8. 음식을 먹은 뒤 졸음이 오는 증세 9. 뜻은 크고 안목은 높으나 재주가 없어서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 10. 자손의 여러 대(代) 11. 고치어 다시 만듦.

소문난 책벌레 이 책만은 꼬~옥



책과 더불어 배우며 살아가다
이권우 지음 | 해토 펴냄 | 9500원

가을은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1년 365일 단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눈안에 가시가 돋힌다는 이가 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취미와 특기, 직업은 모두 독서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또 그는 각종 지면과 방송 매체를 통해 좋은 책을 소개하는 일도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한다. 그가 바로 <출판저널>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소문난 책벌레이자 도서평론가인 이권우씨다.

이씨는 책 읽기야말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에 그가 내놓은 이 책은 책벌레로 이름난 그가 그동안 읽은 책들 중 감동하거나 아니면 흥분해서 "도저히 혼자 알고만 있을 수 없어 주변사람들에게 함께 읽어보자고 말했던 책들"에 관한 이야기를 묶었다. 모두 48꼭지의 이야기에 55권의 책이 담겼다. 문학, 사회학, 고전과 판타지, 예술, 만화 등 장르는 물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책들이 그를 통해 다시 재탄생한 셈이다.

이 책이 읽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책에 관한한 어느 누구보다도 내공이 센 그가 권하는 책이라는 신뢰도 때문이다. 아마도 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책들 중 이만한 선구안이 또 있을까 싶다. 혹시나 이미 읽은 책이 있다면 지은이의 책읽기와 비교 · 분석하며 내공 대결을 벌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그리고 책과 더불어 배우며 살아간다는 지은이처럼 이 책을 통해 책읽기의 재미를 느끼고, 배우는 즐거움도 또다른 이유중 하나다.

책 읽기 하나-책과 더불어 삶을 배운다

이권우씨는 지은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은 가르침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매순간 구도자의 자세로 책읽기에 임한다. 김병익의 <글 뒤에 숨은 글>, 배병삼의 <한글세대가 본 논어>를 읽은 그는 논어와 김병익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을 통해 반성과 성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루쉰의 <희망은 길이다>를 읽고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운명론자가 되느니, 어쩔 수 없지, 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더 나은 삶"임을 깨닫고 모두가 '루쉰스러운' 운명론자가 되기를 주문한다. 쥴리아 크리스테바와 카트린의 <성과 성스러움>을 통해서는 " '눈부심보다 밝음이 낫다'는 문구를 가슴에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라며 눈을 멀게 하는 광휘보다는 사물의 윤곽을 드러내는 빛이 더 나은 것임을 깨닫는다. 마치 오래된 스승과 대화하듯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으면서 책읽기를 통해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

책 읽기 둘-더불어 사는 세상 만드는 첫걸음

지은이는 책읽기가 개인적인 성찰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셉 콘래드의 <암흑의 핵심>을 통해 그는, "제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겉으로는 식민국가의 계몽과 발전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더 많은 이익을 노린 탐욕 때문에 제국끼리의 전쟁으로 치달았다"라고 말한다.

프란스 판 데어 호프의 <희망을 거래한다>에서는 "가난은 원조나 시혜로 해결되지 않는다. 원조는 경제종속을 부른다. 하나의 상품에 담긴 익명성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속에 녹아 있는 노동자들의 땀을 본다면,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보인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우월감이나 안일에 빠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땀의 가치를 매긴다면 서로 공평하게 잘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이권우씨는 해석한다. 이렇듯 그에게 있어 책읽기는 이웃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책읽기 셋-가슴 벅찬 감동의 울림

이 책은 각종 영상매체에 빠져 책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읽기야말로 그 어떤 영상매체보다 재미있고, 감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상매체는 상상을 실현한 것이지만, 책은 읽는이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만화방을 성소로 여기며 지낸 어린 시절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로 기억하며 만화가 박흥용과 <만화로 읽는 사기>의 감동을 전한다. 만화뿐만 아니라 소설, 판타지, 예술인들의 전기, 각 분야 전문가의 글들은 삶의 열정을 북돋우기에 충분하다.

오승은의 <서유기>를 읽은 그는 "이 소설의 참된 가치는 환상과 상상, 그리고 풍자와 해학을 통해 타락한 현실세계를 비웃고, 인간의 욕망을 깊이 있게 살피는 데 있다고 역설한다. 박영택의 <예술가로 산다는 것>을 읽고는, "스스로를 저주받은 예술가로 만든 이들. 그러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마치 구도자처럼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 자기를 스스로 유배시키는 이들의 치열한 예술혼에 그저 가슴 뜨거워질 뿐이다"라며 감상을 전한다.

책 읽기 넷-완성을 고르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책이 모두 양서이고 자신에게 맞는 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책 많이 읽는 자의 무거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한 권 한 권의 책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이권우의 책읽기는 그래서 책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이씨는 "책을 찾으면, 나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얼른 읽지 않는다. 밑줄 친 부분만 훑어보면서 그이들의 가슴에 용솟음쳤던 감동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을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내가 바로 책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자신의 독서법을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드 니버 지음 | 이한우 옮김
문예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지은이는 이 책에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구분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과 집단의 서로 다른 도덕적 특성에서 연유한다. 개인들은 교육이나 설득을 통해 합리적 행동을 유도하기가 쉬운 반면 집단은 구성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설득을 이끌어내기가 개인에 비해 훨씬 어렵다. 여기에서 집단은 개인을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를 지칭한다. 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집단 전체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선의지를 지닌 인간을 집단적 이익으로 결집시켜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전제를 수용한다면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도덕성에만 호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 양심이나 선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개인의 도덕적 양심이나 선의지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결국 사회문제는 사회 구조나 체제의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개인들의 합리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조건

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회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에 맡기기 보다는 올바른 사회 구조의 정착이나 합리적 정책 판단과 실천을 통해 오히려 개개인들이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할 때 더 유리한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사회 체제가 정비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우리 사회는 님비 현상이 난무하고 있다. 나의 집단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현상은 집단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결코 개인의 양심적 판단으로만 해결하기가 힘들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현실적 경제적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도덕적 양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어느 집단이 타 집단과 비교해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희생을 인내하고 사회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사회 시스템의 정착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현대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이익집단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줘 배울 거리들이 많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일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보라고 감히 권하고 싶다. 다소 지루하고 딱딱한 철학적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인내하고 읽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책이기 때문이다.

■김정한(강원도 정선고등학교 윤리교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 (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 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전국사찰,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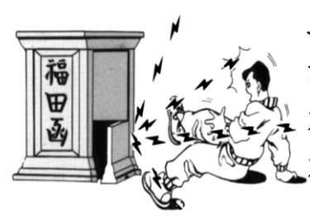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靑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1100g×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둥 : 원목 아메존 사용가능
♦원두막 6000×3000×3200[mm] 8000×3000×3200[m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원두막형 방가로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820×350[mm]가격:150,000 할인가:120,000 1800×1030×350[mm]가격:180,000 할인가:150,000
특수 제작한 플리즈로필렌은 눈비를 맞아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관 조립이 간단하여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www.banggro.com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통목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스테디 셀러, 개정판 발간 잇따라

부처님이 계신다면 탄허 스님 지음 | 교림 | 1만7천원
반야심경, 금강경 정화 스님 지음 | 법공양 | 1만2천원 | 1만5천원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6천원

기껏해야 초판 1천~2천여 권 정도가 간신히 팔리는 불교 출판 현실에서 재판이나 수정본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한번 절판된 책이 다시 불자들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불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 온 책들이 새 옷을 입고 다시 선보여 기쁜 마음으로 책을 집어 들었다. 1979년 첫 선을 보인 <부처님이 계신다면>과 97~98년 출간된 정화 스님의 <반야심경> <금강경>, 그리고 2003년 선보였던 대림 스님이 번역한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가 그것이다.

유불선(儒佛仙)에 능통했던 탄허 스님(1913~1983)의 강설집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불교계에서 보기 드문 '스테디 셀러'. 79년 초판 출간 후 지금까지 100만여 권 가까이 팔려나갔다. 9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정판이 출간된 것으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한글세대 불자를 위해 한자와 한글을 병기했고, 탄허 스님이 법문에서 인용한 불경과 고전의 한문 원문을 일일이 찾아 넣었다.

도서출판 교림의 서우담 대표는 "근대 최고의 학승(學僧)이셨던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게 재편집했다"고 개정판 발간 의의를 밝혔다. 비록 '현대식' 옷을 입고 찾아왔지만, 스님의 명쾌한 법문은 그대로다. 한편, 교림은 탄허 스님이 번역한 <영가집>과 <발심삼론> <보조법어> <육조단경> 등도 읽기 쉬운 활자로 바꿔 다시 펴냈다.

도서출판 법공양은 정화 스님의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수정, 보완했다. 두 책 모두 1998년 시공사에서 출간한 <함께 사는 아름다움>에 들어 있던 것으로, 이번에 정화 스님이 직접 새로 다듬어 펴낸 것이다.

이 중 <반야심경>은 전체 내용을 게송 형식으로 푼 후 해설을 덧붙였다. 정화 스님은 "한 사람이 같은 경전을 읽더라도 내용에 대한 이해와 느낌이 달라지게 마련이다"며 "특히 1997년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특강 내용을 토대로 한 <금강경>의 경우 듣는 대중이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 경전 풀이와 해설을 조금 달리했다"고 말한다.

출간되자마자 위빠사나 수행법에 관심 있는 불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는 초판 내용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둔 개정판이 선보였다. 이 책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알려진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出入息念)'이 언급된 세 경전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경' '긴 라홀라 교계경'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의 상세한 설명'을 소개한 문고판 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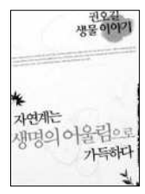
초기불전연구원은 우선 초판에서 실수로 누락됐던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경' 28~43 부분을 되살려 실었다. 또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자세한 설명'을 지난해 연구원에서 펴낸 <청정도론>의 8장의 번역과 일치시켰다. 대림 스님은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지적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전 번역과 교정, 편집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묘법연화경해설-제24관세음보살보문품>**(김현두 옮김, 아나, 1만8천원)=부산 아나법화연수원에서 불교강의를 하고 있는 김현두씨가 <묘법연화경> 중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우리말로 풀었다. 김씨는 "불자들이 뜻도 모른 채 독송하고 있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좀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서게 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책 앞쪽에는 '<묘법연화경>과 관세음보살' '보살도 수행의 정리' '기도하는 법' 등 관세음보살보문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뒤편에는 원문과 우리말 해설을 덧붙였다. (051)723-2261



■ **<자연계는 생명의 어울림으로 가득하다>**(권오길 지음, 청년사, 9천8백원)=권오길 강원대 명예교수(생물학과)가 2년간 <주간조선>에 연재했던 '생물 에세이' 50여 편을 책으로 엮었다. 권 교수는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생물 에세이' <권오길 박사의 아름다운 생명일기> <꿈꾸는 달팽이> <생물의 다살이> 등을 집필함으로써 생물학 대중화에 힘써왔다. 이번 책에서는 진달래꽃의 색깔과 꿀벌의 춤, 지렁이의 생애, 고추잠자리의 결혼비행 등 우리가 몰랐던 '생명의 어울림'을 전해준다. 또한 생물들의 치열한 삶과 공생의 지혜를 발휘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도 엿볼 수 있다.



■ **<게으름뱅이의 깨달음>**(다데우스 골라스 지음, 안진환 옮김, 북스넛, 8천5백원)="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무한한 존재임을, 온 우주에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달음의 경지는 유연한 의식상태, 즉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다. 깨달음이란 어떤 정해진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 그 자체이다."

20여 년간 종교를 초월한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해 온 다데우스 골라스의 철학서로 지은이는 "자신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과 자신은 하나"이며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깨달음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1972년 미국에서 출간돼 서너달 만에 5만여부가 팔려나갔고 이후 5개국에서 출간돼 스테디셀러 목록을 차지하고 있다.

어렵고 귀찮다고 깨달음 포기할까



욕심을 버리는 방법
철우 스님 지음
민족사
8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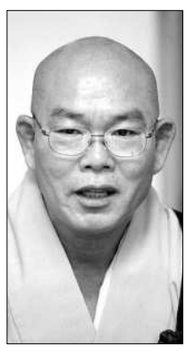
1960년대 초반, 종회에서 약소한 거마비를 받은 벽안 스님은 연필을 구입해 통도사 강원 학인들에게 나눠줬다. 그 연필에는 '정신차려, 벽안'이라는, 스님이 직접 새긴 글씨가 또렷했다. 그때 연필을 받았던 한 학인이 오늘날 우리 불교 계율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되어 한 권의 책을 펴냈다.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사진)의 '계율단상'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다.

흔히 '어렵고 귀찮은 것' 정도로 여기는 계율의 참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율을 지켜야 하는지를 간략한 글을 통해 알려준다.

"계율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불자라면 모두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의 덕목인 계율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불자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작은 일에도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하는 율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따가운 시선과 원망인 경우도 많다. 행자교육원 신체검사에서 떨어진 한 행자는 사리탑 기단에 올라가 '교육을 받게 해 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며 협박을 했다. 뿐만 아니다. 조금이라도 계율에 어긋난 일을 지적하면 '율사라고 유세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스님은 "부처님도 계를 지키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날 수행자들이 계율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율장에도 없는 '반가사'를 즐겨 입는 것이나 남녀간의 중매에 나서는 일 등을 경계하며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라고 충고한다.



삶에 숨은 행복찾기

조계종 포교부장 일관 스님이 수상록 <날마다 한 생각>을 펴냈다. 1988년부터 도심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서울 상계동 보현사와 불암사를 중심으로 대중불교운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이 포교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소회를 풀어냈다.

책에서는 '생활 속의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는 스님의 평소 신념과 수행자로서 느꼈던 감상들을 담담하고 편안하게 풀어내고 있다. 자연과 사람살이에 대한 단상과 오늘날 사회문제들을 짚어 보는 스님의 견해를 담았다. 또한 불자들의 수행과정에 대한 안내와 조언, 스님의 개인적인 인연에 얽힌 이야기 등도 담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생활의 현장, '바로 지금 이곳'에 존재함을 일깨워준다.



날마다 한 생각
일관 스님 지음 | 아름다운인연 | 7천원

경주 시간여행의 길잡이



천년 고도를 걷는 즐거움
이재호 지음 | 한겨레신문사 | 1만5천원

많은 이들에게 경주는 '과거'의 도시다. 시내 곳곳에 솟아 있는 수백 년 된 왕릉과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했으나 지금은 쓸쓸히 남아 있는 폐사지. 경주는 그렇게 우리는 수백 년 전 과거로 이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시간여행의 길잡이가 될 지침서다. 문화를 알지 못한다면 첨성대의 역사나 용도도 알기 어렵고 남산이 품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도 찾기 힘들며 황룡사지의 옛 위용도 떠올리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행전문가 이재호씨는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초대 총무로 1987년부터 전국의 문화유산을 기행했다. 그러다 '천년 고도(古都) 경주를 걷는 즐거움'에 빠져 아예 경주에 터를 잡았다. 10여 년간 여행객들에게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던 그가 이번엔 책을 통해 경주를 소개한다.

지은이는 누구나 한 번쯤 가 보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주의 숨겨진 매력을 선사한다. 흥덕왕릉과 괘릉, 진평왕릉을 비롯해 칠포 암각화, 옥산서원과 독락당 등 유명 관광지에 밀려 쉽게 관광객들이 찾지 못하는 곳을 비롯해 불국사와 석굴암, 두대리 마애불 등 경주를 경주이게 하는 불교문화재들도 소개된다. 지은이와 함께 문화유산 답사를 했던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추천사에서 "경주에 관한 한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길눈"이라고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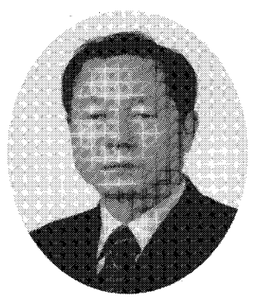
천년 고도 경주의 길잡이를 자처한 기행전문가 이재호씨는 경주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한다. 사진은 경주 반월성 위에서 내려다 본 월정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반야원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상도동 보문사
시민선원 개원법회

시민선원을 개원하여 회향법회를 봉행하오니 눈 밝은 불자님들의 동참바랍니다.

■ 증명법사 : 송광사 유나 현묵스님
■ 일시 : 2005년 11월6일(음 10월 5일) 오전 11시
■ 연락처 : 02)823-7443
02)814-8793 (주지실)

◆ 을유년 동안거 입방안내 : 선착순 30명 (24시간 개방)
◆ 을유년 음력 10월 초하루 법회
• 법사 : 직지사 대진스님
• 일시 : 2005년 11월 2일(음10월 1일) 오전 11시

대한불교조계종 상도동 보문사 선원장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11. 7
월 · 화 반(주 · 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토요일, 일요일 전문가과정 특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407호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회암사지 산사음악회에서 초연된 '폐사지 보존과 사랑을 서원하는 노래'(작사 장용철 · 작곡 김회경) 가운데 '청산은 나를 보고'를 국악인 김성녀씨가 열창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만월을 조명 삼아 절터를 무대삼아

문화복지연대(상임공동대표 김종엽)가 주최한 전국폐사지 투어콘서트의 첫 번째 무대 회암사지 산사음악회가 10월 16일 3500여 관객이 모인 가운데 양주 회암사지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영산재 시연으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오느름 민족음악관현악단의 연주, 국악인 김성녀 · 박애리 · 남상일, 소프라노 김양희, 바리톤 홍일, 가수 정태춘 박은옥의 노래, 야단법석의 타악퍼포먼스, 해금 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위촉식에서는 1폐사지 1지킴이의 첫 번째 양주 회암사지 지킴이로 방청석씨(42)를 위촉했다. 폐사지 보존운동과 산사음악회 개최의 산파역을 한 문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장용철 시인이 이날 음악회를 리뷰했다.

문화복지연대 주최 폐사지투어 첫 번째
회암사지 산사음악회 3500여 관객 운집

■회암사지 산사음악회 리뷰



장용철

(윤이상평화재단 사무처장)

'텅 빈 충만'의 밤. 역사의 골짜기를 거스르는 제행무상의 선율. 가을 산과 사람과 만삭의 만월(滿月)이 하나의 소품이 되어 조화를 이룬 천보산(天寶山)의 밤….

'폐사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문화복지연대가 진행한 전국 폐사지 투어 콘서트 첫 번째 음악회인 양주 회암사지 산사음악회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3천여 개의 촛불이 무너진 절터를 밝혔고, 가슴 뭉클한 신심의 열기가 싸늘한 가을밤의 공기를 갈랐다.

유행처럼 고만고만한 산사음악회가 전국 도처에서 난장을 펼치지만 폐사지 음악회는 그 발상자체가 생뚱맞다. 신도하나 없는 '잊혀진 가람'. 마을버스 한대 접근하지 못하는 암흑의 절터에서 공중 화장실까지 만들어 가며 음악회를 연다는 것은 그 기획 자체가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신심이 있으면 '가지 않는 길'도 길이 되고, 수미산 꼭대기라도 선남선녀가 모이는 법. 회암사지 음악회는 그런 차별성, 그런 욕심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번 회암사지 음악회의 의도는 폐사지에 대한 역사성을 일깨우는 것이었기에 '회암사지 가는 길' '용담화' '제행무상' 등 폐사지를 주제로 한 창작곡이 다수 선보였지만, 그로 인해 다소 전반부가 지루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복지연대가 문화 사각지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를 통한 '복지'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사지 음악회는 처음부터 가능성을 내포한 참신한 기획일 수밖에 없었다.

회암사지는 인도 나란다대학 출신의 지공 스님이 창건하여, 지공, 무학 등 고려 말의 고승들이 주석했고, 태조 이성계가 출가하여 조선 최고의 국찰(國刹)로서 대접받던 거대한 가람이었다.

한 때 이 절에 주석했던 스님들이 3천여 명이나 되었다면,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대중들은 모두 전생에 이 절에 인연을 맺었던 스님들이거나 신도들이었을지도 모른다. '많은 산사음악회를 다녔지만 아무것도 없는 폐사지에서 노래하기는 처음'이라는 국악인 남상일씨 말처럼 폐사지 음악회는 아무것도 없기에 조금만 준비를 해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매우 불교적인 새로운 문화상품일지도 모른다.

문화복지연대의 폐사지 투어콘서트는 이번 회암사지 음악회를 출발점으로 하여, 내년에는 여주 고달사지, 강화 선원사지 등을 찾아갈 계획이다. 제주도 법화사지에 이르기까지 폐사지 투어 콘서트가 회를 거듭하며, 이 땅의 많은 폐사지들이 연꽃의 향기를 피우리라 기대된다.



회암사지 산사음악회에 참석한 내빈들. 앞줄 왼쪽부터 회정 진각종 통리원장, 신계륜 의원, 정성호 의원,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 장용철 윤이상 평화재단 사무처장.

가을밤 산사 재즈 선율에 취해



재즈 피아니스트 임학성씨가 수원포교당에서 열린 나혜석 추모음악회에서 연주하고 있다.

수원포교당, 나혜석 추모 음악회 열어
스리랑카 근로자 50여명 초청 성지순례등

만삭의 달이 부서져 시방세계를 비추는 가을밤.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사찰에 흘렀다. 용주사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나혜석 추모음악회'장에서였다.

10월 16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용주사 수원포교당 뜨락 극락대원전 앞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이번 음악회는 재즈공연으로 꾸며졌다.

'인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취지에 걸맞게 수원 출신의 시인인 김우영씨가 자작시 '평등의 노래-외국인 근로자들에게'를 낭송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한국 최고의 재즈연주가인 임학성씨의 재즈밴드가 '고엽' '아름다운 세상' '님은 먼 곳에' '그대 그리고 나' '카타리' 등 20여곡을 선사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5백여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음악회는 불교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재즈라는 신명나는 장르를 선보여 참석자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마지막 노래가 끝나자 관람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앵콜'을 연발하며 임학성씨를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임학성씨는 나훈아씨의 노래인 '사랑'을 재즈로 편곡해 답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인숙(54 · 수원시 권선동)씨는 "보름달빛 아래서 분위기 있는 사찰에서 재즈 음악을 듣게 돼 법문을 듣는 것만큼 너무 좋았다"며 "지역 문화 축제를 지역 사찰이 주관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은 지역 문화포교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한편 이날 음악회에 앞서 수원포교당은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을 초청해 수원 화성순례와 온천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원=김주일 기자

문학관 열고 삶, 작품세계 조명

김달진문학제 11월 5일부터
자료사진展, 기념문집 발간

월하(月下) 김달진 선생(1907~1989)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할 '김달진문학관'이 개관한다. 시인이자 스님으로, 한학자이자 교사로 일생을 살아온 김달진. 그의 고향 진해시 웅동 소사리 마을에 생가와 이웃해 김달진문학관이 세워졌다. 11월 5일 김달진문학관 개관과 동시에 열리는 '제10회 김달진문학제'는 다양한 행사로 개관을 축하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개관 기념식은 길놀이를 시작으로 김달진문학상 월하지역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시와 해금의 어울림' 축하공연 등이 신명나게 펼쳐진다. '불교사상과 노장사상의 문학적 초월의 세계'를 주제로 한 문학심포지엄은 5일 오후 4시 김달진 생가 마당에서 열린다.

첫 특별전시회는 김달진문학제 10년 자료 사진전으로 막을 연다. 5일~12월 31일 특별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사진전에는 김달진문학제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다.

김달진문학상 역대수상시인과 월하지역문학상 수상 시인, 김달진 시인의 시화, 김달진 생가와 문학관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들의 그림 · 시화 등은 문학관과 생가 주변에 11월 30일까지 전시된다.

이외에 기념 문집 <경건한 정열>도 발간된다. 강지연 기자

신비한 손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미국병원으로보급중)

天一氣功研究會는

13년전에(1993년)설립되어 파워봉, 신선대 등을 전국선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보급하여 오고 있으며 수만명의 사용자 및 수련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은 기공 수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일기공연구회

소 백 산 수 련 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637-9810(경북영주수련원)

●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4일코스

50기 - 10월 20일 오후2시 ~ 23일 12시
51기 - 11월 24일 오후2시 ~ 27일 12시
52기 - 12월 8일 오후2시 ~ 11일 12시

※ 매월 선착순 20명 마감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요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곧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 수련을 마친 스님들 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단계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천도재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빙의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 氣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악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료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6〉



세속의 행복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돈만 노리고 있다가 훔쳤습니다. 자, 악업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경전강의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나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던진 것이 좀 미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강생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머쓱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악업을 지은 사람일까요?"

나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외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돈을 번 사람이 죄인입니다. 남에게 훔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으니까요."

난 내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돈을 열심히 번 사람이 죄인입니까?"

"네."

사람들의 얼굴표정은 그제야 밝아졌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니 그 죄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불자들은 '돈을 번다는 것', '내가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타인에게 미안해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런 사실을 대놓고 말하기를 꺼려하고, 집안이 화목한 것도 남들에게 몹시 미안해합니다. 아마 '집착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라는 마음 다스리기의 법문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요, 너무 행복해하면 꼭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어떤 잡귀가 있기에 삼가려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사실 경전을 보아도 부처님은 온통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법문만 늘어놓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진다느니, 그건 화를 불러오는 재앙이라느니, 영원하지 않다느니….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씀들은 대체로 출가 수행자에게 하신 법문이고, 또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재물을 긁어모은 이들에게 하신 법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잡아함경〉을 보면 부처님은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당하게 돈이나 재물을 구하고 그것을 보시해서 복을 구하라. 남에게도 베풀고 자기도 누리며 또 그것으로 복덕을 지어라."

경전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부처님이 돈벌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앞서 언급한 수강생들의 대답대로라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권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재물이란 것을 맑고 서늘한 연못의 물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퍼올리고 써야지 물이 마르지 않듯이 재물이란 것도 부지런히 벌어서 자기도 열심히 쓰고 남을 가엾이 여겨서 자꾸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들판에 맑고 서늘한 연못이 있어도 그것을 즐겨 퍼 올리는 이 없으면 이내 고스란히 말라버리고 만다. 이처럼 훌륭하고 값진 재물도 나쁜 사람이 지니게 되면 자기도 쓰지 못하거니와 남을 가엾이 여겨 베풀지도 못하여 부질없이 스스로 괴롭게 모으기만 하고 그렇게 모았다가는 저절로 잃고 만다."

게다가 열심히 번 돈으로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을 누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재물을 얻으면 자신도 쓰면서 즐기고,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와 친척들을 돌보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벗에게 보시하며 수행자들에게 공양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몇 배나 큰 이익을 거두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 얻으면 자신도 즐기며 잘 쓸 줄을 알고, 널리 보시해서 공덕도 지으며 친척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베푼다."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만,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다른 이의 행복도 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넘쳐흐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남에게 베푼다구요? 그래서 남이 행복해지면 그것 역시 죄가 아닙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은 즐거움, 여색에 빠지거나 그릇된 대상에 탐닉하는 즐거움은 부처님이 권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내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일– 이것은 결코 죄도 욕심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아함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열심히 돈 벌어 행복 누리는 것이 죄스럽나요
"자신위해 즐겁게 쓰고 보시하라" 하셨네요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되는



10월16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 열린 '설선대법회' 입제식에서 취운선원장 약산 스님은 조사선의 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대도인이 된다며 열심히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지상 백고좌

약산 스님 (통도사 취운선원장)

(주장자를 들며)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 이 도리를 깨달아 알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된다.

(주장자를 내리며) 주장자를 이렇게 내려놓는 도리를 알면 부처님과 모든 조사스님들의 스승이 된다.

(주장자를 들지도 내리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주장자를 들지도 놓지도 아니 한다.

이 세 가지를 확연히 깨닫고 알아야 대도를 성취한 도인, 만법을 초달한 능력을 갖춘 대인입니다. 우리가 선문에서 수행을 하지만 이런 도리를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저 선을 하는 입장에서 자아를 발견하거나 앉아서 선정을 닦아 번뇌를 잠시 쉬는 정도를 수행이라 할 뿐입니다.

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차원이 깊고 심오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도리로 부처와 조사가 되는 것이라면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되는 도리는 없을까요? 아직 불교 안에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하면 스님만 딴소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처님 생시에는 직접적으로 선을 설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승경전에는 사마타와 삼마발제, 선나를 설했다고 합니다. 사마타는 고요한 선정, 삼마발제는 고요한 상태에서 지혜로 관찰하는 것, 선나는 정과 혜를 함께 갖춰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신 후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자탑전에서 첫 번째 설법을 했습니다. 백만 대중이 모였는데 가섭존자만이 법회에 늦어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가섭을 앞으로 불러 자신의 법상을 나눠 앉게 한 후 금란가사를 함께 두르게 해 한 몸을 지었습니다. 백만 대중은 그저 보기만 할 뿐 그 묘한 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도리가 부처님이 첫 번째로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둘째는 영축산 영산회상입니다. 천상의 꽃을 공양한 대범천왕이 법문을 부탁하자 부처님이 설법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꽃을 들었습니다. 백만 대중들은 부처님이 꽃을 든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부처님은 "여래에게는 정법안장 열반묘심이 있는데 가섭존자에게 부촉한다"며 바리때와 가사를 전해주었습니다. 대중들은 바리때와 가사를 봤지만 도저히 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선의 묘한 이치를 전해준 도리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이 45년 설법을 마치고 구시라성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때도 가섭존자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가섭존자는 신통을 부려 단숨에 갈 수도 있지만 일주일을 걸어 구시라성까지 갔습니다. 도착한 가섭이 부처님의 관주위를 세 바퀴 돌고 법구 앞에 서자 부처님이 두발을 관밖으로 내미셨습니다. 대중도 그 모습을 보았지만 발을 내민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성팔정이나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가 선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세 번 설한 진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선은 이렇게 '삼처전심(三處傳心)'을 근본으로 하고 선의 종지로 삼습니다.

선의 근본은 無言으로 설한 '삼처전심'
법 하나인데 세 번 전한 이유가 있었을까

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세 번 설해야 했을까요? 마음이 셋이 아닌 일심이고 법이 하나인데 세 번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도리를 확연히 깨우쳐야 합니다. 삼처전심의 도리를 확연하게 알아야 진짜 선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은 주로 '자아를 밝혀라' '주인공을 밝혀라' '본분사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진리를 물으면 입이 딱 막힙니다. 공부할 것은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수박 겉핥기로 공부할 뿐입니다. 그저 '좋은 일을 해라'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 데 이런 것으로는 종교가 될 수 없고 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를 새롭게 관찰하고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삼처전심한 도리를 깨달아 알 때 우리 자신이 부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부처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홀연히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6년 고행을 할 때도 매일 별이 떴을 것이고 보리수 밑에서 48일 수행을 할 때도 별이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날에 홀연히 뜬 별을 보고 도리를 깨우쳤을까요? 오랫동안 수행을 하던 부처님이 그때 한 경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참선을 하다가 한 경계나 모습을 보고 홀연히 깨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침입니다. 부처님이 홀륭하다, 우리가 못하다 할 게 없습니다.

선은 부처님이 별을 보고 깨친 도리를 즉각 깨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외 다른 방법으로 선정을 닦고 업장을 소멸해야 깨달음이 온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부처님은 도를 깨친 후 "여래가 깨친 도리는 내가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법계에 본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깨친 자가 부처님입니다. 깨달음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법을 깨치면 부처님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스님이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4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 서 예 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5:00 ~ 19:00

3. 교육기간(6개월)
● 원서접수 : 2005년 9월 20일 ~ 10월 20일 ● 개강일시 : 2005년 10월 25일 (금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신간안내
•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 저 자 : 백설운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재)대한불교진흥원(발행인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 표지 그림 | 김양동의 「고행상(苦行像)」

2005년 9 · 10월호 주요 내용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A에서 Z까지
종법 스님의 기초교리 – ① 5온(五蘊), 5력(五力), 12처(十二處), 18계(十八界)
지상중계 |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 30주년 기념 및 대원 장경호 거사 30주기 추모 법회
이 땅의 불교진흥, 그 영원한 화두를 위하여
법장 스님 법어 "불교진흥의 참뜻 잊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특집 | 멀티미디어시대, 불교 영상포교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불교의 주역인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불교 뉴미디어 포교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왜 불교 영상포교가 필요한지와 선택의 기로에 선 불교 영상포교의 현황과 해결 과제를 살펴보고 방송 전문가를 통해 불교계의 영상포교 방안을 들어보았다.
왜 불교 영상포교가 필요한가
선택의 기로에 선 불교 영상포교의 현황 및 과제
멀티미디어 시대, 불교계 영상포교를 위한 제언
장로대담 | 활안의 선지식에게 듣는 수행한담
S. 조계산 천자암 조실 활안(活眼) 스님
수행Q&A | 수행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다
화두참선 수행 · 위빠사나 수행

테마기획 | 절집 공양간 맛 풍경 – 분경 운달산 김용사 우란분제 올리던 날
시로 지은 절 | 박목월 作 불국사(佛國寺) 그림 정진홍
문화기행 | 떠드는 싱보 – 불교건축(佛敎建築)
현장 속으로 | 부모와 함께하는 제1회 청소년 명상캠프
문화 바로보기
불교식 차례지내기 – 왜 차례 지낼 때 꼭 '차(茶)'를 올려야 하는가
불교문화 되살리기 – 영산재, 삼회향능이와 한국의 축제문화
추모의 글 | 고 무애 서돈각 거사 1주기를 맞으며
염불행자 무애 겨사님, 아미타불로 다시 오소서
내 기억 속의 무애 거사님
향기나는 사람들의 모임 ⑤ 호남지역
평주 한꽃자성봉사원 파견센터 · 전북불교대학 문화제 답사반
서양세계를 빛내는 불교인
불교수행을 통해 연행일치의 삶을 배우는 배우, 피터 코요테
고전 읽기의 즐거움
중국판 '피사의 사람(神馬)'과 트로이 목마(木馬)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도리 확연히 깨쳐야

그렇게 법문을 했다고 여러분이 당장 부처님과 같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되는 원리에 대해 설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처님보다 훌륭해질 수 있는가'란 의문이 들지요? 부처님 경전 안에는 '부처가 뜰 앞에 잣나무다' '삼서근이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처와 조사가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도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스승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장자를 들지도 내리지도 않는 공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도인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삼처전심의 법을 설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훌륭한 신자라 해도 절에 금방 온 요즘 신자만도 못했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 삼귀의 오계만을 설했습니다. 요새는 처음 온 신도도 삼귀의 오계를 알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십선업(十善業)을 닦아서 그 업대로 좋은데 태어나게 하는 게 신도교육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고차원적으로 참선을 가르치거나 화엄경을 설해줄 수 없었습니다.



약산 스님은, 10월16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 입제법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20년에 걸쳐 재가불자를 위한 '간화선 조사선 설선대법회'를 연다.

불교는 가섭존자 등 조사를 거쳐 중국으로 오면서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육조 스님까지 왔을 때의 법은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인 도리와 같았습니다. 그 이후 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배출되면서 선의 묘를 살린 조사선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여래선이 높고 조사선이 낮다고 합니다. 여래는 부처님이고 조사는 스님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스님이 부처님보다 높아질 수 있냐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사가 여래보다 나으며 나았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중국 불교가 선을 전문으로 연구해서 선의 극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조사선에서 간화선이 나왔습니다. 간화선은 중국에서 선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항상 같은 소리를 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해야 그 도리와 법에 기백이 생깁니다. '부처는 청정법신인데 어찌 똥막대기가 되는가' 라는 큰 의심이 생기고 그렇기에 그 의심을 풀기위해 용맹정진으로 공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화두를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두를 깨쳐도 조사선을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전등록>에 나오는 3600여 도인 중 조사선을 깨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사선을 알려면 상당한 안목과 이해력을 갖춰야 합니다.

선에는 묘한 도리가 많습니다. '활인검 살인검(活人劍 殺人劍)' 등이 모두 선의 묘한 도리입니다. 그런 도리는 주인공 하나만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도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야 대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이 약산이 조사선과 여래선의 차이를 이 주장자 도리로 보이겠습니다. 부처님 선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외도선(外道禪)과 범부선(凡夫禪), 소승선(小乘禪), 대승선(大乘禪), 연각선(緣覺禪), 최상승 조사선(最上乘 祖師禪)입니다.

외도선과 범부선은 전부 어리석은 선입니다. 여기서는 '주장자가 그냥 있다'고 봅니다. 한발자국도 불법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외도선은 내가 있다고 봅니다. 내 육신을 구속하고 고행해서 '나'는 영원히 자비와 평화를 누려야겠다며 수행을 합니다. 범부는 어리석게 뭔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소승불교를 닦은 아라한은 이 주장자를 공(空)으로 봅니다. 성문승을 아라한(阿羅漢)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어 멸진삼매에 들어갑니다. 티베트불교도 여기에 속합니다. 티베트불교가 최고 바라는 것이 린포체로 환생하는 일입니다.

조사선에선 "다만 주장자라고 부를 뿐"
상당한 안목과 이해 갖춰야 조사선 알게 돼

연각승의 깨달은 도리는 어떤 것이냐? 이 주장자를 연기된 것, 그림자 꿈 거품 같은 환상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이 설한 도리가 이 법칙입니다. 연기의 법문은 아무리 들어도 성불할 수 없습니다.

대승보살은 어떻게 이 도리를 보느냐? 거기서는 주장자 자체가 공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의 경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조사선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조사선이 여래선만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말입니다. 조사선에서는 이 도리를 "다만 주장자라고 부를 뿐이다"고 봅니다. 이게 더 발전되고 선의 극치를 이루는 도리입니다. 우리는 선을 이렇게까지 알아야 합니다. 선풍이 어떻고 법성이 이렇고 불성 자비가 이렇다고 해서는 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중생들은 부처님 경전 중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경전은 모두 중생을 위해 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같은 경전에는 가섭존자 같은 깨달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조사선도 경전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의 선보다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단계 더 높은 안목을 얻어서 새로운 공안을 형성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20년 동안 이에 대해 하나씩 법을 설하겠으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 사진/통도사=강유신 기자



20년간 이어질 '재가자 위한 설선대법회' 진행

약산 스님은 1940년 生. 1955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61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방선원에서 50여 안거를 성만하고 84~90년 통도사 보광선원장, 1994년 통도사 강주, 1999~2001년 영축총림 통도사 부방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5월부터 통도사 취운선원장을 맡아 재가불자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있다.

약산 스님은 출가생활 50년 동안 집대성한 <선문대전>을 토대로 10월16일부터 향후 20년간 에 걸친 설선대법회를 연다. 매월 첫째와 셋째 일요일 법문을 하고 내년부터는 매주 법문을 할 계획이다. 교재로 사용될 <선문대전>은 한문 200만자에 원고지 1만매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중국불교부터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선의 모든 내용을 약산 스님이 직접 집필했다.



금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명 스님

최근, 우리 사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유난히 성형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제 모습은 서서히 잊어가며, 알 수 없는 미래의 상상속에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도 같다.

그런데, 어느 성형수술 중독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 백날 고치고 치장한들 만족할까 싶다. 고칠수록 치장할수록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간이란,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태어남 그 자체부터가 피투성이 인생 아닌가.

나는 승속을 막론하고 치장하지 않은 순수한 사람을 보면 친근감이 느껴진다. 아마 그런 것은



그림 · 문병성

다양한 환경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이 사람을 감동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수행이라는 것도, 치장하지 않은 자성(自性)의 본래 모습을 찾자고 하는 것 아닌가.

도명 노스님도 그러한 수행자다. 세수 80의 노구(老軀)에도 뒷방에서 쉬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하려고 동분서주하는 분이시다. 후학들과 함께 지역 사회의 복지사업에 열정을 갖고 활동하시는 노스님의 모습을 보노라면 저절로 '큰스님'이라고 부르고 싶다.

도명 스님은 문도가 많거나, 사격(寺格)이 커서 큰스님이 되신 것은 아니다. 진정 중생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중생의 고(苦)를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사회적인 실천에 앞장서신다. 따라서 후학들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고 있다.

도명 스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90년대 초반이다. 당시 내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 노스님이 한 분이 수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었다. 토굴이라 하여 산중을 연상하며 그곳에 있는 수행자에 대한 감상적인 생각도 없지 않았는데, 막상 찾아가 보니 이러한 생각은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 주택가 인근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해도, 훨길 둑옆에 위치하였고 천막으로 만들어진 인법당이었다. 보기만 해도 수행정진은 물론 살기에 불편해 보였다.

그러나, 객을 맞는 노스님의 꾸밈없는 모습은 저절로 도량을 환하게 바꿔놓았다. 손수 차대접을 해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해 마치 자비보살(慈悲菩薩)을 친견하는 듯 했다. 나는, 훌륭한 스님을 그저 껍데기만 보고 찾아다닌 듯하여 왠지 송구한 생각도 들어 <금강경(金剛經)>의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란 구절을 새겨보았다.

또한 차담(茶談)을 하면서 더욱 놀랐다. 연세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 비상했고 수행관 또한 깊었다.

"도(道)라는 것이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자리에 있다." "절이라 하는 것이 꼭 팔작지붕이어야 하나? 쓰러져 가는 토굴이라도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고뇌로부터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도량이라면, 그만한 기도처가 어디 있겠는가."

세수 80에도 쉼없이
지역복지사업 혼신

이렇게 말씀하시며, 스님들이 중생구제의 원력을 어디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셨다. 자기가 처한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작은 일부터 이타행(利他行)을 하라고 권했다.

이후 도명 노스님께서는 일산에 동국대불교병원이 건립된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우리 지역에서 불교연합자원봉사단을 결성하자고 하셨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불교적인 정서를 확산하면 지역의 전법사로 포교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같이한 9명의 스님들이 2002년에 사단법인 천수천안자원봉사단을 창단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문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하였다.

도명 노스님은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 우리 사회의 참여와 협력, 정신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려 앞장서신다. 그리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입구에서 좋은 도반을 만나고 눈 밝은 스승의 인연을 맺어주려고 노력하신다.

스님의 이러한 마음을 엿보노라니, 자신의 육신마저도 보시하여 굶주린 사람을 구하고자 원력이 가득했던 대승보살의 모습이 겹쳐진다.

금담 스님은 1974년 사미계, 7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홍국사 주지, 경찰청 경승실장, 한국 · 티베트불교친선교류협회장등을 역임했다. 현재 남양주 무량사 주지와 남양주 · 구리 불교사암연합회 공동회장, 남양주 · 구리 천수천안자원봉사단장을 맡고 있다.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연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제 1회
미주 한국 불교 포교 40주년기념 HONOLULU, HAWAII
한·미 불교인 심포지움과 친선 체육대회

천혜의 자연! 하와이에서 불자님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하와이 정법사에서 미주 포교 40주년을 맞이 하면서 한국불교 미국속의 역할과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과 모색을 위하고 불자님들의 한 • 미간 교류를 통하여 정체성을 다지고 나아가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심포지움을 개최 하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배전의 성원과 많은 참석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와이 불교 심포지움 & 골프 및 관광 6일 2005년 11월 30일 출발

제 1일 (11월 30일) 하와이 호놀루루, 한미 불교인 축하 만찬법회 참석
제 2일 (12월 1일) 한미 불교인 친선 골프대회장 이동(Prince Golf Course Rounding), 시상식 및 만찬
골프장 미참석시 관광(바람산, 주정부청사, 이올리니 왕궁, 가메하메하대왕 동상 관람, 호놀루루 시청등 관광
제 3일 (12월 2일) 오하우섬 일주관광
제 4일 (12월 3일) 자유시간(와이키키해변 해수욕등 해양스포츠 선택관람)
제 5일 (12월 4일) 호텔 체크아웃 호놀루루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심포지움
일 시 | 2005년 11월 30일 (수요일) 하와이 현지시간
장 소 |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호텔 코랄 볼룸(호놀루루 하와이)
주 제 | 1) 한국불교 미국속의 동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 한국불교 미국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 모색
토 론 | 휘광 스님 (뉴욕 불광사 주지 스님)
총진행 | 성원스님(웨스트 대학 교수)

친선체육대회(Golf)
일 시 | 2005년 12월 1일 (목요일) 하와이 현지시간
장 소 | 하와이 프린스 골프코스
특별참가자 | 불자님중에 현역 여자 프로골퍼와 가수, 탤런트등 다수 참가 예정입니다.
시상식 및 저녁만찬 | 가) 하와이 프린스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나) 홀인원상 과 3홀 3곳에서 상금 각 US $10,000 1곳에서는 밴츠승용차 제공. 우승, 메달리스트, 준우승,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행운상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경기는 샷건과 캘리웨이 방식입니다.

1인 149만 5천원 선착순 80명한
▪ 축하만찬법회 참가비 ($100), 골프대회 참가비($150), 팁과 중식 (1회)요금은 별도입니다.
▪ 항공료, 호텔 숙박비 및 식사, 차량, 안내원, 여행자보험(1억원),공항세, 유류 할증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수처 (주)미문여행사 : 02)722-8111 | 투어오픈여행사 : 02)736-2000 | 시티여행사 : 02)737-4757

외국문화 국내에서 100배 즐기기

굳이 어학연수와 배낭여행을 가지 않고 외국 문화를 접할 수는 없을까? 바로 서울 시내와 전국에 소재한 각국의 문화원에서도 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주말은 가까운 외국 문화원에 들러 언어, 영화, 노래, 그림, 서적, 무술 등 다양한 외국 문화를 접해 봄은 어떨까.

중국 대륙의 생활상 한 눈에-중국문화원

프랑스, 이집트, 몰타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 한국에 문을 연 중국문화원은 중국 마니아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문화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을 경계로 우측으로는 중국의 유명한 화가 룽 루이가 그린 중국 황산이 웅장하게 한쪽 벽면을 다 장식하고 있다. 옆에는 서예가인 우흥엔의 스케일 큰 작품도 한쪽 벽에 멋스럽게 걸려 있으며 중국의 홍나무로 만든 명나라 스타일의 장식장과 소파, 테이블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고즈넉하게 놓여 있다.

중국문화원의 간판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중국 무술 '태극권'과 '중국의학 강좌'다.

중국의학의 경우 대한중의협회와 공동으로 기초이론, 기(氣) 호흡법, 안마 등을 교재비(1만 5000원)만 받고 가르쳐준다. 매달 한 번씩 중국 문화에 대한 심층강좌도 열린다. 3000원을 내고 회원으로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

또 100여석의 좌석을 갖춘 지하 1층 소극장에서 상영되는 중국 영화 관람(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3시)과 2층의 전시실도 빼놓을 수 없는 이곳의 볼거리다.

문화원 3층에서 중국어, 서예, 회화교실을 열고 4층 도서관에는 1만여 중국 관련서적이 마련돼 있다. 11월부터는 7층 요리교실에서 중국요리강좌도 열릴 예정이다. (02)733-8307



빠른 유학정보와 최고수준의 어학강좌-영국문화원

영국문화원은 빠른 유학정보와 최고수준의 어학강좌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영어의 종주국' 답게 '어학센터'에서 무려 100여개의 강좌가 열리고 있다. 이곳은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우수한 강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일부 강좌는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학생들이 몰린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영어도 편하게 배울 수 있다. 도서관 책장에는 어린이들이 볼만한 그림책과 학습관련 영어책들이 절반 이상인 것도 영국 문화원의 특징. 3·4층 대부분의 강의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다른 문화원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또 영국문화원은 신문과 잡지, 일반 도서들을 비롯해 영화, 다큐멘터리, 비디오테이프, CD-ROM, DVD 등 다양한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어 언제든 영국관련 정보를 만날 수 있다. 문화원 인포케이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비디오나 도서 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이곳에서는 유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정기적 설명회나 회원들 중심의 영국관련 세미나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성인을 위한 특별코스로는 회화·청취·작문·시사 등의 강좌가 있다. (02)3702-0600



10대에서 70대까지 누구든 오라- 일본문화원

일본문화원을 찾는 연령층은 10대에서 70대까지로 다양하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자유롭게 일본문화원을 찾는 이유는 연령대별로 외국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배치에 있다.

1층 '일본정보광장(JI·Sqaure)'은 중장년층이 일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등을 배치해 놓고 휴식공간도 만들어 놓았다.

또 1층 도서관 한쪽엔 유학상담과 JET(일본어 능력시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코너가 있어 일본의 대학, 전문학교, 대학원 등에 관한 각종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층 일본음악정보센터 'JMIC'에는 J-POP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CD, DVD, 뮤직비디오 등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신분증을 가져가면 무료로 회원증을 만들어주며 일본 관련 티셔츠도 준다.

도서관에 가면 일본 서적은 물론 일본 만화도 원 없이 볼 수 있다.

2층 실크갤러리에서는 연중 본토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의 수준 높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일본의 세계유산을 본 따서 만든 미니어쳐모형, 특유의 익살스러움을 담은 민화, 일본 인형전시 등을 관람할 기회를 갖는다면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에 대한 새로운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이다. (02)765-3011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 지역별 문화원

지역	문화원	전화	홈페이지	지역	문화원	전화	홈페이지
서울	독일문화원	(02)754-9831	www.goethe.de/seoul	대전	독일문화원	(042)823-3522	
	프랑스문화원	(02)317-8564		전주	프랑스문화원	(063)226-7115	
	이탈리아문화원	(02)796-0634	www.italcult.or.kr	광주	프랑스문화원	(062)527-2500	www.afgwangju.co.kr
	터키문화원	(02)338-1801	www.turkey.or.kr	부산	일본문화원	(051)465-5101	www.kr.emb-japan.go.jp
	이스라엘문화원	(02)534-9835	www.israelstudy.co.kr	제주	일본문화원	(064)742-9501	
	뉴질랜드문화원	(02)3454-0059	www.nzc.co.kr				

이영화 어때요?

연쇄살인 부른 잔혹하고 슬픈 분노

오로라 공주 감독: 방은진 출연: 엄정화, 문성근 장르: 스릴러 상영시간: 100분 등급: 18세 이상

영화 '오로라 공주'는 만화영화 '손오공'의 아름다운 여주인공 오로라 공주처럼 착하고 순진하지 않다. 다섯 명을 살해한 미모의 살인마라고나 할까. 오로라공주의 비밀과 함께 전혀 예기치 못한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밝혀지는 순간 한 인간의 분노를 잔혹하면서도 슬프게 그린 영화 '오로라공주'.

영화 '오로라공주'는 이미 범인을 밝힌 채 사건을 쫓아가는 구조로 기존의 장르적 성격과 차별점을 가진다. 영화 속 엄정화 역시 지금까지의 스릴러물 여주인공과는 다른 '눈물기를 머금은 싸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연쇄 살인사건 현장에 어김없이 붙어있는 오로라공주 스티커. 사건을 담당한 오형사(문성근 분)는 현장 CC-TV를 통해 "날 찾아봐…"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정순정(엄정화 분)이 범인임을 100% 직감하지만 증거 0%다. 또한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리며 각기 다른 수법으로 잔혹한 살인을 범하는 순정, 돌연 살인장소를 공개하며 도심 외곽 쓰레기매립장으로 군·경과 언론, 전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배우에서 감독으로 출사표를 던진 방은진 감독의 데뷔작 '오로라공주'. 과연 그녀의 작품이 스크린을 통해 얼마만큼 관객의 호응을 받을지도 흥미롭다.

노병철 기자

게시판

남도답사 광주불교교육원에서는 '남도 땅 끝에 피어난 불교문화'를 주제로 10월 30일 해남 대흥사, 미황사, 강진 백련사, 고산 윤선도 유적지 등을 답사한다. 접수는 10월 26일까지며 선착순 40명. (062)228-9098

한글학교 학생·봉사자 모집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배움의 기회를 잃은 노인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용호한글학교학생과 프로그램을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 (051)628-6737



무의탁 노인돕기 바자회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28일, 무의탁 노인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위한 바자회를 복지관 주차장과 놀이터에서 실시한다(사진). 판매품목은 밑반찬류, 의류, 잡화 등이다. (02)2282-1100

'아파트를 한옥처럼' 강의 사단법인 한옥문화원은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아파트를 한옥처럼'이란 주제로 한옥 건축자재를 활용한 실내디자인 강의를 실시한다.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접수는 10월 30일까지. (02)741-7441

도·농 화합축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쌀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도·농 화합 축제인 '2005 가을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귀농자 물품 판매, 대동놀이 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된다. (02)576-1886

20면 상식 퍼즐 정답

도	돌	이	표			
리			준	공	식	
천	안		어		곤	
	고				증	자
	수					자
	비	분	강	개		손
				조	막	손

공연

들리나요? 자연의 신비가…

10월 26~27일 '사색의 춤 알·수·없·어·요' 공연



늘휘무용단이 자연을 몸짓으로 승화시킨 '사색의 춤 알·수·없·어·요'.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 황병기의 음악, 유영교의 설치조각, 김명숙의 춤이 만났다. 김명숙 단장(이화여대 교수)이 이끄는 늘휘무용단이 선보이는 2005 가을신작 '사색의 춤 알·수·없·어·요'가 10월 26~27일 오후8시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바람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꽃 이끼 시내 저녁놀 등 자연을 노래한 '알 수 없어요'의 시어들은 '침묵의 언어'인 춤으로 되살아난다. 평소 애송시가 '알 수 없어요'인 황병기 명예교수(이화여대)가 혼심의 힘을 기울여 작곡한 '알 수 없어요'와 조각가 유영교씨의 작품들이 무대를 장식한다.

김명숙 교수는 "이번 작품은 자연의 소리, 빗소리 계곡의 물소리를 많이 가미시켰고,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춤 동작을 안무했다"고 설명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전시

해상왕 장보고를 찾아서

해양유물전시관서 특별전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표준영정.

KBS 드라마 '해신'의 여운을 잊지 못했다면 이번 주말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기획전시실로 해상왕 장보고를 찾아 떠나보자.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김성법)과 (재)해상왕 장보고기념사업회이 공동으로 10월 18일~12월 18일까지 국내 첫 장보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장보고 대사의 실체를 고고학 자료와 문헌기록, 우리 민족의 해양교류사 연구업적 등을 통해 장보고를 유형화(有形化)하는 첫 시도이다. 문관복을 착용하고 있는 장보고 인물상을 비롯해 복원한 갑옷, 투구와 칼, 활 등이 전시된다.

전남 완도의 장도 청해진 유적과 제주 법화사지, 흑산도 경주 부여 익산 등지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시대의 대중국 교역관련 유물들이 선을 보인다. 청해진 유적에서 출토된 방어용 목책, 해무리굽 청자편, 청동병도 특별전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061)270-2039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 부산 FM 89.9 MHZ / 광주 FM 89.7 MHZ / 대구 FM 94.5 MHZ / 청주 FM 96.7 MHZ / 춘천 FM 100.1 MHZ —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BBS 불교방송	Btn 불교TV
24일 07:05 아침저널	24일 21:10 한국의 명찰
25일 09:05 행복한 미소	25일 02:40 불교TV스페셜
26일 14:05 낭만라디오	26일 22:10 법정 스님 법문
27일 17:05 무명을 밝히고	27일 19:30 회암사지 산사음악회
28일 18:25 오늘은 좋은 날	28일 15:15 휴먼다큐
29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29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30일 22:05 밤보다 아름다운 음악	30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박진선의 트롯시대(10월 28일 19:00~20:00) 4050세대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다시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박진선의 정겨운 입담과 재치로 저녁의 나른함을 말끔히 씻어보는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현각 스님의 살아있는 금강경(10월 30일 01:35~02:30) 불교경전을 대표하는 <금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DVD] '한국의 범패 시리즈'

불음(佛音)과 불무(佛舞)의 향연 '범패'를 DVD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제50호 전수자인 혜공 스님의 '한국의 범패 시리즈-상용영반, 상주권공, 대령·관욕'이 그것. 제1편 '상주권공'과 제2편 '대령·관욕', 제3편 '상용영반'은 각각 영혼들을 위해서 지장보살님께 올리는 재의식, 영가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범패 의식, 모든 제반의식을 하고 난 뒤 마지막 조상님께 음식을 올리고 행하는 범패의식 등을 영상으로 담았다.

나에게 아비라 기도는 (하)

김두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삼천배에서 시작된 나의 불교인연은 아비라 기도를 만나게 해 주었고, 지금까지도 일년에 네 번 아비라 기도를 하고 매달 삼천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불교에 좀 더 다가가고 보니, 지금 내 자신의 신행생활이 미흡하다고 생각돼 항상 성철 큰스님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더불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불교를 만나게 해 줄 수는 없을까도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인터넷이었다.

전 세계를 이어주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면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철 큰스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좋은 기도법을 빨리 많은 법우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불면석(cafe.daum.net/bmsuk)' 카페다. 2005년 4월 13일에 출발한 불면석은 5개월 만에 회원이 270여명을 넘어섰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해인사 백련암에 모여 철야 삼천배 기도를 한다. 그리고 매달 넷째 주에는 마곡사에서 능엄주 수독 철야기도 일정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더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달에 두 번씩 모이는 법회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맺어지는 불연(佛緣)이다. 회원들이 카페에 올리는 살아있는 글은 초심자들이 삼천배와 아비라 기도 그리고 일과기도 등의 수행을 할 수 있는 발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말로만 듣던 삼천배가 두려워서 감히 도전해 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불면석 카페에서 다른 이들이 삼천배 원만회향한 후 올린 후기를 보고 발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초심자를 불교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야 말로 정말이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기도가피가 아니고 무엇이랴?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없다. 힘든 삼천배와 아비라 기도를 직접 해보고 나서 확신에 찬 언어로, 주위 법우들을 설득해 해인사 백련암에 데리고 오는 후배도반들을 보는 내 마음은 정말 뿌듯하기만 하다.

성철 큰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불면석에서는 내 안의 불성을 찾고, 업장소멸의 기회를 만들고자 힘든 결심을 하고 해인사 백련암에 참석한 초심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성철 스님 가르침 알리기 위해 카페 개설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활기도법 적극 홍보

'심원'이란 불명 부끄럽지 않게 정진 전념

전체 대중이 아무리 많아도 초심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회원들 모두는 그 한 사람의 삼천배 원만회향을 위해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천천히 호흡을 맞추어 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선배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불심을 키우고 다져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이것이 불면석의 튼튼한 전통으로 이어져나가도록 하고 싶다.

불면석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한 가지 기도법이 있다. 그것은 생활기도법으로, 역시 성철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가 매일 절에 가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을 하루도 놓지 않고, 내 자신을 굳건하게 만들면서 근기를 만들어 가는 기도법으로, 매일 하는 일과기도가 그것이다.

예전 백련암에서 삼천배 기도를 하면 성철 스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불명(佛名)이고, 두 번째는 일원상(一圓相)이고, 세 번째가 '삼(參)서근'의 화두이며, 네 번째가 '불기자심(不欺自心)'의 수행심이다

그 중 일원상은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고, 매일 그 앞에서 참회기도를 한다. 예를 들면 기도를 좀 오래하신 분이나, 특별하게 스님으로부터 숙제를 받게 되면 집에서 절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일원상 앞에서 기도를 한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매일 연결되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기복적인 부분이 생길 때만 찾아가게 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필요 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예불과 참회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것이 수행정진이다. 그러니 집에다 일원상을 내 마음의 부처로 걸어놓고 집에서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다.

나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 들였고, 또 지금까지 행해왔으며 또 이 부분을 카페를 통해서, 삼천배를 통해서, 법우들에게 수행의 지침서로 전해 주고 싶다. 죽을 때까지 예불대참회문을 보면서, 매일 세끼 밥 먹는 것과 똑같이 빠짐없이 108배 참회기도를 하고 능엄주를 하는 것이 백련암으로 삼천배를 다니는 우리들 수행의 기본이다.

그렇게 정진력이 힘이 붙으면 108배의 숫자를 늘려 300배를 하기도 하고 500배를 하기도 하고 1000배를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능엄주 수독도 하루 1독에서 3독, 7독, 14독으로 늘려나가기도 한다.

부모에게 받은 육신의 몸으로 도를 이루기 위한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우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으로 업장소멸과 참 '나'를 찾아가는 정진력을 묵묵히 행할 따름이다.

스님께 받았던 불명도 수행의 큰 지침이 된다. 법명을 받은 지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심원(心源)이라는 불명 값도 못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라" 하고 말씀하셨던 성철 큰 스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다. 16년 기도 다닌 세월에 내세울 밑천 하나 제대로 없건만, 늘 스님이 주신 '삼(參)서근'의 화두를 들고 자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수행심으로 정진해 나갈 따름이다.

이렇게 신행수기를 쓴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끄럽고 커다란 짐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새삼스럽게 나의 게으름을 탓하는 채찍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성철 큰스님을 만났던 인연으로 지금 신행수기를 쓰고 있고,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철 큰스님의 위대한 사상과 생활기도법이 많은 법우들에게 공감하고 실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큰스님께 받은 심원이라는 불명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에, 불면석이라는 카페를 통하여 내 생각이 아닌 성철 스님의 말씀과 사상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전념하고 노력할 따름이다. 인연 있는 도반들이 한 분이라도 만나진다면 그 분을 위한 삼천배를 하고자 할 뿐이다.(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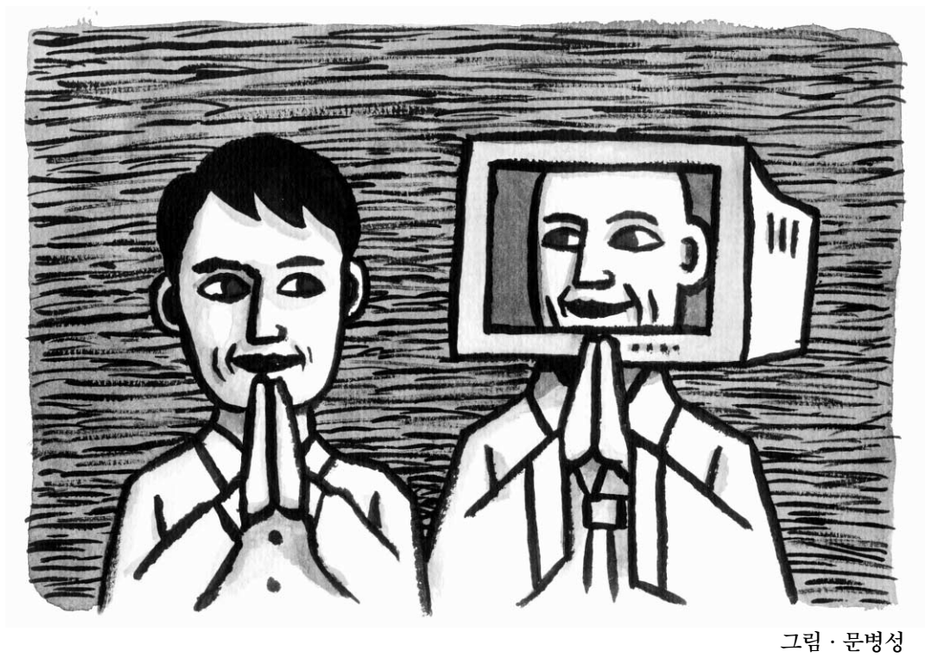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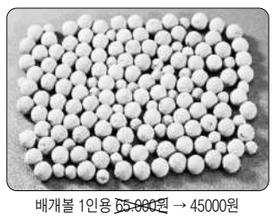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2005년 확제신간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신국판 / 396쪽

해조음 /값 9,500원

저자특별공개강좌

주요내용

-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불 출세시 인간 수명이 팔만사천세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진위와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 중생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래출현의 비밀은 무엇인가??



- 서울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 부산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 대구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

강좌 문의 053)653-9124

전국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침대 · 황토손 · 황토불판

황토는 오랜 세월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규소성 광물로서 흔히 '태양에너지 저장고'라고 불립니다.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구멍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활동을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황토손 · 황토불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 하여 엄청난 약성을 가진 무병장수의 흙으로 사용되어온 황토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집 건강 지킴이입니다.

사찰이나 가정에 황토방을 시공해 드립니다.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 위에 올려놓은 모습

황토손의 탁월한 효능

1. 정화작용 및 해독제 역할
2. 인체의 순환작용
3. 통증의 완화작용
4. 신진대사 촉진

황토침대에서 숙면을 취하면 기운이 되살아나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황토불판에서 일품 요리의 맛을 느껴 보십시오.



황토불판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

● 제품 가격 : · 황 토 침 대 (1인용) : 1,500,000원 · 황토손 + 황토수건 : 20,000원 · 황토불판 + 황토쇠판 : 25,000원 · 황토손 + 황토불판 셋트 : 45,000원

● 입금 계좌번호 : · 농 협 : 178990-56-003521 (이점숙) · 대구은행 : 023-07-473126-001 (이점숙)

● 구입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43-1 중앙시장 108호 대구 · 경북지사장 이노사나 합장

011-817-9364 · 017-804-0215 · 053-585-9364

제52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10월 29일(토) 저녁 9시 ~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얀마음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선사들의 차 일화와 화두

정신을 맑게 해주고 잠을 줄여주는 차는 수행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만큼 불가에는 차와 관련된 많은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불교와 차에 대해 연구해 온 혜봉 스님(이천 지족암 주지)이 선사들의 어록 속에서 차에 얽힌 일화와 화두를 찾아 정리한 <차와 선 그리고 화두>를 펴냈다. 이 책을 통해 불가에서 차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본다.

깨달음의 중요한 매개체

혜봉 스님, 차에 얽힌 일화 묶어 <차와 선 그리고 화두> 펴내

어떤 스님이 원상(圓相)을 그리고 뒤로 던진 뒤에 절을 하니, 대수법진(大隋法眞) 선사가 시자에게 말했다. "저 스님에게 차 한 잔을 달여다 주어라."

한 스님이 자복여보(資福如寶)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화상의 가풍입니까?" "밥 먹은 뒤에 차 석 잔이니라(飯後三碗茶)."

운암담성(雲岩曇晟) 선사가 차를 달이고 있는데 천황도오 선사가 물었다. "누구에게 주려고 차를 달이는가?" 운암이 대답했다. "마시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네." 천황이 다시 물었다. "왜 그더러 스스로 달이라고 하지 않는가?" 운암이 다시 답했다. "마침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흔히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것을 일컬어 '선문답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선사들의 대화는 일반인들의 잣대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이러한 선문답에 사용된 비유와 예시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차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위에서 살펴본 선문답들도 '차'를 매개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 '조당집' '선문염송' 등에 차 관련 화두 전해
> '마조의 차 한그릇' 다선일여의 중요한 근거
> 끽다거의 평상심시도는 선 진수 보여줘

달마선사에서 육조혜능 스님에 이르는 중국 선(禪)의 황금시대에는 차와 관련된 일화와 화두가 많이 생성됐다. 선사들은 차를 달이거나 찻자리에서 차를 나누거나 차밭에서 찻잎을 딸 때도 법을 묻고 답했는데, 이때 차는 깨달음을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됐다.

최초의 선종 사서(史書)인 <조당집>에는 차와 관련된 화두가 37개 나오고, <경덕전등록>에는 62개, <선문염송>에는 27개의 차 관련 화두가 전한다. 이는 당시 선승들에게 차 마시기가 일상적인 일이었음을 방증해준다.

그렇다면 차는 화두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끽다거' 화두로 유명한 조주 선사는 "말을 꺼낸다거나 손발을 꿈적거린다거나 하면 그 모두가 저의 그물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선사께서는 이것을 떠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나는 점심을 먹고 아직 차를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주 선사는 말과 행동 언어를 떠나 '도'에 관해 말해달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일상사를 이용해 답했다. 이처럼 차는 '평상심이 곧 도(平常心是道)'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데 더없이 적합한 소재였다.

중국 선불교에서 차를 마신 선승과 선원은 마조 스님 이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마조 스님은 차를 화두 속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해 '마조의 차 한그릇'이라는 화두를 남겼고, 이는 마조선사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가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선학(禪學)적 토대가 되었음을 밝혀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같은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기에 마조 선사는 '중국 선차의 연원'이라거나 '선조의 차 문화가 마조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칭송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널리 알려진 '끽다거' 화두는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을까? 흔히 조주선사의 대표적인 화두로 알고 있는 '끽다거'는 그보다 앞선 귀종지상 선사의 '귀종끽다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상선사가 풀을 깎고 있을 때 강사(講師) 스님이 찾아 왔다. 때마침 뱀이 지나가자 지상선사가 낫으로 끊었다. 강사 스님이 "귀종이 원래 거친 행동을 하는 사문이라는 것은 익히 들었소"라고 말하자 선사가 답했다. "좌주여! 다실에 가서 차나 마셔라(座主歸茶堂喫茶去)."

이렇게 시작된 '끽다거'는 조주선사에 의해 꽃을 피웠다. 조주선사는 "일찍이 여기 왔던 일이 있는가?"는 질문을 던진 후 온 적이 있다고 한 사람이나 온 적이 없다고 답한 이 모두에게 '차나 마시게'라고 말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자가 "왜 와 본 사람이나 오지 않았던 사람 모두에게 차를 마시라고 하느냐"고 묻자 조주 스님은 답했다. "끽다거."

이 같은 끽다거 화두는 목주 진존숙의 '목주끽다'로 이어진 후 동산양개, 목주도명, 양기방회, 설봉의존, 법안문익 등 23명 선사들에 의해 27편의 다양한 끽다거 화두로 재탄생됐다.

끽다거 화두를 사용한 이나 그 배경은 시대에 따라 각기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로 모아진다. 이처럼 '끽다거'는 한때의 일시적인 유행이나 방편이 아닌 선종의 역사와 더불어 면면히 전해지며 선의 진수를 보여주는 '선어(禪語)'였음을 알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 대사의 뒤를 이어 선 수행 가풍을 이어온 선사들은 매일 마시는 차를 매개로 깨달음을 전해왔다. 사진은 달마상 석각화.

초의차문화축제 28~30일 열려

우리나라 차문화 중흥조인 초의선사(1786~1866)의 차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14회 초의문화제'가 10월 28~30일 전남 해남 대흥사와 일지암 일대에서 개최된다.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공동위원장 윤형식 해남다인회장,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열반 139주기를 맞는 초의선사 추모제와 초의선사 동상 앞에서 진행되는 육법공양, 사생대회와 서예대회, 작은음악회 등이 열린다. 30일에는 대흥사 새벽숲길 산책, 여연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선담, 부도전 조사다례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061)534-5502

천태 차문화축제, 부산 삼광사서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회장 춘광)는 10월 26일 오전 10시 부산 삼광사 지관전에서 '제3회 천태 차 문화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 문화 대회에서는 천태차문화학술대회와 천태범패연구보존회의 헌다작법 시연회, 전국 사찰 다도시연 및 들차회가 펼쳐진다.

학술대회에서는 원행 스님(광제사 주지)의 '고려시대 사원 행다법', 정인오 교수(한서대)의 '차의 종류와 관능검사에 대하여' 등이 발표된다. (043)426-7100

조선시대 ㉒



김홍도, 계회도·품다도 등 많은 다화 남겨
다산의 다신계절목, 차 모임 자세히 실어

천주교의 박해가 심해져서 정국(政局)이 소용돌이 치는 속에서도 단원 김홍도는 많은 명작을 남겼다. 현재 전하는 다화(茶畵) 중 '계회도'나 '품다도' 등은 차문화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한편 숙선옹주와 홍현주의 가례로 홍씨 일가의 차생활이 알려졌다. 무엇보다 다산의 다신계절목은 차를 통한 모임의 운영이나 조직원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 속에는 다산의 차 정신과 사회의식이 들어 있다. 그리고 초의와 추사가 만난 것도 우리 차문화의 한 장을 빛나게 한다.

중국은 차의 외교적 문제가 부각되고 다상(茶商)들의 노력이 차의 유통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 차에 관한 세부적인 책들이 나왔다.

① 이상적(1804~1865): 추사의 문인으로 호는 우선(藕船)이라 한 역관이다. 중국을 자주 다녀와 '세한도'를 전하도록 했고 백산차에 관한 다시를 지었다.

② 1810년을 전후한 기향에서 성균관유생과 승무원 관원들에게 보인 시험 답안지를 모은 책이다. 그 중에 진사 남면중과 홍길주의 답안이 차에 관한 내용이다.

③ 김홍도(1760~?): 강렬한 개성으로 자신의 경지를 개척한다. 많은 다화를 남겨 차문화 발전을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④ 허유(1809~1892): 서화가로 호는 소치(小癡). 초의와 추사에게서 그림과 글씨를 익혀묵죽과 모란에 능했고 운림산방에서 차를 즐겼다.

⑤ 다산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신계를 만든 후 그 규칙과 자산 운영에 관해 정한 절목이다.

⑥ 범해각안(1820~1896): 대둔사 13대 강사를 역임했으며 선과 차를 융화시켜 추앙을 받는다. 다시 수십 편이 전한다.

⑦ 임칙서(1785~1850): 아편전쟁 중에 많은 외교활동과 군사활동으로 외세방어에 노력했다. 그 중 차에 관한 대외적인 일에 대처했다.

⑧ 정진이 찬한 책으로 새차를 따는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⑨ 요형(1785~1853): 청대 사학자로 호남안찰사를 지낸 차인이다. 그의 문집 중 <감포궤다(堪布饋茶)>에는 차의 거래와 가격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⑩ 유월(1821~1906): 청대 경학가로 <춘재당전집> 500여권 속에 차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다. '과다(誇茶)' '다향실총초(茶香室叢鈔)' 등이 있다.

반영인: 청대 차학자로 다낭(茶囊) 수정다우(水晶茶盂) 등의 많은 저서를 남겼다.

⑪ 강유과(1792~1854): 아들 문찬(1821~1862)과 손자 요화까지 삼대에 걸쳐 근 100여년간 이어져 온 유명한 다상(茶商)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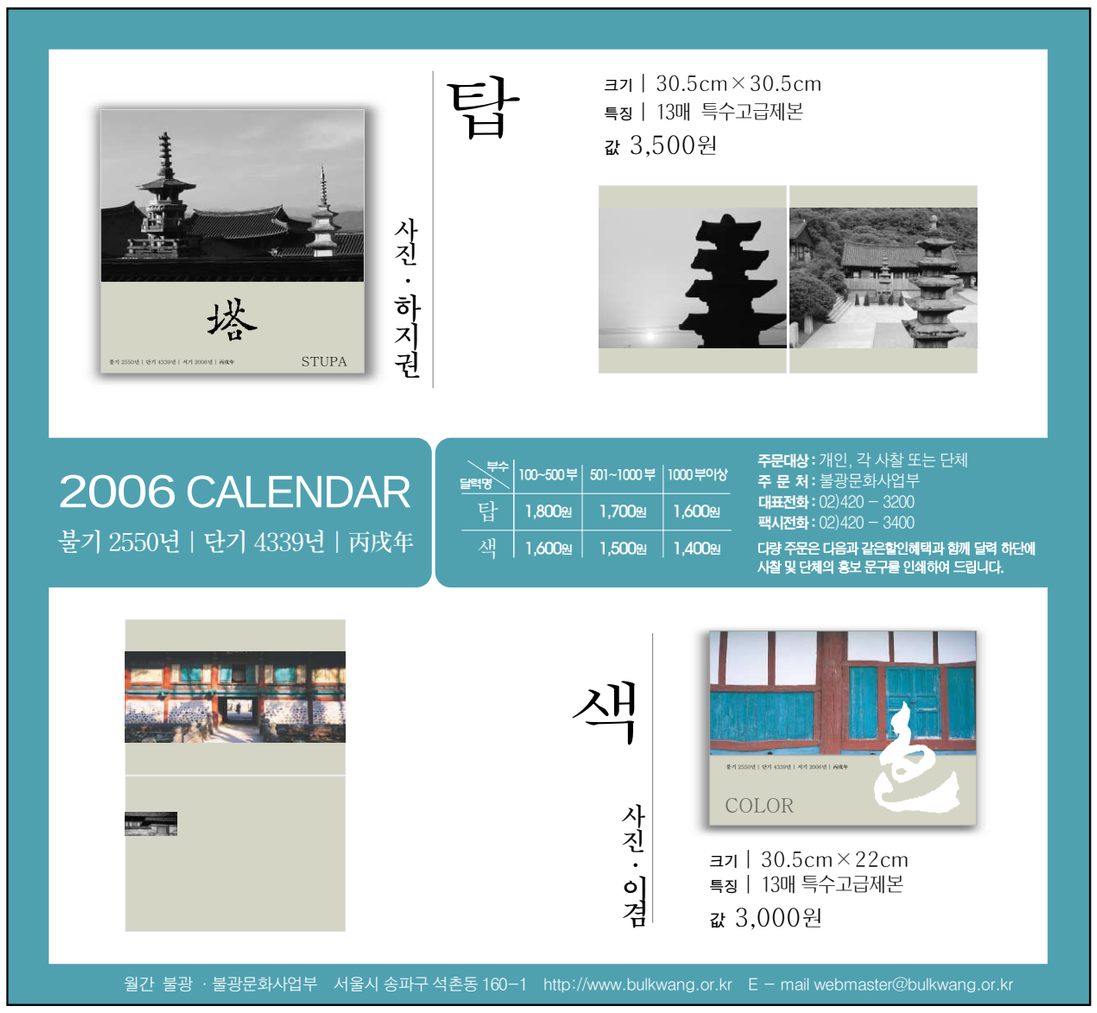
⑫ 덕천제소(1800~1860): 수호번주(水戶藩主)로 다설(茶說)을 쓸 때 유교경전의 이론을 끌어와 설명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800 청조 조문 칙사 임금께 약차 처방 1801 황사영 체포 이승훈 이가환 처형 1804 이상적(李尙迪)의 출생 ① 숙선옹주 가례 1805 박지원의 죽음 @ <승상편년(陞庠編年)> ② @ 김홍도(金弘道)의 활동 ③ 1809 허유(許維)의 출생 ④ 1812 혜장의 입적 1815 초의, 추사를 만나다 1817 <경세유표> 1818 다산의 해배(解配) @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 ⑤ 1820 범해각안(梵海覺岸)의 출생 ⑥	청대	@ 임칙서(林則徐)의 활동 ⑦ 1808 <사명지미(四明志微)> ⑧ @ 요형(姚瑩)의 활동 ⑨ 1812 좌종당(左宗堂)의 출생 @ 유월(兪樾), 반영인(潘永因)의 활동 ⑩ @ 강유과(江有科) 일가(一家)의 활동 ⑪	강호시대	1800 덕천제소(德川齊昭)의 출생 ⑫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도 얻을 수 없다

내면의 힘을 기르려면…

문 삶은 고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습니다. 스님, 내면의 힘을 길러서 자유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이 힘들고 괴로운 일상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는지요?

답 언제나 우리가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겨나서 살아가는 이날까지 이끌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이끌어 가기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다, 가정마다 크고 작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뒤따르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타파하고 나갈 수 있겠느냐는 문제죠. 부처님이 정법을 가르쳐 주시고 핵심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바로 강설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내면에서 나오는, 좋은 것만이 아니고 슬프면 슬픈 것대로 아프면 아픈 것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것대로 어떠한 것도 고정됨이 없이 나오는 그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아무리 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내면에 맡겨 놓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항상 해야만 용광로에 헌쇠, 잡쇠, 짧은 쇠, 부서진 쇠든 다 집어넣듯이 우리들도 괴로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주처를 믿고 거기다 다시 집어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재생돼서 다시 새 쇠로 재생해서 나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마다 자꾸 아픔이 느껴집니다. 아픔이 느껴지고 왜 이렇게 걸어야만 했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했고, 왜 이렇게 아파야만 했고, 왜 이렇게 허덕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길을 걷다가도 남이 볼까 무서워서 눈물을 씻고 했습니다. '네가 뭐길래, 중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 길을 걸어야 하느냐.' 하고요.

그런데 남들은 강설을 듣고도 허세스럽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얘길 하고, 그것을 허세 삼아서 나의 아픔은 감추어 놓고 바깥으로만 웃고 그러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 웃음도 어디로 간 곳이 없고 집안의 걱정과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듣고 강설을 들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커버해 나가고 실천을 하고 그대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내면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처, 본래 자성불은 자기가 스스로 청정함을 알고, 본래 자성불은 본래 자기가 여여함을 알고, 본래 자성불은 자기가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알고, 본래 자성불은 자기가 그대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래 자성불은 자기가 스스로 자유스러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소리 듣지 말고 자기 본래 자성불을 믿고 관하면서 공부하세요. 어느 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근근이 살다가 이제는 남편도 없고 그런데 돈 조금 나오는 걸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자식들은 점점 자라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증권에다 넣었다고 합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애들은 다섯씩이나 되고 엄마 혼자 어떻게 할 양으로, 저게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내 가슴속에서 뇌리를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이 '이거를 팔아라. 이거를 사라.' 이러는 소리를 듣지 말고 네 마음속에서, 주인공에 맡기고선 스스로 네가 사고 싶은 그것을 사고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듣지 말라.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을 때 얼른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돼서 애들하고 원두막이라도 하나 살 수 있게끔 17평짜리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머지 가지고 어물전을 내는데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얻어 가지고라도 그것을 하라고 하면서 아예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 사는 게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저 강당에, 아니 법당에 부처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방에 부처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안방뿐만 아니라 저런 일터에도 그 한 분 한 분이 일을 하면서 거기 계신 그 반면에 바로 마음을 내면세계에 깊숙이 나를 이끌어 가는 내 주처가 바로, '여기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일을 해서도 먹고 살게 했으니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로서 이렇게 육신을 얻었으니 감사하고, 길러 줬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니 감사하구나. 또한 우리 식구를 이끌어 주는 것도 당신밖에 없어.' 하고 참 깊은 마음으로서 그렇게 한생각을 내 놓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 걸음걸이는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든지 큰 거든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커버하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팔자 운명 때문에, 아니 죄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아예 체념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념할 때가 아니라 실험을 해야 합니다. 체념을 하시지 말고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알뜰히 능력을 기르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도리를 길러서 위로는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백 마디 해 봐도 한 번 실천하는 것만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모두가 생각에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이성계가 아무 뜻도 없이 떡을 파는 노인네 앞에 가서 떡 그릇에 가서 그냥 엎드러진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내가 모두를 얻으려면 이 우주 천하의 모든 것을, 만약에 하나도 가질 게 없다면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이 주먹 안에 꼭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얻을 바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의 찌꺼기가 남아서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땅 놓으십시오. 몽땅 맡기시고 사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들이고 내고 살고 있는 자체, 자기까지 더불어 같이 이끌어 가는 주인공 자체가, 운전수가 차는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다면 어느 땐가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빛이 나고 스스로, 참으로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져서 하늘을 보고 한 번 울고 땅을 치고 한 번 울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삶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이 지금은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럭하는 건 곧바로 들어가는 길을 인도하고 싶어서입니다. 만약에 자기 근본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빙글빙글 돌려서 무슨 옛날 얘기 하듯이 한다거나, 무슨 옛날 역사를 얘기하듯 한다거나 하고 옛 조사들의 업적을 얘기한다거나 한다면 이건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 하듯이 하면 하나도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힘은 길러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를 들어도 자기가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데 귀로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버린다면 그건 들을 때 그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든 알든 작든 크든 자꾸 관하면서 실천으로 옮길 때 나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주위 어려운 사람들도 밝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발전 가능한지요?

문 제가 얼마 전 죽은 영혼들과 영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한 미국인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영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으며, 설사 자살이나 사고 같은 끔찍한 환경 속에서 죽은 사람들도 영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죽음으로 인연을 이룬 유가족들에게는 이야말로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것인지요? 저희들이 죽은 후에 이 육체가 없이도 영적 발전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크든 작든 알든 모르든 자꾸 관하면서 실천에 옮겨야



그림 · 최주현

나도 자유로워지고 주위 사람도 밝게 벗어날 수 있어

답 사람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치면 그게 합치는 동시에 말을 하고 생각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영혼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 바로 자기 불성을 싸고 있는 겁니다. 생명력을 싸고 있는 거라고요. 생명력을 싸고 있는 동시에, 즉 말하자면 죽어도 불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식과 이 모습이 없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좋은 일을 했든지 어떠한 일을 저질렀든지 거기에 따라서 또 차원이 높아지기도 하고 차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삼합이 개입하는 데 넣을 수가 없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은 모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데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소는, 은하계의 별성도 모습은 다 떨어지지만 그 원소는 남아서 다시 옷을 입어요. 별성의 옷을 입는다고요.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게 원소는 더함도 덜함도 없이 남아서, 즉 말하자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면 차원이 주어지는 대로 또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가고 진화돼서 또 생존하게 되는 거고, 또는 거기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짐승의 모습으로도 될 수 있고, 짐승의 모습이었는데 사람의 모습도 될 수도 있고, 차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어저께도 과거지만 우리가 어저께에 살 때는 바로 어저께가 오늘이었습니다. 어저께도 오늘이었다고요. 삼천 년 전도 오늘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에서 보면 내일이 미래이지만 내일에서 보면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오늘만 있는 겁니다. 오늘만 있으나 찰나찰나 바뀌어 가지고 가니까 공했다. 하나도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다. 모두가 그냥 돌아간다. 하다못해 개미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이 돌아가고 있고 지구에 살고 있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생명들은, 나무 하나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다. 죽으면 목신이라는 원소가 있다. 그래서 그 나무들하고도 같이 교류가 돼서 그건 또 다시 싹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영혼이 죽으면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닥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자손이 된다든가 부모가 된다든가 이런 연결성이 있다면 틀림없이 감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 나가는 그 자체가 아주, '하나님' 하는 것도 하나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또는 '주여' 하는 것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으면 주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것도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근본 주인공. 그런데 모두 고상을 걸어놓고 타의에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내 생명과 과거나와 진화된 나와 현재 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조상님이 꿈에 보여요

문 요즘 들어서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조상님이 자꾸 꿈에 보이고 그럽니다. 천도재를 지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마음을 내서 보살펴 드려야 하나요?

답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 돌아가셨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총에 맞아 죽었다거나, 6·25때 무슨 일이 있어서 죽은 그런 사람들, 물에 빠져 죽었다든가 목을 매서 죽었다든가 이런 분들도, 아무리 어렵게 살고 아무리 악하게 살고 잘못하고 살고 그랬어도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서 모든 걸 돌려놓으면 그냥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살 수 있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으면 먹는 대로 먹을 거고 입으면 입는 대로 입고 걸으면 걸은 대로 걷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뜻하느냐 하면, 공부를 할 때는 모습이 있어야만 부딪침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탑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도 모습이 없으니깐 그 탑에 모습을 두고선 모두 공부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 뜻이 그렇게 된 겁니다. 게다가 내가 내 탑을 지금 가지고 다니는데 내 탑 속에다 다 넣어도, 이 세상 만법 만 중생들 만 부처님들을 다 넣고 다녀도 손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마음공부를 못해서 깨치질 못했다고 '우린 깨치지 못해서 그걸 못해.' 이러지 마시고 그거를 하시는 동시에 그게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습도 벗어날 수 있는 거지만 돌아가신 영령들도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집안이 편안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못 보지만 살다 보면 남인데도 영령들이 '저분한테만 들어가면 내가 참 세세생생을 아주 벗어날 텐데.' 하고선 그냥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꿈에도 보이고 그냥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얼른 응해 줘야죠. 응해 주고, 하다못해 법당에 와서 응해 주는 동시에 절이라도 서너 번 해 드리면, 서너 번 해 드리고 주인공에다 다 집어넣으면 아주 좋은 일이죠. 늘 얘기하지만 어저께도 내일도 없이 오늘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 말입니다. 오늘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조상들의 영령들, 모두 내 앞에 거론되는 사람들을 전부 주인공 안에다 다 흡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하나가 너무도 살기가 바쁘고 어렵고 지금은 더더욱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뛰면 빠르고 느리게 뛰면 느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뛰고 안 뛰고가 없이 빠르게 생각하면 되고 빠르게 생각지 못한다면, 이해가 안돼서 느리다면, 그 이해가 안되면 말입니다, 뭐든지 결정이 안 나고 적응이 되지 않죠. 이해가 돼야 뭐든지 결정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으니깐요.

그리고 그렇게 넣으면 넣는 대로 없어진다 해야 되나요? 넣는 대로 들이 아니다 이런 소립니다. 넣어도 넣어도 들이 아니요 늘어나지 않는다.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꺼내는 사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령들을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나한테서 우글거리고 집안이 외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어넣어서 공심으로 공생으로 공체가 된다면 정말 따뜻하고, 더하고 덜함도 없이 따뜻하고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으니 가정에서도 평화스럽단 얘깁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무척 애를 쓰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정말 적응이 돼야만 이런 소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소릴 못하죠. 그런데 이런 소릴 해도 적응이 돼야 합니다. 이 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둘로 보지 않는다면, 둘로 하지 않는다면 둘로 보지 않는 것이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공생으로 되는 것이고, 공생으로 되면 공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봐도 혼자 보지 않고 서로 더불어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심으로만 볼 수 있다면 불안(佛眼)이 되죠. 육안으로 보는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보는 거고 심안으로 보는 거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 그렇다 그러지만, 그 경지가 참 많아서 법안(法眼) 혜안(慧眼) 불안 이렇게

☞30면으로 계속

백 마디 말을 아무리 해도 한 번 실천만 못해

☞29면에서 계속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이 모두, 여러분은 모르시고 올라가야 되죠. 모르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알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알게 되고,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우리가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내 마음 주인공 하나가 겨자씨라면 일체제불을 다, 일체제불도 각 처 각 업의 부처님 상이죠.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런 걸 다 이 가죽 속에다 넣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모시고 쫓아다니면서 받들고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일체 중생들도 다 넣고 말입니다. 들이 아닌 까닭에요. 우리가 몽땅 이 세상의 모든 일체를 다 넣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들이 아니죠. 한 주먹 쥐어다가 넣어도 쥔 사이도 없고 넣은 사이도 없다. 그러면서도 넣어졌다. 또 꺼내서 풀어 줘도 풀어 준 사이가 없이 풀어 줬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며 보살의 법도입니다. 공법 도리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모두 편안하게 사시려면 이 도리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각 세계를 봐도 진짜로 자기 근본처에 직선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활을 하게끔 하는 데가 별로 없습디다. 그리고 모두 자활이라고 해도 화두를 갖게 한다든가 이래도 그것은 자활이 아닙니다. 화두는 내 모습이 벌써 화두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 속에 모든 일체제불이 있는 것도, 중생도 있는 것도 다 한꺼번에 공체로구나. 공체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말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것쯤은 알아야 전체를 알게 되죠. 일하시는 것도 답답하게 때로는 이쪽으로 들어갈 걸 갖다가 저쪽으로 들어가니깐 참 답답하죠. 답답한데 그것을 '골수를 찾아서 잘 들어가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고 자기가 쑥 빠지고 자기 주인공을 내세우면 그냥 옳게 들어가게끔 다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항상, 여러분이 바다와 같이 아신다면 나도 바다와 같고 여러분이 우물 안처럼 생각하시면 나도 우물 안이고 연못 안이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다처럼 탁 터져서 훨훨 턴다면 나도 훨훨 털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에서 한 치도 못 나간다면 이 세상 정신계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하세요.

가정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문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라든가 부부 인연이라는 게 불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인연인데 요즘 가정에서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또 불행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그 인연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불교라는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풀 한 포기도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사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만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망했어. 저 사람이 조렇게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 하고서 남의 탓을 하고 남의 원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 파괴가 되고 그렇습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어떤 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내면에 맡겨 놓는 작업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나 하나가 내 탓으로 돌리고 모두에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부드럽게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느 땐가 작업이 순조롭게 될 때 그 가정은, 가족들의 마음이 이 전력이 똑같은 거와 같이 광력도 똑같고 자력도 똑같고 통신력도 똑같이 전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내가 그 마음을 먹는데 상대방도 바로 그 마음이 동시에 자꾸자꾸 거기 가서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력이 똑같이, 한 집에 전구는 제각각인데 전력은 똑같습니다. 가스통이 하나인데 어느 곳에서 쓰는 가스이든 다 그 한 통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통에서만 내가 잘할 수만 있다면 또 그것은 한 가정을 정말이지 부드럽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선 화목이 깃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신도가 남편이 별이 셋이나 되고 아주 우쭐대고 살 사람인데도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남편이 들어와도 본 체를 않고 그래서 서로 떨어지는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은근히 배신해서 그런 줄 알고 만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이 파괴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길 왔습니다. 그래서 관하는 도리를 가르쳐 줬죠.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남편이 말입니다, 전자에 안 하던 짓을 하더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부드럽게 "여보, 피곤해서 어떡해요?" 하면서 오히려 위안을 해 주면서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뀌니까 시간만 나면 자꾸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자식들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여보, 어디 있어? 당신 어디 있어?' 하고 생각하면 그냥 그 생각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화가 온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부처님 법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려면 서로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절대 남 탓하지 마시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요. 그럼 지금보다는 훨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법문 또한 타성이 아닌지요.

문 거의 매일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고 또 읽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열심히 수행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체를 주처에서 한다는 걸 믿고 걸어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일 매일 반복해서 스님의 법문을 읽는 것 또한 타성에 젖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답 어떤 글을 읽더라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끝나면 나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론으로 알든 모르든 그걸 떠나서 아는 대로 심부름만 하고 있다는 것을 딱 믿어 버리고 잘된다 못된다를 떠나서 하게 되면 그게 최상이에요. 그런데 글로만 읽으면 자기를 못 믿는 반면에 이론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말이 없어져요. 말이 끊어지죠. 보이는 데 딱 이으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 자동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스승을 찾아라 이거예요.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해 놨으니까 자기 주인공을 찾아라 이거지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매사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는 건 저승에서 이승으로 나오는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은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고 무조건 거기다가 놓고 사니깐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잘못하고 잘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봐서 알고 그러지요. 그런데 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상대를 탓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주처에다 관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되 인의롭게 말을 해 주세요. 정히 꼭 말해 줄 것이 있다면 인의롭게 말을 하고 항상 관하면서 말을 해라 이거지요. 그러면 서로가 함이 없이 공부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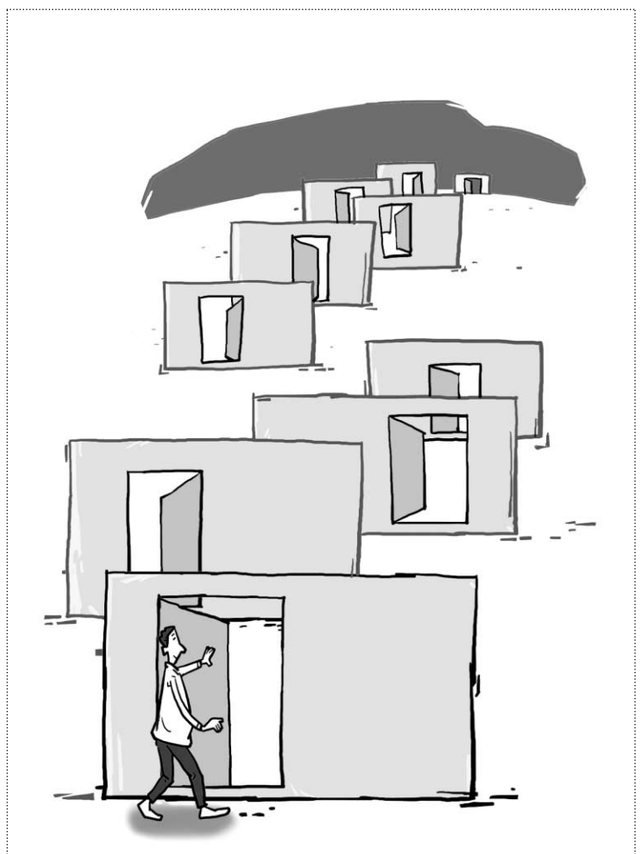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백일인등 관음기도 입재 및 마정수기 대법회

2005년 마지막 백일관음 인등기도를 알려 드립니다.
천수천안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전에 불 밝히고 인등기도를 모시게 되오니 많은 동참기도 발원합니다.



금번 기도 입제에는 큰 원력을 세워 티벳트 달라이라마 예증하신 24번을 환생하신 12살 룸범 린포체스님을 초청하여 백일인등 관음기도 입제와 마정수기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생에 업장을 소멸하고 성불하는 인연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추앙을 받고있는 달라이라마님께서 예증하신 룸범 린포체 스님을 큰 인연의 공덕입니다. 귀중한 인연의 자리에 꼭 참석하시어 마정수기를 받으시고 불자님에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10월 26일(음, 9/24) 10시
▶ 1부 – 백일인등 관음기도 입재
▶ 2부 – 룸범 린포체 마정수기 및 법문
● **백일기도 회향** : 2006년 1월 23일(음, 12/24) 10시

■ **접 수 처** : 풍주사 종무소 043)256-5585, 258-3199
■ **기도동참금** : 1인 3만원 (미리 접수하여 주십시오)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1-01-0696-670 (재단법인 선학원)
■ **홈페이지** : www.pungjusa.or.kr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7번지
재단법인 선학원 충북 교구본사 고령산 풍주선원
원장 김범추 합장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제나 삼제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 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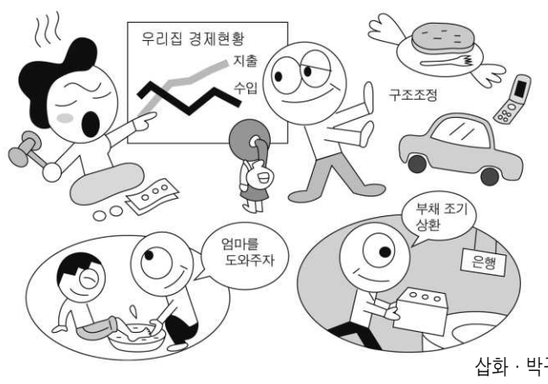
천도재 49재와 곁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우리살림 더하고 빼고 나눠 볼까!

효과적으로 가정경영 하려면?

지혜경영연구소(대표 손기원 · 02-766-9455)가 가정경영의 비법을 알려주는 특강을 10월 29일 개최한다. '지혜인 다이어리' 출간 기념 이벤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의 주제는 '효과적인 가정경영'이다. 어떻게 가정을 경영해야 효과적일까? 손기원 대표는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려야 지혜사회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며 가정 경영의 비법을 기업 경영의 사례를 통해 찾아냈다. 손 대표가 제안하는 손쉬운 가계결산서 작성법과 가족이사회 운영법, 대화가 되는 스킨십 방법 등을 소개한다.



삽화 · 박구원

지혜인 다이어리는? 미국에 프랭클린 플래너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지혜인 다이어리가 있다. 지혜경영연구소에서 펴낸 2006 지혜인 다이어리에는 가정경영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반용과 프로페셔널용 두 가지로 나온 지혜인 다이어리는 자기 사명 기록에서부터 매주 점검, 가계결산서, 가족회의록, i seek(찾기 목록) 등으로 구성됐다.

가계결산서

과목	연초 잔액	연말 잔액	과목	연초 잔액	연말잔액
[자산]			[부채]		
예금적금			은행대출금		
주식			미지급금		
전세금			임대보증금		
부동산			( )		
회원권			( )		
대여금			부채총계(②)		
( )			[자본]		
( )			(①-②)		
자산총계(①)			부채자본총계		

■ 가계결산서 작성법

1년간 자산, 부채 총계 내 적자 여부 확인

번거롭고 까다로워 기록을 포기하게 되는 가계부. 매일 매일 작성해야 하는 가계부 없이도 가정의 1년 가계결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가계의 부채현황 파악을 통해 가정의 재정을 좀더 규모 있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며 손 대표는 가정용 재무 관리법인 가계결산서 작성을 권한다.

가계결산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의 자산과 부채의 총계를 내서 실제 가계의 적자 여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연초 잔액을 적고 주식은 시세로, 부동산과 회원권 등은 취득가로, 자동차는 중고시세에 맞춰 기록한다. 자산총계를 낸 후에는 은행대출금 등 가계의 부채총계를 낸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남은 것이 순수한 가계의 자본이다.

가계결산서를 작성했으면 한 해 동안의 가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먼저 가계의 수익을 연봉 기타소득 등으로 나눠 합계를 산출한다. 순이익은 가계결산서에 기록했던 연말 자본에서 연초자본을 제외한 금액이다. 비용은 수익에서 순이익을 뺀 금액으로 1년간 가정에서 사용한 비용이 나온다.

■ 가정도 구조조정 필요하다

경영 악화시, 투잡스 · 이사 등으로 탈출

가계결산을 통해 재정 기록을 검토하면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가정 역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가계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다섯 가지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순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 ▲이자 또는 원금이 연체되고 있다 ▲부채가 재산의 50%를 초과한다(부채비율 100% 초과) ▲부채가 연 수입을 초과한다 등이다. 앞의 세 가지는 강력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뒤의 두 가지는 구조 조정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위의 다섯 가지 사항을 점검해 가계 구조 조정 대상이 됐다면 어떻게 구조 조정할까.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면 지출하지 않는다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한다(투잡스, 전직 등 고려)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한다 ▲주거비용이 낮은 곳으로 이사를 한다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가족 이사회를 열어라

재무현황 공개, 위기대처 상황 등 논의

가족이사회든 가족회의든 명칭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1년에 한 차례 가족들끼리 의견을 공유하는 정기회의를 꼭 개최하자. 정기회의 외에도 안건이 있을 때마다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가정에도 기업과 같은 조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가장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CEO, 부인은 최고 재무경영자인 CFO, 중학생 이상이면 가계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의장은 이사회가 열릴 때 원하는 사람이 맡는다. 서기도 정해 회의 기록을 남긴다.

자녀에게 가정 부채 현황 등을 공개하고 위기대처상황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가정의 현안을 다루는 회의이면서 동시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산교육이다.

■ 발마사지로 대화 · 건강 OK

귀한 존재 인식 통한 문화적 차이 극복

손기원 대표의 제안 하나. 하루에 30분만 가족들을 위한 발마사지 시간을 만들자. 발마사지 시간은 대화의 시간이기도 하다. 손 대표는 "발마사지 시간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조언한다. 인체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발을 만져줌으로써 자녀들은 귀하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발마사지를 통해 대화도 하고 가족 건강도 체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강지연 기자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36)

환경 파괴 될수록 독성물질 증가

지금 우리 주변은 인체에 유해한 여러 독성물질로 가득 차있다. 먼저 금 은 구리 청동 철 납 그리고 수은과 같은 귀 · 중금속과 수산화철 철광석 아연 방해석 그리고 유황과 같은 여러 무기질들이 서로 결합하여 유독성 화합물로 변할 수 있다. 그러한 화합물들은 햇빛이나 연기 오염된 공기 신체적 접촉 그리고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유입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음식을 통한 중독도 우리 주변에 흔하다. 서로 상극 관계에 있거나 성미가 맞지 않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닭고기와 요구르트 그리고 생선과 계란은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식품이다.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음식을 섭취해도 소화계를 상하게 하여 7대 인체구성 성분과 3대 배출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다.

동 · 식물로부터 오는 천연 독성도 많다. 먼저 식물성 유독물질로는 백부자 흰독말풀 납가새 등대풀 그리고 꼭두서니 풀이 있다.

동물성 독물로는 뱀독 미친개의 타액 전갈 그리고 벌침이 있다.

잘못하여 백부자를 너무 많이 쓰면 혀와 사지가 마비되고 화끈거리며 입술과 혀가 갈라지고 안색이 검붉게 변하며 숨결이 차갑고 실신하여 의식을 잃고 사지가 뻣뻣하게 굳으며 위장이 부어 격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독이 퍼지지 않도록 천연탄산소다 심황 그리고 가자(미로발란)를 배합한 처방약을 즉각 복용시켜야 한다.

개가 광견병에 걸리면 귀 · 눈이 꽉 막힌 듯이 침을 질질 흘리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꼬리를 치켜세우고 이곳저곳 어슬렁거린다. 미친개에 물리면 물린 상처부위가 암갈색으로 부어오른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두통이 오고 침을 흘리며 헛소리를 하고 실신하여 헐떡거리게 된다. 또 물을 무서워하여 공수병이라고도 하는데 거울이나 물속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 병이 더 깊어지면 마치 개처럼 행동하게 된다. 광견병에는 7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광물질과 약초를 배합한 해독제들을 처방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탄트라행자의 도력과 내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탄트라에 도통한 고수들은 상처부위에서 독을 빨아내어 제독시켜버릴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과 관련한 부인 및 산과 질환들을 살펴보겠다. 여성의 신체구조가 남성과 크게 다른 점은 젖가슴과 자궁 그리고 월경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신체적 차이로 인해 여성에만 고유한 부인과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티베트의 고의서에 언급되어 있는 부인과 질환만도 무려 40가지나 된다.

자궁질환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각기 룽 티빠 베껜 및 피(血) 관련 질환들과 그 혼합(混合) 질환이다. 월경장애는 10가지인데 각각 폐 심장 간 비장 담낭 신장 소장 월경과다 유방 및 무월경 관련 장애들이다. 만성 월경장애에는 6가지가 있는데 뼈 심장 신장 위장 소장 및 두통관련 장애들이다. 이들 장애는 룽(氣) 에너지에 의해 농축된 월경과 혈청 때문에 발생하며 신경로와 장기 속으로 분산된다.

상극 관계 음식 섭취시 체구성성분 등에 유해
현대적 피임법은 부인과질환 발병의 원인

부인과 및 산과 질환으로는 임부오조(임신기간중 졸음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 유산 둔부분만 태반사출장애 자궁탈출증 분만후 출혈 산후병 그리고 분만후감염들이 있다. 유방암과 자궁암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남얘기로 흘려들을 수 없을 만큼 흔한 병이 되었다. 그러나 티베트나 인도와 같은 사회에서는 그런 병은 아직 매우 드물다. 그것은 우리 사회와 생활양식과 식습관이 다르고 우리처럼 손쉬운 현대적 피임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티베트와 인도에서는 먹거리도 보통 유기농산물들이고 첨가제나 화학약품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 월경도 우리 사회처럼 여성들이 직장관계로 정신없이 스트레스 속에 맞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맞는다. 우리 주변에 가끔 월경으로 시간을 빼앗기는 것조차 아까울 정도로 바빠서 별 생각없이 월경억제제로 간단히 해결해버리는 여성들이 있는데 매우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자연을 거슬러서 무엇을 얻자는 것인지… . 그러고도 제명을 다 바랄 셈인가!

■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좋고 또 영남의 알프스로도 유명한 신불산(神佛山, 신령한 부처님이 계시는 산이란 뜻)중턱에 터를 잡고 용성 진종조사(33인의 한분이시며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신)의 육자영감대명왕경에 의지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근본 도량인 화엄도량을 만들기 위해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모든 불보살과 일체중생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옴 마니 반메 훔을 신행하면서 불사를 하고 있는 비구승입니다. 전국의 명산으로 마지막 수행처인 토굴터를 찾아다니다 우연히 이곳을 (특2급지 天乙庚基)발견하고 평생의 토굴수행처로 삼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큰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겨우겨우 길을내어 4m로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거의 불가능하던 전기불사도 완료했으며 총6000평중 2000평을 대지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불사회향의 길은 요원(遙遠)하기만 합니다. 빈승(貧僧)혼자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의 불사를 진행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또한 많아서 부득이 불사에 동참해 주실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신심깊은 불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곳 도량은 약사여래부처님의 영험도 뛰어나서 환자들의 완치율이 좋은편이며, 산신의 영험 또한 탁월한 도량입니다. 화엄도량이므로 화엄신장의 신력이 항상 함께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육자신력장엄공능의 위신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영가천도는 물론 다른 모든 일상사 원하는 바의 성취가 월등하게 빠른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도량을 한번 참배하게되면 모두 탄복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인연이 도래하여 속히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되어지기를 시방삼세 부처님과 시방삼세 모든 가르침과 시방삼세 모든 스님들께 기원드립니다.

▶불사내역 : 노천에 모실 쌍둥이 청동비로자나부처님(열자) 현재 성화불교에서 조성이 작년(2004년 10월)에 완성되었으나 현재 보관중에 있으며, 좌대는 조성이 안된 상태에 있으며 대광명전(큰법당 50평), 산신각(16평) 요사채, 주지실, 일주문, 범종각, 창고등이 앞으로 추진해야할 불사로 남아있으며 현재 완료된 것은 요사채 70평과 가건물 법당과 산신각 용왕당 등이 있습니다.

※외롭게 혼자생활하시는 분이나 신체가 불편하신 분 또는 마음에 병을 가지신 분, 갈곳이 마땅히 없어 망설이시는 분, 병원에서 병명이 안나오면서 항상 심신이 고통에 시달리시는 분(불면증, 두통, 우울증, 고혈압, 불안, 공포 등)이나 조용한곳에서 수양을 원하시는 분 또는 정말 기도의 가피를 입고자 하시는 분이라도 환영합니다. 모두가 한가족 같이 함께 수행하면서 불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사 인연공덕으로 남북통일 속성취 세계평화 만민함락 불일증휘 법륜상전 국계항안어 만세 하여지이다.

신불산(神佛山)아래 불승사(佛乘寺)에서
정법사문(正法沙門) 불승 대일(佛乘大日)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산255-2번지 / 전화 052)254-5125
농협 815154-52-136663 (예금주 김수만) / 우체국 700799-02-001252 (예금주 김수만)

탈종공고

● 승려번호 : 21133
● 법 명 : 능인
● 사찰명 : 영신암
● 직 위 : 주지
● 성 명 : 김제녀
● 주 소 :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104-17

위 사찰과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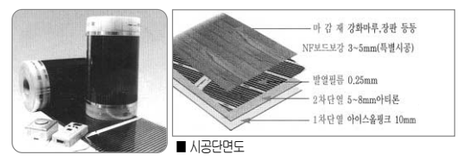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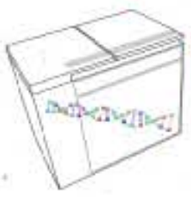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몸에 좋은 김치유산균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뉴 발효과학 딤채,
딤채는 참 스마트하다



2006년형 뉴발효과학 딤채 김치유산균의 DNA를 분석한 ULA알고리즘으로 김치의 맛과 영양을 높여주는 유산균을 더 많이 만드는 발효과학

당신을 더 새롭게 사랑하고 싶어서
발효과학은 진보합니다



The Original 딤채

New 딤채 혼수장만 Festival(10.1 ~10.31) New딤채를 구입하는 예비 신혼부부께는 '로마의 휴일' 행운을!
자세한내용은 딤채클럽(www.dimchae.co.kr)을 참조하세요 (추처세공과금은 본인부담)

New 딤채 구입고객 Festival(10.1 ~10.31) New딤채를 구입하신 고객께 사은품을 드립니다
LV,LS급 구입고객 : 한식기세트(15Pcs) +CJ김치교환권 또는 용기세트 / BM,BE,PS급 구입고객 : CJ김치교환권 또는 용기세트